문제의 의도,
정답 해설과
오답 풀이를 제공하는

# 정답과 해설

# I 대화와 표준 발음

## 1.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대화

### 자아 개념과 협력적인 대화

**간단 확인 문제** 본문 8쪽

01 (1) × (2) ○
02 (1) 긍정적 (2) 공감적
03 비폭력 대화

**01** (1) 자아 개념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성장하면서 변하기도 한다.
(2) 자아 개념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02** (1)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상대의 말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곧 긍정적인 대화로 이어져 상대와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2) 공감적 듣기는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상대의 말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대화 시 신뢰와 친밀감을 갖게 한다.

**03** 상대를 평가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상대에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대화 방식은 비폭력 대화이다.

### 자아 개념과 협력적인 대화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8~11쪽

01 ③ 02 의사소통 03 ③ 04 ⑤ 05 ⓐ: 타인과의 관계 ⓑ: 의사소통 방식 06 ④ 07 ② 08 ⑤ 09 ⑤ 10 폭력적인, 비폭력

**01** ㄱ.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ㄹ. 대화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화법 유형에 해당한다.
ㅁ. 대화 참여자들은 타인의 말이나 반응을 통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된다.
| 오답 풀이 | ㄴ. 대화는 둘 이상의 참여자가 생각이나 정보 등을 주고받으므로 일방적 행위라고 할 수 없다.
ㄷ. 자아 개념은 자신에 대한 자기 인식이므로 반드시 대화 능력이 있어야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02** 자아 개념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그렇게 형성된 자아 개념은 또다시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므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의사소통'이다.

**03**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4** [A]에서 남학생은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소심하고 말이 없었으나 중학교 때 만난 친구의 칭찬으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A]를 통해 자아 개념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성장하면서 변하기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부정적 자아 개념을 지닌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②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 과정에 있다.
③ 자아 개념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과 타인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 관한 주관적인 견해이다.
④ 자아 개념은 자아 성찰뿐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자아 개념 형성에 큰 기여를 하는 사람을 '중요한 타인'이라고 한다.

**05** 자아 개념은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주고 이는 곧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평가가 다시 자아 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 과정에 있다. 이러한 관계를 염두에 둘 때, ⓐ와 ⓑ에는 '타인과의 관계', '의사소통 방식'이 들어가야 한다.

**06** 원만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아 개념을 돌아보고 의사소통 방식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타인의 의사소통 방식에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이 어떠한지 스스로 점검하여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07** '지우'는 '민준'의 말에 대해 '네 말은 시험에만 전념하고 싶다는 의미지?'라고 하며, 공감적 듣기 중 상대가 한 말을 재구성하여 재진술해 주는 '반영하기'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지우'는 '민준'의 말에서 '곧 시험이니, 시험 준비를 해야 하므로 가고 싶지 않다.'라는 의도를 파악하여 자신의 말로 재진술한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말하는 상대에게 몰입해서 듣는 방법은 '집중하기'에 해당한다.

③ 상대가 이야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법은 '격려하기'에 해당한다.

④ 상대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집중하기'에 해당한다.

⑤ 상대의 생각을 수용하고 자신의 말로 풀어서 말하는 방법은 '반영하기'에 해당한다.

**08** 이 글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상대에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해야 상대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자신의 욕구보다 상대의 감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09** '형'은 '물건이 여기저기 놓여 있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편하지 않네.'라는 말을 통하여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느끼는 감정보다 객관적 사실을 활용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물건이 여기저기 놓여 있는 모습을 보니'라는 표현에서 관찰한 대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명령이 아니라 '깨끗하게 정리해 줄 수 있을까?'라는 표현을 통해 부탁하고 있다.

③ '집이 깨끗하게 정돈되면 좋겠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④ '내 마음이 편하지 않네.'라는 말을 통하여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10** 상대의 생각이나 행동을 평가하고 판단하거나 비난이나 명령하는 말하기는 폭력적인 말하기에 해당한다. 폭력적인 말하기를 사용하면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비폭력 대화는 상대를 평가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상대에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대화 방식으로, 상대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 활동 적용 문제

본문 12~15쪽

**01** ② **02** ④ **03** ④ **04** 부정적 자아 개념 **05** ④ **06** ② **07** ③ **08** ④ **09** ④ **10** ① **11** ⑤

**01** 웹툰에서 '진수'는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나 친구의 지속적인 칭찬으로 자아 개념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웹툰을 통해 '자아 개념은 고정적인 것'이라는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자아 개념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성장하면서 변하기도 한다.

| 오답 풀이 | ① 부모, 형제, 친구, 선생님 등과 같이 자아 개념 형성에 큰 기여를 하는 사람을 '중요한 타인'이라고 한다.

③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하여 자기표현의 정도가 낮은 경우 타인과 원활한 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

④ 자아 개념은 '나'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과 타인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형성된다.

⑤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러한 과정을 '의사소통과 자아 개념의 순환 과정'이라고 한다.

**02** (나)에서 '진수'는 '소연'이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듣고, 몇 개월 후 자아 개념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긍정적 자아 개념을 통해 '진수'는 이전보다 원활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03** '진수'는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의사소통하다가 자아 개념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된 후 자신감 있는 태도로 자기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04** '나라'는 '나는 없네요, 그 용기.'라고 하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 '나라'는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5** '나라'는 처음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을까 봐 '고하트' 학교 대표 선발 대회에 출연하기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나, 친구들의 응원과 격려를 받고 '나도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순 없어. 나도 내 상처를 극복하는 거야!'라고 하며 용기를 내게 되었다. 이러한 '나라'의 태도 변화는 항상 너의 편이 되어 주겠다는 친구들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06**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의

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협력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

**07** '서우'는 '나라'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우'는 ㉠과 같이 자신의 감정을 비난의 방식으로 드러냄으로써 상대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08** '평가 및 판단하기'는 폭력적인 말하기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폭력 대화에 해당한다.

**09** 강연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고'와 같이 상대가 하는 말을 부정하는 말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누가 뭘 말해도 우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말투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학생'은 강연이 유익했다고 평가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화 습관이 무엇인지 찾아보겠'다고 하며 추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11** 대화 방식은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화 방식을 바람직하게 바꾸어야 하는 이유는 대화를 자신의 의도대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사소통이 타인과의 관계와 자아 개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소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16~17쪽

**01** ⑤ **02** ③ **03** ② **04** ④ **05** ㉮ 중요한 타인,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반복적으로 순환한다. **06** ④ **07** ④ **08** ㉮ 〈보기〉는 폭력적인 말하기로, 비난하기 및 명령하기의 방식을 사용하여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다.

**01** (가)의 '남학생'과 (나), (다)의 '진수'는 모두 과거와 현재의 자아 개념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다)를 통해 자아 개념이 삶 전체에 걸쳐 형성되며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02** (가)에서 '여학생'은 '남학생'의 적극적인 면모를 좋게 여기고 있으므로 '남학생'이 자아를 드러내는 점에 대하여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남학생'은 자신이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소심하고 말이 없었어.'라고 말한 것을 보아, 중학생이 되기 전에는 부정적 자아 개념을 지녔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② '남학생'은 중학교 때 만난 친구가 항상 칭찬을 해 주었기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중학교 때 친구는 '남학생'의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준 '중요한 타인'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남학생'은 중학생 때 만난 친구가 항상 칭찬을 해 주어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긍정적 자아 개념을 바탕으로 '여학생'과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⑤ '남학생'은 자신이 중학생이 되기 전에 소심하고 말이 없었다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는 긍정적으로 변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03** (가)의 '남학생'은 현재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 자아 개념을 지닌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포용적인 태도로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타인의 지적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ㄱ)이나 자신의 주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사람(ㄷ)이 긍정적 자아 개념을 지닌 경우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ㄴ과 ㄹ은 부정적 자아 개념을 지닌 사람의 태도에 해당한다.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남과 자주 비교하며 자책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을 드러내기 꺼리거나 방어적인 태도로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많다.

**04** (나)에서 '진수'는 관심사에 대해 묻는 친구들의 질문에 대해 '옛날에는 거미 연구를 하고 싶었는데, 유별나다고 해서 요즘에는 바뀌었어.', '내가 이상한 것 같아서 자신이 없어.'와 같이 생각하고 있다. 즉 '진수'는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어 그 영향으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는 태도로 임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친구들은 '진수'가 자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하며 '우리가 불편한 걸까?'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며 '진수'의 대화를 방해하고 있지도 않다.

② '진수'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음……. 글쎄?'와 같이 자신의 의사를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친구들과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③ 어린 시절 '진수'가 거미를 좋아한다고 하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친구들의 모습과, '거미 연구'에 대해 '유별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진수'의 생각으로 미루어 보아, '진수'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진수'의 자아 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부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하였다.

⑤ '진수'는 타인의 반응을 신경 쓰고 있지만 이를 수용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자아 개념을 수정하고 있지는 않다.

**05** (다)에서 '소연'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관심 갖기 어려운 것을 좋아하다니, 너 참 멋지다!'라고 하며 '진수'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고 있다. '진수'는 이러한 '소연'의 칭찬을 받고 몇 개월 후 자아 개념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므로, '소연'은 자아 개념 형성에 큰 기여를 하는 '중요한 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의사소통은 자아 개념에 영향을 주고, 자아 개념은 또다시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어 반복적으로 순환한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소연'이 '중요한 타인'이라는 것을 쓰고, 의사소통과 자아 개념의 관계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5점 |
| 두 내용 중 하나만 제대로 서술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06** 대화에서 사용된 말하기 방식은 '비폭력 대화'이다. 상대를 평가하는 것은 폭력적인 말하기에 해당하므로 비폭력 대화의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다. 비폭력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07** 동생은 '나도 너무 피곤해서'라고 말하며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말하고 있으므로, 미숙하게 표현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8** 〈보기〉에서 '형'은 폭력적인 말하기를 사용하였다. '넌 치울 줄 몰라?'는 상대를 비난하는 말하기이며, '빨리 청소해!'는 명령하기에 해당한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보기〉에 나타난 '형'의 말이 '폭력적인 말하기'임을 밝히고, 문제점을 제대로 서술한 경우 | 5점 |
| 〈보기〉의 말하기 방식이 무엇인지 밝히지 못했거나, 문제점을 제대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중단원 **실력점검 문제** 본문 19~22쪽

**01** ㉮ 자아 개념은 타인과의 관계 및 의사소통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삶 전체에 걸쳐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 **02** ③ **03** ⑤ **04** ⑤ **05** ⑤ **06** ㉯ 평가 · 판단하기 방식을 관찰한 대로 표현하기 전략을 사용하여 수정하였고, 감정 표현이 미숙한 것은 느낌 말하기 전략을 사용하여 수정하였다. **07** ③ **08** ⑤ **09** ② **10** ②

**01** 자아 개념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성장하면서 변하기도 하므로 삶 전체에 걸쳐 형성되며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자아 개념의 특성 중 〈보기〉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한 경우 | 5점 |
| 자아 개념의 특성은 서술했으나 〈보기〉와 관련이 없는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02** ㉠ '진수'는 어린 시절 친구들의 반응을 통해 '내 취향이 이상한가?'라고 하며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게 되었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너 참 멋지다!'라는 친구의 말로 인해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게 되었다.

㉢ '진수'는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 때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로 의사소통하였으나,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게 되면서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의사소통하게 되었다.

㉣ 어린 시절과 고등학생이 된 '진수'는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고, 몇 개월 후의 '진수'는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자아 개념에는 부정적 자아 개념과 긍정적 자아 개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 자아 개념에 따라 대화에서 소극적으로 임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03** (다)에서 '나'의 작품을 칭찬해 주는 타인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나'가 자신의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① '진수'는 (가)에서 거미를 좋아하는 자신의 취향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나)에서는 긍정적 반응을 경험하고 있다.

② (가)에서 '진수'는 어린 시절 때 '으악! 징그러워!'라는 주변의 반응을 통해 부정적 자아 개념을 지니게 되었다. '진수'는 이러한 부정적 자아 개념으로 인해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음……. 글쎄?'라고 반응하며 협력적 관계를 맺기 어려워하고 있다.
③ (나)에서 고등학생 때 '진수'는 '너 참 멋지다!'라는 친구의 반응을 통해 자아 개념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취향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④ (다)에서 '나'는 '이번 작품 정말 좋았'다고 한 타인의 칭찬을 받아 '나는 잘할 수 있어.'라고 하며 자신감 있는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되었다.

**04** ⓒ에서 '지수'는 '이수'의 말인 '내 말을 잘 안 들어주니 나를 미워한다고 느꼈어.'를 재구성하여 '내가 너의 말을 잘 들어주고 함께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거지?'라고 재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공감적 듣기의 방법 중 '반영하기'에 해당한다.

**05** (나)에 사용된 말하기 방식은 비폭력 대화의 방법이다. 이는 상대에게 존중받고 인정받음으로써 타인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사용하는 말하기 방법으로,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방법은 아니다.

**06** 수정하기 전 대화는 폭력적인 말하기를 사용하고 있다. 수정 전에는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했던 내용을 ㉠에서는 관찰한 대로 표현하기 전략을 사용하여 수정하였고, 수정 전에는 감정 표현이 미숙한 것을 ㉠에서는 느낌 말하기 전략을 사용하여 수정하였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에 사용된 전략 두 가지를 모두 서술한 경우 | 4점 |
| ㉠에 사용된 전략 두 가지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 2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07** (다)의 대화에서 '서우'는 '너는 왜 내 말은 안 듣고 항상 네 말만 해?'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 대한 비난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성찰할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나라'는 대화에서 서운한 감정을 표현한 적이 없다.
② '나라'는 상대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대해 성찰할 것이다. 잘못된 단어가 사용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④ 상대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했다는 점을 성찰할 사람은 '서우'가 아닌 '나라'이다.
⑤ '서우'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을 뿐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여 돌려 말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08** ㉤에서 '학생 2'는 '사람들한테 크기가 다른 별 스티커를 직접 붙이게 할까?'라고 한 '학생 3'의 제안에 대해 '좋네!'라고 하며 답변하고 있다. 이때 '학생 2'는 '별들의 밝기 차이를 나타낼 수 있겠어.'라고 말하며 '학생 3'이 제시한 방안의 효과를 덧붙이고 있지만, 직전 발화를 재진술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① ㉠에서 '학생 3'은 '영조 때의 혜성 관측 기록이 있었어.'라고 한 '학생 2'의 발화를 듣고,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라고 물으며 세부적인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② ㉡에서 '학생 2'는 '전시물은 어떤 형식으로 만들 거야?'라고 물어본 '학생 1'의 발화에 대해 '혜성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한 전시물을 만들고 있다고 하며 '좀 밋밋해 보여 걱정'이라고 고민을 언급하였다. 그 후 '학생 1'에게 '좋은 생각 있어?'라는 질문을 통해 대안을 요청하고 있다.
③ ㉢에서 '학생 2'는 '영상으로 만들면 생생할 것 같'다고 한 '학생 1'의 발화에 대해 '영상은 생동감이 있어서 좋'다며 긍정적인 부분을 언급한 뒤, '행사 전까지 제작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라고 하며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④ ㉣에서 '학생 2'는 '카드에 미리 별의 위치를 표시해 두는 것까지 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그릴 수 있겠지?'라고 한 '학생 3'의 발화에 대해 '응.'이라고 동의하고 '학교 행사 때 지리 동아리'가 '지역 명소를 표시한 활동지를 참여자들에게 주니, 여행 지도를 다들 쉽게 그렸'다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09** '학생 1'은 네 번째 발화에서 '조선 시대 별자리 해설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까?'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해설하는 시간이 아니라 해설을 준비하는 시간에 대해 점검한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학생 1'은 두 번째 발화에서 '전시물은 어떤 형식으로 만들 거야?'라고 질문하며 전시물의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점검하고 있다.
③ '학생 1'의 다섯 번째 발화에서 '별자리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거야?'라고 질문하며 해설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지 점검하고 있다.
④ '학생 1'의 여섯 번째 발화에서 '별자리 그리기 체험은 투명 카드에 야광 펜으로 그려보는 활동을 준비하기로 했잖아? 얼마나 준비됐어?'라고 질문하며 체험 활동이 어느 정도 준비되었는지 점검하고 있다.
⑤ '학생 1'의 일곱 번째 발화에서 '투명 카드와 야광 펜 외에 필요한 것 더 있어?'라고 질문하며 체험 활동에 더 필요한 물품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10** [B]에서 '괜찮아. 이제 막 시작했어.'라는 '학생 1'의 발화는 '학생 3'이 회의에 늦은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A]에서 '학생 2'는 '나도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의견에 동의해.'라고 하며 공통되는 의견부터 말한 후, '하지만 주변 친구들을 보면 우려되는 점이 더 커 보여.'라고 하며 상대방과 의견이 다름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견과 일치되는 점을 언급한 후 자신의 의견 제시하기'인 ㉰에 해당한다.

③ [C]에서 '학생 3'은 '두 관점이라니 무슨 말이야?'라고 하며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 3'이 회의에 늦게 참여하여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화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인 ㉯에 해당한다.

④ [D]에서 '학생 1'은 '방금까지 청소년의 팬 상품 소비에 대해 … 논의 중이었어.'라고 하며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학생 3'에게 회의에서 논의 중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대화 상황과 관련한 맥락을 공유하는 일'인 ㉱에 해당한다.

⑤ [E]에서 '학생 3'은 '괜찮다면 두 관점의 내용을 모두 글에 담아 줄 수 있어?'라고 하며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명령형으로 표현했을 때보다 상대방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주기'인 ㉮에 해당한다.

# 2. 슬기로운 발음 생활

## 표준 발음과 국어생활

**간단 확인 문제** 본문 23쪽

**01** (1) × (2) × (3) ○ (4) ○
**02** (1) 전통성, 합리성 (2) [ㅇ, ㄴ, ㅁ] (3) [ㄹ]
**03** (1) ㉠ (2) ㉣ (3) ㉡ (4) ㉢

**01** (1) 국어의 음절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이다.

(2) 음절 끝소리에 놓인 자음군 중 한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은 자음군 단순화이다.

(3) 받침 'ㄷ, 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 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한다.

(4) 된소리에는 'ㄲ, ㄸ, ㅃ, ㅆ, ㅉ'이 있으며,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앞에 오는 소리의 영향을 받아 각각 된소리 [ㄲ, ㄸ, ㅃ, ㅆ, ㅉ]으로 바뀌는 현상을 된소리되기 혹은 경음화라고 한다.

**02** (1) 표준 발음법의 기본 원칙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다.

(2) 비음화는 받침 'ㄱ, ㄷ, ㅂ' 뒤에 비음인 'ㄴ, ㅁ'이 올 때 받침 'ㄱ, ㄷ, ㅂ'이 동일한 조음 위치의 [ㅇ, ㄴ, ㅁ]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3) 유음화는 'ㄴ'이 유음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바뀌는 현상이다.

**03** (1) 받침 'ㅋ'이 [ㄱ]으로 교체되어 발음되므로 ㉠에 해당한다.

(2) '이'에 'ㄴ' 음이 첨가되어 [니]로 발음되므로 ㉣에 해당한다.

(3) 받침 'ㅎ'을 발음하지 않으므로 ㉡에 해당한다.

(4) 받침 'ㅎ'과 뒤 음절 첫소리 'ㄱ'이 결합하여 [ㅋ]으로 발음되므로 ㉢에 해당한다.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24~28쪽

**01** ④ **02** 발음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막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03** ④ **04** 이전부터 내려오던 발음상의 관습, 일반적인 발음 규칙 **05** 합리성 **06** ② **07** ⑤ **08** ⑤ **09** (1) [읻따] (2) [안꼬] (3) [막따] (4) [널찌] **10** [ㅋ, ㅌ, ㅍ, ㅊ] **11** ⑤ **12** ② **13** ⑤ **14** ④ **15** (1) [휘발류] (2) [한녀름] (3) [설리근] **16** ② **17** ④ **18** '끝'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으로'가 결합되었으므로 연음하여 [끄트로]로 발음해야 한다. **19** ②

**01**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은 동일한 단어를 사람마다 다르게 발음하지 않도록 제정한 표준 발음법의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

**02** 표준 발음법은 발음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막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제정한 발음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03** '진로'는 유음화가 일어나 [질:로]로 발음되고, '담임'은 그대로 [다밈]으로 발음된다. '금요일'에서는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그묘일]로 발음된다.

**04** 국어의 전통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이전부터 내려오던 발음상의 관습을 감안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발음 규칙을 감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05** '흙을', '닭이'를 [흐글], [다기]로 발음하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에 겹받침 중 하나를 연음해 [흘글], [달기]로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발음이다.

**06** 된소리되기는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앞에 오는 소리의 영향을 받아 된소리 [ㄲ, ㄸ, ㅃ, ㅆ, ㅉ]으로 바뀌는 현상이므로 교체에 해당한다.

**07** 자음군 단순화는 겹받침의 경우에 일어나는데, 'ㄳ'은 겹받침에 해당한다.

**08** '넓-'의 경우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하나 '넓죽하다', '넓둥글다'는 [넙]으로 발음하므로, '넓죽한'은 [널쭈칸]이 아니라 [넙쭈칸]으로 발음해야 한다.

**09** (1) 첫음절의 받침 'ㅆ'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발음하고, 둘째 음절의 'ㄷ'이 앞에 오는 소리의 영향을 받아 된소리 [ㄸ]으로 발음한다.
(2) 겹받침 'ㄳ'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ㄴ]으로 발음하고, 둘째 음절의 'ㄱ'은 된소리 [ㄲ]으로 발음한다.
(3) 겹받침 'ㄺ'은 'ㄱ'이 아닌 자음 앞에 위치하므로 [ㄱ]으로 발음하고, 둘째 음절의 'ㄷ'은 된소리 [ㄸ]으로 발음한다.
(4) 겹받침 'ㄽ'은 자음 앞에 위치하므로 [ㄹ]로 발음하고, 둘째 음절의 'ㅈ'은 된소리 [ㅉ]으로 발음한다.

**10** 받침 'ㄱ(ㄺ), ㄷ, ㅂ(ㄿ), ㅈ(ㄵ)'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면 두 음을 합쳐 [ㅋ, ㅌ, ㅍ, ㅊ]으로 발음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11** '샅샅이[삳싸치]'는 받침 'ㅌ'이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한 것에 해당하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12** '막론'에서는 먼저 받침 'ㄱ' 뒤에서 'ㄹ'이 [ㄴ]으로 발음되고, 그 [ㄴ] 때문에 'ㄱ'이 [ㅇ]으로 발음되므로 유음화가 두 번 일어나 [막논] → [망논]으로 발음된다.

**13** 된소리되기는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앞에 오는 소리의 영향을 받아 각각 된소리 [ㄲ, ㄸ, ㅃ, ㅆ, ㅉ]으로 바뀌는 현상이므로, 앞에 오는 소리의 영향을 받아 생기는 현상이다. 'ㄴ' 첨가는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 'ㄴ' 음이 첨가되는 현상이므로, 역시 앞에 오는 소리의 영향을 받아 생기는 현상이다.

**14** '불놀이'는 'ㄴ'이 'ㄹ'로 동화되는 유음화의 적용을 받아 [불로리]로 발음해야 한다.

**15** (1) '휘발유'는 발음 과정에서 'ㄴ'이 첨가되고 'ㄴ'이 [ㄹ]로 발음되어 [휘발류]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2) '한여름'은 발음 과정에서 'ㄴ'이 첨가되어 [한녀름]이 표준 발음이다.
(3) '설익은'은 발음 과정에서 'ㄴ'이 첨가되고 'ㄴ'이 [ㄹ]로 발음되어 [설리근]이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16** 유음화는 'ㄴ'이 'ㄹ'의 영향으로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17** [A]에서는 방송에서 잘못된 발음으로 말한 것을 듣고, 이를 통해 우리의 언어생활을 되돌아보고 있다. 세 번째 장면에서 어머니는 '발음뿐만 아니라 맞춤법,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정말 많'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네 번째 장면에서 딸은 '어문 규범을 정확하게 알고 지키려고 노력해야겠'다고 말하고 있다.

**18** 홑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끝으로'는 '끝'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으로'가 결합되었으므로 받침을 연음하여 [끄트로]로 발음해야 한다.

**19** '협의'의 '의'는 원칙적으로 [의]로 발음해야 하나,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에 해당하므로 ㉡에 따라 [ | ]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다. 즉 [혀븨]와 [혀비] 둘 다로 발음할 수 있다.

**활동 적용 문제** 본문 29~32쪽

**01** ④ **02** (1) 유음화 (2)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 첨가, 비음화 **03** ② **04** ② **05** ③ **06** 'ㄴ' 첨가, 유음화 **07** ⑤ **08** ④ **09** ③ **10** ④ **11** ④ **12** (1) [안는] (2) [논는] (3) [널피다] (4) [싸이다] **13** ④ **14** 이번 체육 한마당에서 저희 반의 목표는 우승이에요. 목표를 이루도록 노력해 볼게요. **15** ②

**01** '많고'의 발음 과정에서 'ㅎ'과 'ㄱ'의 결합이 [ㅋ]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나타난다.

**02** (1) '천리'의 발음 과정에서는 'ㄴ'이 후행하는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발음되는 유음화가 나타난다.
(2) '꽃잎'은 [꼳입] → [꼳닙] → [꼰닙]의 과정을 거쳐 발음되는데, 이 과정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 첨가, 비음화가 나타난다.

**03** '빛을'은 홑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된 경우이므로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여 [비츨]로 발음해야 한다. '흙을'과 '밟아'는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와 결합된 경우이므로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여 [흘글], [발바]로 발음해야 한다.

**04** '여덟이'는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된 경우이므로 [여덜비]로 발음해야 한다.

**05** '물약'은 [물냑] → [물략]으로 발음된다. 이 과정에서 'ㄴ'은 'ㄹ' 뒤에 위치하며, 이후 유음화가 나타난다.

**06** '서울역'은 '서울+역'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먼저 앞 단어인 '서울'이 자음으로 끝나므로 뒤 단어의 첫음절 '여'에 'ㄴ'이 첨가되는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그 후 첨가된 'ㄴ'이 앞의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화가 일어나 [ㄹ]로 발음된다. 즉 [서울녁] → [서울력]으로 두 번의 음운 변동 과정을 겪는다.

**07** '색연필'은 먼저 표준 발음법 제29항의 적용을 받아 [색년필]로 발음되고, 이후 받침 'ㄱ'이 비음인 'ㄴ'에 동화되는 비음화가 일어나 [생년필]로 발음된다. 따라서 유음화에 관한 표준 발음법 제20항은 적용되지 않았다.

**08** '솔잎'은 [솔닢] → [솔닙] → [솔립]으로 발음되는데, 'ㄴ' 첨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유음화가 나타난다.

**09** '들일'은 [들:닐] → [들:릴]로 발음되는데, 이 과정에서 비음화와 유음화를 거친다.
| 오답 풀이 | ① 한 번의 비음화를 거친다.
② 한 번의 유음화를 거친다.
④ 한 번의 구개음화를 거친다.
⑤ 한 번의 'ㄴ' 첨가를 거친다.

**10** '않네'는 'ㄶ'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이므로 표준 발음법 제12항 '3' [붙임]의 적용을 받는다.

**11** '싫어도'는 '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12** (1) '않는'은 'ㄶ' 뒤에 'ㄴ'이 결합된 경우이므로 'ㅎ'을 발음하지 않아 [안는]으로 발음한다.
(2) '놓는'은 'ㅎ' 뒤에 'ㄴ'이 결합된 경우이므로 [ㄴ]으로 발음하여 [논는]으로 발음한다.

(3) '넓히다'는 'ㄼ' 뒤에 'ㅎ'이 결합된 경우이므로 두 음을 합쳐 [ㅍ]로 발음하여 [널피다]로 발음한다.
(4) '쌓이다'는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결합된 경우이므로 'ㅎ'을 발음하지 않아 [싸이다]로 발음된다.

**13** '값이'는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된 경우이므로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는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하므로 [갑씨]로 발음해야 한다.

**14** '-에요'는 '이다'나 '아니다'의 어간 뒤에 붙어 설명이나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고, '-ㄹ게'는 어떤 행동에 대한 약속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구어체 종결 어미이다.

**15** '적중율'의 경우 받침 'ㅇ' 뒤에 '률'이 온 경우이므로 그대로 '률'로 적어 '적중률'이 맞는 표기이다.

소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33~35쪽

**01** ③ **02**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교체에 해당하고,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에 해당한다. **03** ④ **04** [넙쭈카다],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가 적용되었다. **05** ④ **06** 유음화가 일어나 'ㄴ'이 'ㄹ'로 변할 때 조음 위치는 변하지 않지만 조음 방법은 변하게 된다. **07** ④ **08** ③ **09** ⑤ **10** ③ **11** ③ **12** ② **13** ⑤ **14** 'ㄴ'이 첨가된 후 'ㄴ'이 앞의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01** 국어의 음절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이다.

**02**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면 음운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이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대치되며,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면 겹받침의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한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자음군 단순화에 대해 둘 다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6점 |
|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자음군 단순화 중 한 가지에 대해서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03** '맑고'는 [맑꼬] → [말꼬]로 발음된다. 이 과정에서 된소리되기, 자음군 단순화가 나타난다.

**04** '넓죽하다'는 [넙죽하다] → [넙쭉하다] → [넙쭈카다]로 발음된다. 이 과정에서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가 나타난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세 가지 음운 변동을 모두 적절히 나열한 경우 | 5점 |
| 세 가지 음운 변동 중 두 가지를 적절히 나열한 경우 | 3점 |
| 세 가지 음운 변동 중 한 가지를 적절히 나열한 경우 | 1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05** (나)를 통해 받침 'ㄱ, ㅂ' 뒤에서 'ㄹ'이 [ㄴ]으로 발음되는 경우는 그 [ㄴ] 때문에 'ㄱ, ㅂ'이 다시 [ㅇ, ㅁ]으로 발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비음화는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 나타나기도 한다.
② 유음화는 'ㄴ'이 'ㄹ' 앞이나 뒤에 올 때 나타난다.
③ 구개음화는 받침 'ㄷ, 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 나타난다. 조사나 접미사는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에 해당한다.
⑤ 받침 'ㄱ, ㄷ, ㅂ' 뒤에 비음인 'ㄴ, ㅁ'이 오면 비음화가 일어나는데, 이는 받침인 'ㄱ, ㄷ, ㅂ'이 뒤에 오는 비음의 조음 방식에 동화되어 동일한 조음 위치의 [ㅇ, ㄴ, ㅁ]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따라서 조음 위치는 동일하고 조음 방법이 변하는 것이다.

**06** 유음화가 일어나면 'ㄴ'이 'ㄹ'로 동화되므로 잇몸소리라는 조음 위치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조음 방법은 유음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유음화는 조음 방법 동화에 해당한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의 측면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5점 |
|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의 측면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07** '굳히다'를 발음하는 과정에서는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하여 '티'를 이루는 것이 [치]로 발음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로 보아, '굳히다'의 발음 과정에서 구개음화

를 거쳐 거센소리되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고 그 후 구개음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8** '난로'는 'ㄴ'이 'ㄹ'의 앞에서 [ㄹ]로 동화되어 [날:로]로 발음하고, '칼날'은 'ㄴ'이 'ㄹ'의 뒤에서 [ㄹ]로 동화되어 [칼랄]로 발음한다.

| 오답 풀이 | ① '천리[철리]'는 ㉠에 해당하는 예이나, '국물[궁물]'은 비음화의 예에 해당한다.

② '강릉[강능]'과 '담력[담:녁]'은 둘 다 비음화의 예에 해당한다.

④ '신라[실라]'는 ㉠에 해당하는 예이나, '생산량[생산냥]'은 'ㄴ'이 [ㄹ]로 유음화되는 대신 'ㄹ'이 [ㄴ]으로 발음된 경우이다.

⑤ '미닫이[미:다지]'는 구개음화의 예에 해당하고, '대통령[대:통녕]'은 비음화의 예이다.

**09** '긁는'은 받침 'ㄱ'이 'ㄴ' 앞에서 [ㅇ]으로 발음되는 비음화가 일어나므로 [긍는]으로 발음된다.

**10** '있던'은 받침 'ㄷ' 뒤에 연결되는 'ㄷ'이 된소리로 발음되어 [읻떤]으로 발음된다. 이는 ㉡이 아니라 ㉠의 예에 해당한다.

**11** '입고'는 된소리되기의 적용만을 받아 [입꼬]로 발음되므로 다른 음운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④, ⑤ 된소리되기 전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12** '꽃망울'은 [꼳망울] → [꼰망울]로 발음되는데, 이 과정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의 적용을 받는다. 'ㄴ' 첨가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13** '옷 입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받침 'ㅅ'이 [ㄷ]으로 발음되고, 이로 인해 'ㄴ' 첨가가 일어나 [온닙다]가 된다. 그 후 첨가된 [ㄴ]에 의해 'ㄷ'이 [ㄴ]으로 비음화되어 [온닙다]가 되고, 받침 'ㅂ' 뒤에 연결되는 'ㄷ'은 된소리로 발음하여 [온닙따]가 된다.

**14** '물엿'은 [물녓] → [물녇] → [물렫]으로 발음된다. 이 과정에서 'ㄴ'이 실제로는 [ㄹ]로 발음되는 것은 유음화의 영향 때문이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ㄴ' 첨가와 유음화 양상에 대해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5점 |
| 'ㄴ' 첨가와 유음화 양상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중단원 **실력 점검 문제** 본문 37~40쪽

**01** ① **02** '석류'는 받침 'ㄱ' 뒤의 'ㄹ'이 [ㄴ]으로 발음되어 [석뉴]가 된 다음, [ㄴ]으로 인해 'ㄱ'이 [ㅇ]으로 발음되어 [성뉴]로 발음된다. 이 과정에서 비음화가 적용된다. **03** ⑤ **04** ④ **05** '밥물[밤물]', '읍내[음내]'는 ⓐ에 해당하고, '설날[설:랄]', '광한루[광:할루]'는 ⓑ에 해당한다. **06** ① **07** (1) '설익다'는 [설릭따]로 발음되고, 'ㄴ' 첨가, 유음화, 된소리되기가 적용된다. (2) '낯설다'는 [낟썰다]로 발음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가 적용된다. **08** ② **09** '학여울'은 앞 단어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 첫음절이 '여'이므로 'ㄴ' 음을 첨가하여 [학녀울]이 되고, 비음화가 일어나 [항녀울]이 됩니다. 그러므로 '학여울'은 [항녀울]로 발음해야 합니다. **10** ① **11** ④ **12** ① **13** ⑤ **14** ④ **15** ④

**01** 구개음화, 비음화, 유음화 전후로 음운의 개수는 변하지 않으며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대치될 뿐이므로 세 음운 변동은 모두 교체에 속한다.

**02** '석류'는 [석뉴] → [성뉴]로 발음된다. 이 과정에서 두 번의 비음화가 나타난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발음 과정과 적용된 음운 변동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5점 |
| 발음 과정과 적용된 음운 변동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03** '홑이불'은 [혿이불] → [혿니불] → [혼니불]로 발음된다. 이 과정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 첨가, 비음화가 나타난다.

**04** 〈보기〉에서 단어의 자격을 가지지 않는 한자들이 결합하는 경우 'ㄴ'이 'ㄹ'로 바뀌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고, '대관령'은 [대:괄령]으로 발음하므로 ㉠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05** '밥물[밤물]', '읍내[음내]'에서는 'ㅂ'이 비음 [ㅁ]으로 변하고, '설날[설:랄]', '광한루[광:할루]'에서는 'ㄴ'이 유음 [ㄹ]로 변한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발음을 정확히 쓰고, ⓐ와 ⓑ가 일어나는 예를 적절하게 분류한 경우 | 5점 |
| 발음을 정확히 쓰지 못했거나, ⓐ와 ⓑ가 일어나는 예를 분류하지 못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06** 된소리되기는 교체에 해당하고, 'ㄴ' 첨가는 첨가에 해당한다. 〈보기〉의 ⓐ는 교체이고, ⓑ는 탈락이며, ⓒ는 첨가이고 ⓓ는 축약이므로, ㉠은 ⓐ에 해당하고 ㉡은 ⓒ에 해당한다.

**07** '설익다'는 [설닉다] → [설릭다] → [설릭따]로 발음되는데, 이 과정에서 'ㄴ' 첨가, 유음화,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낯설다'는 [낟설다] → [낟썰다]로 발음되는데, 이 과정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설익다'와 '낯설다'의 발음을 모두 적절하게 설명한 경우 | 5점 |
| '설익다'와 '낯설다'의 발음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설명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08** '넘지'는 어간 '넘−'의 받침 'ㅁ' 뒤에서 어미 '−지'의 첫소리 'ㅈ'이 된소리 [ㅉ]으로 발음된다.

**09** '학여울'은 합성어이고 앞 단어 끝이 자음인 데다 뒤 단어 첫음절이 '여'이므로 'ㄴ' 첨가의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므로 '학여울'은 [학녀울] → [항녀울]로 발음된다. 이 과정에서는 'ㄴ' 첨가와 비음화가 일어난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학여울'의 음운 환경과 발음 과정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5점 |
| '학여울'의 음운 환경과 발음 과정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10** ⓐ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인해 '덧 → 덛', '쌓 → 싿'의 자음 교체가 나타나고, 비음화로 인한 '싿 → 싼'의 자음 교체가 나타난다. 'ㅅ(치조음, 마찰음) → ㄷ(치조음, 파열음)', 'ㄷ(치조음, 파열음) → ㄴ(치조음, 비음)'은 조음 방법만 변한 자음 교체이고, 'ㅎ(후음, 마찰음) → ㄷ(치조음, 파열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변한 자음 교체이다.

| 오답 풀이 | ② ⓑ에서 '속 → 송', '력 → 녁'은 조음 방법만 변한 자음 교체이고, '도 → 또'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 둘 다 변하지 않은 자음 교체이다.

③ ⓒ에서 '었 → 얻'은 조음 방법만 변한 자음 교체이고, '고 → 꼬'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 둘 다 변하지 않은 자음 교체이다.

④ ⓓ에서 '겉 → 걷'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 둘 다 변하지 않은 자음 교체이고, '옷 → 옫', '옫 → 온'의 조음 방법만 변한 자음 교체이다.

⑤ ⓔ에서 '맞 → 맏', '붙임 → 부침'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변한 자음 교체이고, '부 → 뿌'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 둘 다 변하지 않은 자음 교체이다.

**11** '들녘을'은 표준 발음이 [들:녀클]이고 비표준 발음이 [들:녀글]인데, 이는 발음할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12** '실없네'의 '없'의 겹받침 'ㅄ'이 자음군 단순화의 적용을 받아 [ㅂ]으로 발음됨에 따라 받침 'ㄱ, ㄷ, ㅂ' 다음의 'ㄴ, ㅁ'에 적용되는 비음화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되었다.

| 오답 풀이 | ② '깊숙이[깁쑤기]'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된소리되기(ⓑ)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되었다.

③ '짓밟지[짇빱찌]'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된소리되기(ⓑ)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되었다.

④ '꺾는[꺾는]'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비음화(ⓒ)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되었다.

⑤ '훑고[훌꼬]'에서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된소리되기(ⓑ)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되었다.

**13** '버들잎'은 [버들닢] → [버들맆] → [버들립]으로 발음된다. 이 과정에서 'ㄴ' 첨가(첨가)가 한 번, 유음화(교체)가 한 번,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이 한 번 나타난다. '덧입어'는 [덛이버] → [덛니버] → [던니버]로 발음된다. 이 과정에서 'ㄴ' 첨가(첨가)가 한 번, 음절의 끝소리 규

칙(교체)이 한 번, 비음화(교체)가 한 번 나타난다.

| 오답 풀이 | ① '재밌는'은 [재믿는] → [재민는]으로 발음되고 교체가 두 번 일어난다. '얽매는'은 [억매는] → [엉매는]으로 발음되고 탈락이 한 번,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② '불이익'은 [불니익] → [불리익]으로 발음되고 첨가가 한 번,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견인력'은 [겨닌녁]으로 발음되고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③ '똑같이'는 [똑깥이] → [똑까치]로 발음되고 교체가 두 번 일어난다. '파묻힌'은 [파무틴] → [파무친]으로 발음되고 축약이 한 번,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④ '읊조려'는 [읊조려] → [읊쪼려] → [읍쪼려]로 발음되고 교체가 두 번, 탈락이 한 번 일어난다. '겉늙어'는 [걷늙어] → [건늘거]로 발음되고 교체가 두 번 일어난다.

**14** '흙빛'은 [흑빛] → [흑삧] → [흑삔]으로 발음된다. 이 과정에서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다. '쑥대밭'은 [쑥때밭] → [쑥때받]으로 발음된다. 이 과정에서 된소리되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다.

| 오답 풀이 | ① '짓밟다'는 [짓밥다] → [짇밥다] → [짇빱다] → [짇빱따]로 발음된다. 이 과정에서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가 적용된다. '늦깎이'는 [늗까끼]로 발음된다. 이 과정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다.

② '넓디넓다'는 [널디널다] → [널띠널따]로 발음된다. 이 과정에서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가 적용된다. '있다'는 [읻다] → [읻따]로 발음된다. 이 과정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가 적용된다.

③ '읊다'는 [읖다] → [읍다] → [읍따]로 발음된다. 이 과정에서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가 적용된다. '높푸르다'는 [놉푸르다]로 발음된다. 이 과정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다.

⑤ '닭갈비'는 [닥갈비] → [닥깔비]로 발음된다. 이 과정에서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가 적용된다. '앞장서다'는 [압장서다] → [압짱서다]로 발음된다. 이 과정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가 적용된다.

**15** '겉늙다'는 [걷늙다] → [건늙다] → [건늑다] → [건늑따]로 발음된다. 이 과정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ㅌ'이 [ㄷ]으로 바뀐 것에 비음화가 적용된다.

| 오답 풀이 | ① '밖만'은 [박만] → [방만]으로 발음된다. 이 과정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ㄲ'이 [ㄱ]으로 바뀐 것에 비음화가 나타난다.

② '폭넓다'는 [폭널다] → [퐁널다] → [퐁널따]로 발음된다. 이 과정에서 자음군 단순화, 비음화, 된소리되기가 나타나는데, 'ㄻ'이 [ㄹ]로 바뀐 것에 비음화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③ '값만'은 [갑만] → [감만]으로 발음된다. 이 과정에서 자음군 단순화의 적용으로 'ㅄ'이 [ㅂ]으로 바뀐 후에 비음화가 적용된다.

⑤ '호박잎'은 [호:박입] → [호:박닙] → [호:방닙]으로 발음된다. 이 과정에서 'ㄴ' 첨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가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ㅍ'이 [ㅂ]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ㅂ]에 비음화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 대단원 1등급 완성 문제

본문 41~45쪽

01 ④ 02 ② 03 ③ 04 ② 05 ① 06 ③ 07 ③
08 ① 09 ④ 10 ②

서술형 문제

11~18 해설 참조

**01** (나)에서 부정적 자아 개념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02** 남학생은 여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그림을 잘 그린다는 긍정적 자아 개념이 강화된 것이지 이전과 다르게 변화하지는 않았다.

**03** ⓐ에는 상대를 향해 마주 보고, 상대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음을 표현하는 '집중하기'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에는 상대가 이야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격려하기'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04** '협력적'은 비음화가 두 번, 된소리되기가 한 번 일어나 [혐녁쩍]으로 발음된다.

**05**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는 [ㄱ]으로 발음하고, 용언의 어간 말음에 위치할 경우 대부분 [ㄱ]으로 발음하지

만, 'ㄱ' 앞에서만 [ㄹ]로 발음한다. 따라서 '맑다'의 표준 발음은 [막따]이다.

**06** '연못이'는 연음 법칙을 적용하여 [연모시]로 발음한다. 이 과정에서는 'ㅅ'이 대표음 [ㄷ]으로 발음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07** '없네요'는 자음군 단순화로 인해 겹받침 'ㅄ'이 [ㅂ]으로 발음되어 [업:네요]가 되고, 이후 받침 'ㅂ'이 비음인 'ㄴ'의 조음 방식에 동화되어 [ㅁ]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없네요'는 [엄:네요]로 발음해야 한다.

**08** 내복약 → [내:복냑]에서는 'ㄴ' 첨가가, [내:복냑] → [내:봉냑]에서는 비음화가 나타난다.

**09** '입 벌리다[입뻘리다]'에서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 오답 풀이 | ① 'ㄱ'이 'ㄴ'의 영향으로 [ㅇ]으로 발음된다.
② 'ㄹ'의 대표음 'ㄱ'이 'ㅁ'의 영향으로 [ㅇ]으로 발음된다.
③ 'ㅅ'의 대표음 'ㄷ'이 'ㅁ'의 영향으로 [ㄴ]으로 발음된다.
⑤ 'ㅄ'의 대표음 'ㅂ'이 'ㅁ'의 영향으로 [ㅁ]으로 발음된다.

**10** '압정[압쩡]'은 받침 'ㅂ' 뒤에 'ㅈ'이 연결된 경우에 해당하고, '맥락[맹낙]'은 받침 'ㄱ' 뒤에서 'ㄹ'이 [ㄴ]으로 발음되는 경우로서 'ㄱ'이 [ㄴ]으로 인해 [ㅇ]으로 발음된다.

**11** 서술형 예시 답 (1) 형은 폭력적인 말하기를, 동생은 비교하는 말하기를 하여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다. (2) 형: 물건이 여기저기 놓여 있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편하지 않네. 집에 깨끗하게 정돈되면 좋겠어. 깨끗하게 정리해 줄 수 있을까? / 동생: 형 말을 듣고 보니 집이 정말 어지럽네. 그런데 지금은 나도 너무 피곤해서 조금만 더 쉬고 곧 정리해도 될까?
〈보기〉에서 형과 동생은 상대의 생각을 이해하고 수용하기보다는 상대의 행동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폭력적인 말하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비폭력 대화로 수정하려면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1)과 (2)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5점 |
| (1)과 (2)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12** 서술형 예시 답 부정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타인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부정적 자아 개념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긍정적 자아 개념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보기〉에는 '아니 그게 아니고'와 같이 상대의 말을 부정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부정적인 대화 습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대화 습관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보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를 바탕으로 의사소통 방식과 자아 개념을 연관 지어 서술한 경우 | 5점 |
| 〈보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서술했으나 이를 의사소통 방식과 자아 개념을 연관 짓지 못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13** 서술형 예시 답 받침이 홑받침이나 쌍받침일 때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고, 받침이 겹받침일 때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받침이 홑받침이거나 쌍받침일 때는 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깎아[까까]', '옷이[오시]', '있어[이써]' 등에서와 같이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고, 받침이 겹받침일 때는 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앉아[안자]', '닭을[달글]', '젊어[절머]' 등에서와 같이 받침 중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받침이 홑받침이나 겹받침인 경우와 겹받침인 경우 모두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6점 |
| 받침이 홑받침이나 겹받침인 경우와 겹받침인 경우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14** 서술형 예시 답 '물난리'는 [물랄리]로 발음되는데, 이 과정에서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가 모두 적용된다.
'물난리'에서는 'ㄴ'이 'ㄹ'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으므로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 모두 일어나므로 [물랄리]로 발음된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를 모두 언급한 경우 | 4점 |
|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 중 하나만 언급한 경우 | 2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15** 서술형 예시 답 ⓐ‘넓게’는 어간 받침 ‘ㄻ’ 뒤에 어미의 첫소리 ‘ㄱ’이 연결되므로 ㉢에 해당하며,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넓께],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널께]로 발음된다. ⓑ‘꽃다발’은 받침 ‘ㅊ’의 대표음 ‘ㄷ’ 뒤에 ‘ㄷ’이 연결되므로 ㉠에 해당하며,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꼳다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꼳따발]로 발음된다. ⓒ‘신고’는 어간 받침 ‘ㄴ’ 뒤에 어미의 첫소리 ‘ㄱ’이 결합되므로 ㉡에 해당하며,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신:꼬]로 발음된다.

‘넓게[널께]’는 어간 받침 ‘ㄻ’ 뒤에 오는 어미의 첫소리가 ‘ㄱ’인 경우이고, ‘꽃다발[꼳따발]’은 받침 ‘ㄷ(ㅊ)’ 뒤에 ‘ㄷ’이 오는 경우이며, ‘신고[신:꼬]’는 어간 받침 ‘ㄴ’ 뒤에 오는 어미의 첫소리가 ‘ㄱ’인 경우이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 세 가지 모두 적절히 설명한 경우 | 6점 |
| ⓐ~ⓒ 세 가지 중 일부만 적절히 설명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16** 서술형 예시 답 (1)에서 표준 발음은 [부억꽈]이다. 이는 음절의 끝소리 현상과 된소리되기 현상이 적용된 것이다. (2)에서 표준 발음은 [동닙]인데, 이는 비음화가 적용된 것이다.

‘부엌과’는 [부억과] → [부억꽈]로 발음되는데, 음절의 끝소리 현상과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독립’은 [독닙] → [동닙]으로 발음되는데, 비음화가 일어난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1), (2)의 표준 발음과 발음 과정에 대한 설명이 모두 적절한 경우 | 6점 |
| (1), (2)의 표준 발음과 발음 과정에 대한 설명 중 일부만 적절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17** 서술형 예시 답 비음화가 일어나면 조음 위치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조음 방법에 변화가 나타난다.

비음화 전후로 조음 위치(예: 입술소리, 잇몸소리, 여린입천장소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조음 방법에만 변화가 나타나 파열음이 비음으로 변한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5점 |
|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일부만 제대로 서술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18** 서술형 예시 답 ‘밭일’은 ‘밭일 → [받일] → [받닐] → [반닐]’로 발음된다. 이 과정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 첨가, 비음화의 적용을 받는다.

‘밭일’의 발음 과정은 [받일] → [받닐] → [반닐]로 정리할 수 있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밭일’의 발음 과정과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이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5점 |
| ‘밭일’의 발음 과정과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 중 일부만 적절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 Ⅱ 효과적인 언어 표현

## 1. 단어와 문장의 활용

**간단 확인 문제** 본문 48쪽

01 (1) O (2) O (3) X (4) X
02 (1) 자립 (2) 소리, 의미 (3) 대립 (4) 주어, 서술어
03 (1) 어근 (2) 상하 관계
04 (1) ㉡ (2) ㉢ (3) ㉠

**01** (3) 복합어는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말한다.
(4) 우리말의 품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동사, 형용사, 조사, 감탄사 총 9개이다.

**02** (1) 단어는 어절을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말과 그 말 뒤에 붙어서 쓰이는 말로 나눈 단위이다.
(2)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를 동음이의어라고 하며 동음이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의미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03** (2) 상위어는 의미상 다른 하위어를 포함하게 되고, 하위어는 의미상 다른 상위어에 포함된다.

**04** (1) 체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 용언은 문장에서의 '기능'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2) 명사, 대명사, 수사 등의 품사는 단어 부류의 '의미'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3) 가변어, 불변어는 '형태'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 (1) 단어의 짜임과 의미 관계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49~54쪽

01 ④ 02 자립 형태소,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자립 형태소
03 ⑤ 04 ③ 05 -꾼, 뒤-, 헛-, -꾸러기 06 ② 07 ⑤
08 (1) 동음이의어 (2) 다의어 09 ③ 10 (1) ⓐ (2) ⓑ, ⓒ, ⓓ
11 ② 12 (1) 한정적 (2) 하위어 (3) 일반적 (4) 상위어 13 ⑤
14 어림 15 ① 16 ⑤ 17 ⑤ 18 ②

**01**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단어를 나눈 것이 형태소이다.

**02** '주먹밥'은 자립성을 가진 어근 '주먹'과 '밥'이 만난 합성어이고, '맨밥'은 자립성이 없는 접사 '맨-'과 자립성이 있는 어근 '밥'으로 구성된 파생어이다.

**03** 다른 단어 뒤에 붙어서 쓰이는 말은 조사를 의미한다. ㉢에서 '피-', '-었-', '-다'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인 형태소로 나눈 것이다.

**04** 지우개는 동사 어근인 '지우-'와 명사를 파생시키는 접사 '-개'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② '군소리'는 접두사 '군-'과 어근 '소리'가 합쳐진 파생어로서, '소리'는 자립성을 가진 한 단어이기도 하다.
④ '-개'가 어근에 의미를 제한하는 접미사이고, '지우-'가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이다.
⑤ '군소리'와 '지우개'는 모두 복합어이다.

**05** '-꾼'은 '어떤 일 때문에 모인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뒤-'는 '몹시, 마구, 온통' 등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헛-'은 '이유 없는, 잘못' 등의 의미를 더하는 접두사이다. '-꾸러기'는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06** '꽃길'은 '꽃'과 '길'로 구성되는데, '꽃'과 같은 명사는 그 자체로 명사를 수식할 수 있기 때문에 '꽃길'은 우리말의 일반적인 통사 구성 방식과 일치하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새해'처럼 관형사 어근이 명사 어근을 수식하는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이자 종속 합성어이다.
③ '덮밥'은 '반찬이 될 만한 요리를 밥 위에 덮은 음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관형사형 어미 '-은'이 생략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④ '높푸르다'는 어근 '높-'과 '푸르-'가 연결 어미 없이 연결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⑤ '논밭'은 '논과 밭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결합하는 어근과 어근의 의미가 대등한 합성어이다.

**07** '학용품'과 같이 '종이, 지우개, 연필, 볼펜, 자' 등과 같은 단어들을 포괄하는 상위어가 존재하며 이러한 관계를 상하 관계라고 한다.

**08** [A]의 ㉠은 '물을 건너기 위해 만든 시설물'이고 ㉡은 '사람의 몸통 아래 붙어 있는 신체의 부분'을 의미한다. 둘 사이의 의미적 연관성이 없는 동음이의어 관계이다. ㉢은 ㉡의 의미와 연관되어, '물체의 아래쪽에 붙어 그 물체를 받치는 부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 ㉢은 다의 관계이다.

**09** 한 단어의 중심적 의미는 사전에서 「1」에 위치하며 나머지는 주변적 의미에 해당한다.

**10** 가장 중심적인 의미는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의 의미를 갖는 ⓐ이고, 나머지는 모두 주변적 의미이다.

**11** '감다[1]'~'감다[3]'은 소리가 동일하고 의미상 연관성이 없는 동음이의 관계이다.

**12** 상위어는 하위어보다 의미가 더 일반적이고 포괄적이다. 하위어는 상위어보다 의미가 더 한정적이고 지엽적이다.

**13** '넘다'와 '넘치다'는 의미가 비슷한 유의 관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예시와 같은 맥락에서는 바꿔 쓸 수 있으나, 모든 맥락에서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③ '잡다'와 '쥐다'는 유의 관계의 단어로, '공'을 목적어로 하는 맥락에서는 바꿔 쓸 수 있으나, '도둑'이나 '자리'를 목적어로 하는 문장에서는 '잡다'만을 서술어로 쓸 수 있다.

④ '넘다'와 '넘치다'는 말소리는 다르지만 의미는 서로 비슷한 유의 관계의 단어들이다.

**14** 반의 관계는 두 단어 간의 의미 요소가 하나만 대립해야 한다. '할머니'의 의미 요소 '늙음'에 대립되는 의미 요소는 '어림' 정도이다.

**15** '말-생물'의 의미 관계는 '생물'의 의미가 '말'보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상하 관계이다. '할아버지-할머니'의 의미 관계는, 두 단어의 의미 요소가 '남성-여성'에서만 대립하므로 반의 관계이다.

**16** 한 문장에서도 다양한 맥락과 화자의 의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여러 개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유의 관계의 단어들은 의미가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다.

② 맥락에 따라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③ 적절한 담화를 구성하기 위해서, 단어의 의미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④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맥락에 따라 적절한 어휘를 고를 수 있다.

**17**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맥락을 고려하여 '작동'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동작-작동'을 선택하기 위해 '동작-오동작'의 반의 관계는 고려해야 할 의미 관계가 아니다. 또한 '동작'은 맥락상 자연스럽지 않다.

② '작동'을 골라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유의 관계에 있기 때문은 아니다. '작동'을 고르기 위해서는 '기계 따위가 작용을 받아 움직임' 등의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

③ '동작'과 '작동'은 유의 관계이지만 의미 차이가 존재한다.

④ '동작'은 '몸이나 손발 따위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계 설명서에 사용하기에는 맥락이 자연스럽지 않다.

**18** '모자를 벗다'와 관련된 상황에 적절한 반의어는 '모자를 쓰다'이다.

## 활동 적용 문제

본문 55~58쪽

**01** ⑤ **02** ⑤ **03** ② **04** ④ **05** 걸어+가다, 합성어, 먹-+거리, 합성어 **06** ② **07** ③ **08** ③ **09** ④ **10** 일반적, 상위어, 개별적, 하위어 **11** ② **12** ④

**01** '떠'는 '뜨- + -어'로 총 2개의 형태소가 결합한 형태이다.

| 오답 풀이 | ① 해당 문장은 5번의 띄어쓰기로 이루어진 6개의 어절로 되어 있다.

② '밤하늘에'는 '밤 + 하늘'의 합성어에, 조사 '에'가 결합하였기 때문에 3개의 형태소를 포함한다.

③ '별이'는 명사 '별', 조사 '이'를 포함한다.

④ '가득'은 1개의 부사이다.

**02** '-(으)ㄴ'을 '의미'를 기준으로 형태소를 구분하면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이다.

| 오답 풀이 | ① 어근 '까맣-'의 앞에 결합하는 형태소는 접두사 '새-'이다.

② '자립성'을 기준으로 용언 어간 '까맣-'은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다.

③, ④ 어근 '까맣-'의 뒤에 결합하는 형태소는 '-(으)ㄴ'이며, 이는 '자립성'을 기준으로 할 때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다.

**03** '가득'은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가 아니라,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에 해당한다.

**04** '배부르다'의 직접 구성 성분은 '배', '부르다'이며 각각이 어근인 합성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뒤덮다'의 직접 구성 성분은 '뒤-'와 '덮다'이다. '뒤-'는 접사, '덮다'는 어근이다.
② '한겨울'의 '한-'은 접사이다.
③ '딸꾹질'의 '딸꾹'은 부사로, 어근이다.
⑤ '복스럽다'의 '-스럽다'는 접사이다.

**05** '걸어가다'의 직접 구성 성분은 '걸어', '가다'이며 각각이 어근으로 합성어이다. '먹거리'의 직접 구성 성분은 '먹-', '거리'이며 각각이 어근으로 합성어이다. '거리'는 '내용이 될 만한 재료'의 의미를 가진 의존 명사이다.

**06** '새'는 관형사이고 '해'는 명사이기 때문에 '새해'는 (가)가 아니라 (나)에 해당한다.

**07** 형태소를 분석할 때,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종결 어미 '-다'까지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복+-스럽-+-다'로 분류해야 한다.

**08** ③의 '바르다'는 '풀칠한 종이나 헝겊 따위를 다른 물건의 표면에 고루 붙이다.'의 의미이며, 나머지는 '겉으로 보기에 비뚤어지거나 굽은 데가 없다.'를 중심적 의미로 가지는 다의어이다.

**09** ㉡의 '찬(차다)'와 ㉤의 '차는(차다)'은 소리가 같고 의미가 다른 동음이의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의 '입'과 ㉣의 '입'은 다의어 '입'의 여러 의미 중 하나로 쓰인 예시들이다.
② ㉠의 '썼다(쓰다)'와 ㉣의 '쓴(쓰다)'은 소리가 같고 의미가 다른 동음이의어이다.
③ ㉡의 '물렸다(물리다)'와 ㉣의 '물린다(물리다)'는 소리가 같고 의미가 다른 동음이의어이다.
⑤ ㉡의 '바람'과 ㉤의 '바람'은 소리가 같고 의미가 다른 동음이의어이다.

**10** 의미가 일반적이어서 다른 단어를 포함하는 의미를 갖는 단어는 상위어이다. 의미가 개별적이어서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의미를 갖는 단어는 하위어이다.

**11** ㉮의 맥락은 '나'와 '은수'의 사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2」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2** 정도 반의어는 정도나 등급에 있어서 대립되는 단어의 쌍으로, '크다-작다', '길다-짧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⑤ '참-거짓', '죽다-살다'는 상보 반의어의 예에 해당한다.
②, ③ '시작-끝', '오다-가다'는 관계 반의어의 예에 해당한다.

## 소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59~61쪽

**01** ③ **02** ④ **03** ② **04** ③ **05** ⓐ의 '꿈'은 하나의 단어이자 명사이기 때문에 '꾸-(어근) + -(으)ㅁ(명사 파생 접사)'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 '꿈'은 문장의 서술어로 쓰이는 동사로, 어근은 '꾸-'이나 접사는 없고, 어간 '꾸-'와 명사형 전성 어미 '-(으)ㅁ'으로 구분할 수 있다. **06** ③ **07** ① **08** ④ **09** ③ **10** ④ **11** '소년'과 '소녀'는 '남성-여성'의 의미 요소에서만 대립하므로 반의어이다. '소녀'와 '청년'은 '남성-여성', '어림-젊음' 등 두 개 이상의 의미 요소에서 대립하므로 반의 관계가 될 수 없다.

**01** 형태소는 뜻을 가진 최소의 언어 단위로, 형태소라면 모두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꽃'과 같은 단어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② 단어가 되기 위한 조건은 '의미'와 '자립성'이다. 여기에 예외가 되는 것은 '조사'이다.
④ 어절은 띄어쓰기의 단위이며,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므로 어절에는 한 개 이상의 형태소가 포함된다.
⑤ 접사는 자립성이 없이 항상 어근에 결합해야 단어를 이룰 수 있다.

**02** '꽃이 피었다.'에서 의존 형태소는 조사 '이', 선어말 어미 '-었-', 종결 어미 '-다'에 어근 '피-'를 포함해야 한다. 용언의 어근은 실질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이다.

| 오답 풀이 | ① 띄어쓰기 한 번으로 만들어진 두 어절이다.
② 실질 형태소에는 명사 어근 '꽃', 동사 어근 '피–'가 해당한다.
③ 형식 형태소에는 조사 '이',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었–', 문장을 종결하는 '–다'가 해당한다.
⑤ 각각의 형태소가 모두 한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

**03** '오늘, 어제, 하늘'은 명사, '보다, 이'는 조사, '더'는 부사, '맑–'은 형용사 어간, '–았–'은 선어말 어미, '–다'는 종결 어미로 각각이 모두 형태소이다.

**04** '새까맣다'는 접사 '새–'와 어근 '까맣–'으로 어근과 접사가 각각 1개씩 있는 단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② '멋쟁이'는 어근 '멋'과 접사 '–쟁이'가 결합한 단어이다.
⑤ '헛웃음'은 접두사 '헛–', 어근 '웃–', 접미사 '–음'이 결합한 단어이다.

**05** ⓐ의 '꿈'은 동사 어근 '꾸–'에 명사 파생 접사가 결합된 명사 '꿈'이다. 반면 ⓑ의 '꿈'은 새로운 단어가 파생된 것이 아니며, 전체 문장 '나 어제 완전 기분 좋은 꿈을 꾸다.'가 명사형 전성 어미 '–(으)ㅁ'과 결합하여 명사형으로 활용된 것이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와 ⓑ를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고 차이점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5점 |
| ⓐ와 ⓑ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거나 차이점은 서술하지 못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06** '높푸르다'의 어근 '높–'은 형용사 어근으로, 또 다른 형용사 어근 '푸르–'와 연결 어미 없이 연결되어 비통사적 합성어를 이루고 있다.

**07** '민물고기'의 직접 구성 성분은 '민물'과 '고기'이다.
| 오답 풀이 | ② '물걸레질'은 어근 '물걸레'에 '그 도구를 갖고 하는 일'의 의미를 갖는 접미사 '–질'이 결합하였다.
③ '갈비찜'은 어근 '갈비'와 어근 '찜'이 결합하였다.
④ '살얼음'은 어근 '얼음'에 '온전하지 못함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살–'이 결합하였다.
⑤ '작은아버지'는 어근 '작은'과 어근 '아버지'가 결합하였다.

**08** '설명하다'는 명사 어근 '설명'에 동사 파생 접사 '–하–'가 결합하여 동사가 되었다.
| 오답 풀이 | ① '욕심'도 명사이고, '욕심꾸러기'도 명사이다.
② '깨끗–'은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홀로 쓰일 수 없다. 이를 불완전 어근이라 한다.
③ 어근 '기쁘–'는 형용사 어근이다.
⑤ '–롭–'은 관형사 어근 '새'의 품사를 형용사로 바꾸어 주었다.

**09** 유의 관계의 단어들은 의미적 연관성을 지니지만, 맥락에 따라 바꾸어 쓸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오답 풀이 | ① 소리가 같다는 것은 동일한 음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반의 관계의 단어들은 여러 의미 요소 중 하나의 의미 요소에서만 대립하기 때문에, 여러 의미 요소를 갖고 있다.
④ 한 단어에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를 중심적 의미, 중심적 의미가 확장된 그 나머지 의미를 주변적 의미라고 한다.
⑤ 다의어는 의미적 연관성이 있고, 동음이의어는 소리만 같을 뿐 의미적 연관성이 없다.

**10** '마개를'에는 '닫다', '막다' 등의 서술어가 쓰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입을 열다'의 반의어는 '입을 닫다', '다물다' 정도가 적절하다.
② '문을 열다'의 반의어는 '문을 닫다' 정도가 적절하다.
③ '뚜껑을 열다'의 반의어는 '뚜껑을 닫다', '덮다' 정도가 적절하다.
⑤ '자물쇠를 열다'의 반의어는 '자물쇠를 잠그다' 정도가 적절하다.

**11** 각각의 단어가 갖는 의미 요소에서, 한 의미 요소에서만 대립하면 반의 관계가 된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두 쌍의 단어들의 구체적인 의미 요소를 예로 들어 반의 관계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5점 |
| 두 쌍의 단어들 중 하나만 제대로 서술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 (2) 품사와 문장 구조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63~69쪽

01 ⑤ 02 ③ 03 ④ 04 ⑤ 05 ⑤ 06 ① 07 ④
08 –고, –었–, –다 09 ㉠: 놀아 ㉡: 이어 10 ① 11 ②
12 ② 13 ③ 14 ② 15 ④ 16 ㉮: 2번 ㉯: 3번 17 명사절 18 ④ 19 ⑤ 20 ② 21 ㄱ, ㄴ

**01** '귀엽다'는 용언이자 형용사로 형태가 바뀌는 가변어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우진이', '손'은 명사로 불변어이다.
② '의'와 '은'은 조사로 불변어이다.
③ '작아서'는 용언이자 형용사로 가변어이다.
④ '참'은 부사로 불변어이다.

**02** 체언은 조사가 결합하지 않아도 문장에서 자립성을 갖는다.

| 오답 풀이 | ① 체언은 문장에서 주로 중심적인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이 된다.
② 체언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④ 대명사는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말이다.
⑤ 수사는 사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로 구분된다.

**03** '하나'는 개수, 수량을 세는 양수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명수'는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이다.
② '그'는 대명사이다.
③ '비밀'은 보통 명사이다.
⑤ '전해'는 체언이 아니라 용언 '전하다'가 활용한 형태이다.

**04** 형용사는 목적어의 필요 유무가 아니라,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성상 형용사, 지시성을 지닌 것은 지시 형용사로 나눈다.

**05** '아름답다'는 성질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성상 형용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피다'는 목적어를 갖지 않는 자동사이다.
② '차다'는 목적어를 갖는 타동사이다.
③ '푸르다'는 색깔의 성질을 의미하는 성상 형용사이다.
④ '그러하다'는 앞의 형용사에 대한 지시성을 갖는 지시 형용사이다.

**06** '아는(알다)'은 동사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되었고, '예쁜(예쁘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되었다.

**07** 문장에 쓰이는 모든 용언은 반드시 어말 어미를 갖지만, 선어말 어미는 맥락에 따라 결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오답 풀이 | ① 어미는 어간 뒤에 결합한다.
② 어말 어미에는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가 있다.
③ 선어말 어미는 높임과 시제의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이다.
⑤ 용언에서 맨 뒤에 위치하는 어미는 어말 어미, 그 앞에 위치하는 어미는 선(先)어말 어미라 한다.

**08** 어미를 찾을 때는 서술어부터 찾아야 한다. 해당 문장의 서술어는 '잊고'와 '읽었다'이며 각각의 서술어에서 어미는 '–고'와 '–었–', '–다'이다.

**09** 규칙 활용은 활용할 때 각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일정하거나, 규칙적으로 바뀌는 활용을 말한다. 불규칙 활용은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놀다'는 규칙 활용을 하며, 어미 '–아'가 결합할 때 '놀아'가 된다. '잇다'는 'ㅅ' 불규칙 활용을 하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가 결합할 때 'ㅅ'이 탈락하여 '이어'가 된다.

**10** '은'은 주어나 목적어 등의 자리에 쓰였다고 해서 격조사로 볼 수 없으며, 특별한 의미를 주는 보조사이다.

| 오답 풀이 | ② '에'는 '문장' 뒤에 결합하였다.
③ '의'는 관형격 조사로 앞말에 관형어의 자격을 준다.
④ '를'는 목적격 조사로 앞말에 목적어의 자격을 준다.
⑤ '을'과 '를'은 문법적 역할이 같은 목적격 조사이나, 앞말에 받침이 있을 때는 '을', 없을 때는 '를'이 결합한다.

**11** 관형사는 주로 체언 앞에 놓여 체언을 꾸며 주고, 부사는 주로 문장이나 용언을 꾸며 준다.

**12** ⓐ에 수 관형사는 쓰이지 않았고, 성상 관형사 '새'가 쓰였다. '하나'는 수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에 명사는 '옷' 1개, 동사는 '꺼내', '입었다' 2개가 쓰였다.
③ ⓑ에 수 관형사 '두' 1개, 명사 '사람' 1개가 쓰였다.
④ ⓑ에 문장 부사 '다행히' 1개, '도착했다'를 꾸며 주는 부사 '일찍' 1개가 쓰였다.
⑤ ⓒ에 감탄사 '앗' 1개가 쓰였다.

**13** ㉡은 '너는(주어) 사과를 좋아하지만(서술어)'과 '나는(주어) 망고를 좋아해(서술어)'라는 두 홑문장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14** 주술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문장은 홑문장이다.

| 오답 풀이 | ①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와 서술어를 포함한다.
③ 문장 성분은 맥락에 따라 생략되어 쓰이기도 한다.
④ 겹문장 중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에 대한 설명이다.
⑤ 겹문장 중 안은문장에 대한 설명이다.

**15**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의 가장 큰 특징은 앞 절과 뒤 절의 순서를 바꾸면 문장의 의미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는 대등하게 이어진문장과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 오답 풀이 | ①, ② ⓐ는 나열의 의미를 가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앞 절과 뒤 절의 순서를 바꿔도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③ ⓑ는 원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⑤ ⓐ와 ⓑ는 모두 주술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겹문장이다.

**16** ㉮에서는 주술 관계가 '강물이–오염된다', '물고기가–사라진다'로 2번 등장한다. ㉯에서는 주술 관계가 '우리는–집에 있지 말다', '비가–내린다', '우리는 영화를 보러 가다'로 3번 등장한다.

**17** '그녀가 떠났다'에 명사형 전성 어미 '–음'이 결합하여 명사절이 되었다.

**18** ㉯에서는 본래 '우리가 (그) 얼굴을 모르다'가 관형절로 안겨 '얼굴'을 수식하면서 중복된 문장 성분인 '(그) 얼굴을'이 생략되었다.

| 오답 풀이 | ① ㉮에서 관형절의 표지는 전성 어미 '–는'이다.
② ㉯에서 관형사형 전성 어미는 '–던'이다.
③ ㉮에서는 본래 '내가 (그) 꽃을 제일 좋아하다'가 관형절로 안겨 '꽃'을 수식하면서 중복된 문장 성분인 '(그) 꽃을'이 생략되었다.
⑤ ㉮의 '–는'은 현재 시제를, ㉯의 '–던'은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19** '얼음이 물이 되었다.'처럼 서술어 '되다'나 '아니다' 앞의 '이/가'는 보어를 만드는 보격 조사이다. 해당 문장은 주어 '얼음이', 보어 '물이', 서술어 '되었다'로 구성된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③ 서술절은 문장의 주어와 문장의 서술어인 서술절이 있고, 서술절 안에 또 서술절의 주어와 서술절의 서술어가 존재한다.
④ 서술절이 가진, 다른 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표지가 따로 없다는 것이다.

**20** ㉮에서 직접 인용절의 내용이 간접 인용절로 바뀔 때는 따옴표가 생략된다.

| 오답 풀이 | ① ㉮에서 직접 인용절이 간접 인용절이 될 때 조사는 '라고'에서 '고'로 바뀐다.
③ ㉯에서 간접 인용절이 직접 인용절이 될 때 직접 인용된 말에 큰따옴표를 추가한다.
④ ㉯에서 직접 인용에서는 '그'가 한 말을 그대로 적어야 한다.
⑤ ㉯에서 간접 인용절이 직접 인용절이 될 때 조사는 '고'에서 '라고'로 바뀐다.

**21** 겹문장은 주술 관계가 두 번 이상 등장하므로 홑문장보다 복잡한 구조를 갖는다(ㄱ). 또 홑문장은 보다 단순한 구조로 문장의 길이가 짧은 경우가 많아 사건이 빨리 진행되는 사건을 나타내기 좋다(ㄴ). 겹문장은 문장에 많은 정보가 담기기 때문에 주장하는 바가 간결하게 전달되기는 어렵다.

## 활동 적용 문제

본문 70~73쪽

**01** ③ **02** ⑤ **03** (1) ⓐ (2) ⓒ (3) ⓑ **04** ③ **05** (1) 성분 부사 (2) 문장 부사(양태 부사) (3) 성분 부사 (4) 성분 부사 **06** ② **07** ② **08** ④ **09** (1) 우리가 모두 건강하기 (2) 명사절 **10** 고 **11** 주어 **12** ⑤

**01** '좋은데'는 1개의 단어로, 단어 층위로 분석할 때 어미는 분석할 수 없다. 어미는 자립성이 없는 형태소로 단어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오늘'은 1개의 부사이다.
② '날씨도'는 명사 '날씨'와 조사 '도'로 2개의 단어이다.
④ '어디'는 1개의 대명사이다.
⑤ '가니'는 1개의 동사가 의문형으로 활용된 것이다.

**02** ㉠은 수사로서 체언이기 때문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고, ㉡은 관형사이기 때문에 조사가 결합할 수 없다.

**03** (1) '새'는 그 자체로 관형어가 되는 관형사이다.
(2) '학교의'는 체언 '학교'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관형어가 되었다.

(3) '아름다운'은 '아름답다'의 어간 '아름답-'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하여 관형절로서 관형어가 되었다.

**04** ㉮는 '거짓이 없이 말 그대로'의 뜻으로 '예쁘지'라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이고, ㉯는 '거짓 없이 말 그대로임'을 뜻하는 명사로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하여 서술어로 쓰였다. 둘은 다의어 '정말'에 속한 의미로, 사전에 같은 표제어에 실려 있는 뜻이다.

**05** (1), (3), (4) 각각 '지내다', '바쁘다', '답장하다'를 수식하는 성분 부사이다.
(2) '그럴 리는 없겠지만'라는 화자의 심리를 담아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양태 부사)이다.

**06** 명사형으로 끝난 문장이 온전한 문장으로 길고 구체적으로 바뀌면,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보다 정확히 전달된다.
| 오답 풀이 | ① 핵심 내용의 전달은 명사형 문장에서 더 유리하다.
③, ④, ⑤ 명사형 문장은 조사나 어미를 생략하여 간결하게 표현하기 좋다. 그 과정에서 본래 의미가 축소되거나 변형될 수 있다.

**07** ㉡에서는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라는 주술 관계가 두 번 등장한다.
| 오답 풀이 | ① ㉠의 주어는 '네 생각은'이고 서술어는 '된다'이다. '네 말이'는 보어이다.
③ ㉢의 문장 주어는 생략되었고, 서술어는 '영화 광고입니다'이며, '어제 제 친구와 함께 본'은 명사구 '영화 광고'를 수식하는 관형절이다.
④ ㉣은 '우리는 책을 빌리려고(빌리다)', '(우리는) 도서관으로 갔다(가다)'의 두 문장이 연결된 겹문장이다.
⑤ ㉤의 문장 주어는 '비가'이고, 서술어는 '내리네(내리다)'이며, '끝도 없이(없다)'는 부사절로서 서술어 '내리네'를 수식하고 있다.

**08** ⓑ의 안긴문장의 표지 '-이'는 부사를 파생시키는 부사 파생 접사이다. 본래 부사절은 부사형 전성 어미로 만들어지는 것이 맞으나, '-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사 파생 접사가 부사형 전성 어미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본래 절에 결합되지 않고, 어근에 결합하여 '많이', '깨끗이' 등 부사를 파생시키는 접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는 '어제 제 친구와 함께 본'이라는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② ⓐ가 가진 관형절의 표지는 '본'에서 '보-'에 결합된 관형사형 어미 '-ㄴ'이다.
③ ⓑ는 부사절 '끝도 없이'를 안은문장이다.
⑤ ⓐ와 ⓑ는 각각 관형절과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주술 관계가 두 번씩 등장한다.

**09** 안긴문장은 '우리가 모두 건강하기'이며, '우리가 모두 건강하-'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하여 명사절을 만들었다.

**10** 간접 인용절에서 인용할 말을 인용할 때는 부사격 조사 '고'가 결합한다.

**11** 명사절은 명사처럼 체언과 결합하여 문장에서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다. 명사절 '여름이 다가오고 있음'은 주격 조사 '이'와 결합하여 서술어 '분명하다'의 주어로 쓰이고 있다.

**12** [A]를 홑문장으로 나누었을 때, 문장의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독자의 호흡이 짧아져 장면의 흐름이 빠르게 느껴질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③, ④ 겹문장에서 주술 관계를 여러 번 포함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표현 효과이다.

소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74~77쪽

**01** ② **02** ③ **03** '도'나 '만' 등의 보조사는 주어에도 결합할 수 있고, 목적어에도 결합할 수 있다. 이때마다 격조사의 자격을 부여한다면 보조사가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등 너무 많은 격조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므로 보조사는 의미를 더해 주는 기능만 수행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04** ① **05** (1) 즐겁- (2) -(으)시-, -었-, -겠- (3) -습니다 **06** ① **07** ② **08** ④ **09** ④ **10** ⑤ **11**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서술절 '코가 길다'에서 주술 관계가 1번, 문장 주어 '코끼리가'와 문장 서술어 '코가 길다'에서 1번으로 총 2번 등장한다. **12** ④

**01** '그'가 '사람을 대신해서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고려했다는 것은 단어 품사 부류 전체의 '의미'를 고려한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명수'가 '는' 등의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은 명사의 특징이기는 하지만 '형태'와는 관련이 없다.
③ '비밀'은 명사로 형태가 변하지 않고 '전해'는 동사 '전하다'의 활용형으로 형태가 변화한다. 이는 '형태' 기준을 고려한 것이다.

④ '를'이 항상 앞말에 붙어서 쓰이는 것은 '형태'와는 관련이 없다.
⑤ '들었다'가 동작이나 행위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의미' 기준을 고려한 것이다.

**02** 대명사에는 인명(人名)이 포함되지 않는다. 인명(人名)은 고유 명사이다.

**03** 보조사는 다양한 문장 성분에 결합할 수 있으므로, 그때마다 문장 성분의 자격을 부여해 준다고 보기 어렵다. 보조사는 다양한 문장 성분에 결합하여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보조사가 다양한 문장 성분에 결합될 때마다 문장 성분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앞말에 의미만을 더해 준다는 점을 서술한 경우 | 5점 |
| 보조사의 특징 중 일부만 서술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04** 주어의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은 격조사의 역할이며, '는'은 보조사로 한정의 의미를 더해 준다.

**05** 어간을 분석할 때 '즐겁–'과 같은 불규칙 활용의 경우 어간의 형태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 한 용언에서 선어말 어미는 여러 개, 어말 어미는 1개 결합할 수 있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1)~(3) 모두 정확하게 구분한 경우 | 5점 |
| (1)~(3) 중 일부만 정확하게 구분한 경우 | 2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06** '피다'의 경우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이 결합한다.
| 오답 풀이 | ② '차다'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이 결합할 수 있다.
③, ④ 형용사에는 '*푸른다', '*그러한다'처럼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결합할 수 없다.
⑤ '읽다'처럼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경우,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이 결합한다.

**07** 규칙 활용에는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일정한 용언도 포함되지만,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바뀌어도 규칙적으로 바뀌는 용언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놀다, 노니, 노는'에서처럼 규칙적으로 'ㄹ'이 탈락하는 활용도 규칙 활용에 포함된다.

**08**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결합한다고 해도, 결합한 용언의 품사를 바꿀 수는 없다. 전성 어미는 품사를 바꾸지 않고 해당 품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문법적 기능을 한다.
| 오답 풀이 | ① 관형사형 어미 '–은'과 명사형 어미 '–기'가 쓰였다.
②, ③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되면 관형사의 기능을, 명사형 어미가 결합되면 명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⑤ 명사형 어미가 결합하여도 '산책하다'의 품사는 바뀌지 않는다.

**09**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은 앞 절과 뒤 절의 순서가 바뀌어도 의미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이어진문장은 둘 이상의 홑문장이 이어지는 방식에 따라 종속적, 대등적으로 구분된다.
② 해당 문장은 나열의 의미로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③ 해당 문장은 이유, 원인 등의 의미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⑤ 원인과 결과의 의미 관계는 앞 절과 뒤 절의 순서를 바꾸면 문장의 의미가 크게 바뀌는,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10** ⓔ의 안긴문장은 관형절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이며, 관형어로서 체언인 '꽃'을 수식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의 안긴문장은 '그녀가 떠났음'으로 명사절이며,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하여 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② ⓑ는 '앞으로 변하지 않겠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인용한 안은문장이다.
③ ⓒ의 안긴문장은 '땀이 나도록'으로 부사절이며, 부사형 어미 '–도록'이 표지이다.
④ ⓓ은 서술절 '웃음이 많다'를 가진 안은문장으로, 서술절에는 특별한 표지가 없다.

**11** 서술절을 분석할 때는, 서술절 내부의 주어와 서술어를 따로 분석하고, 서술절이 문장 전체의 서술어가 되어 문장 전체의 주어와 호응하게 됨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문장 전체의 주어와 서술어(서술절)을 분석하고, 서술절 내부의 주어와 서술어를 따로 분석한 경우 | 5점 |
| 주술 관계 중 1개만을 분석한 경우 | 2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12** 해당 문장이 간접 인용될 때는 서술어가 '챙기라'로 바뀌고, 인용절이 부사격 조사 '고'에 연결된다. '챙기세요', '챙겨라', '먹어라' 등은 직접 인용에 더 가까운 서술어이다.

중단원 **실력 점검 문제** 본문 79~83쪽

**01** ② **02** ④ **03** ③ **04** ③ **05** ② **06** ① **07** '내가 좋아하는'이라는 관형절이 '학교'를 수식할 수도 있고, '담벼락'을 수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08** ② **09** ① **10** ⑤ **11** '탈춤'은 어근 '탈'과 어근 '춤'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이때 어근 '춤'은 다시 어근 '추-'와 명사 파생 접사 '-(으)ㅁ'으로 구성된다. **12** ④ **13** ③ **14** ③ **15** ① **16** ①

**01** 주로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는 문법 형태소로서 해당 문장에는 '새-', '-ㄴ', '에', '이', '-어', '-다' 6개가 있다. 접사는 문법 형태소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가득 떠 있다'는 '가득', '뜨-', '-어', '있-', '-다' 5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

③ 자립 형태소는 '밤', '하늘', '별', '가득' 4개이다.

④ 의존 형태소는 '새-', '까맣-', '-ㄴ', '에', '이', '뜨-', '-어', '있-', '-다' 9개이다.

⑤ 실질 형태소는 '까맣-', '밤', '하늘', '별', '가득', '뜨-', '있-' 7개이다.

**02** '밤낮'은 어근 '밤'과 '낮'으로 구성되어 있다.

| 오답 풀이 | ① 단어는 반드시 접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단어는 접사만으로 구성될 수 없다.

③ '구경꾼'은 어근 '구경'과 접사 '-꾼'으로 구성된다.

⑤ '하늘'은 접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03** '앞서다'는 부사어 '앞(에)'와 서술어 '서다'가 결합된 형태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새해'는 관형사 '새'가 체언 '해'를 수식하는 구성으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② '작은오빠'는 용언의 관형사형 '작은'이 체언 '오빠'를 수식하는 구성으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④ '덮밥'은 용언 어간 '덮-'이 전성 어미 없이 체언 '밥'과 결합한 구성으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⑤ '산들바람'은 부사 '산들'과 명사 '바람'이 결합된 구성으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04** '코가'는 문장의 주어가 아니라 서술절의 주어이며, 명사 '코'와 조사 '가'로 이루어져 있다.

| 오답 풀이 | ① '내린다'는 문장의 서술어이자 동사이다.

② '소리'는 부사절 '소리 없이'의 주어이자 명사이다.

④ '웃음이 많다'는 서술절로서 문장의 서술어이자 명사 '웃음', 조사 '이', 형용사 '많다'로 이루어져 있다.

⑤ '제일'은 서술어 '예쁘다'를 수식하는 부사어이자 부사이다.

**05** ⓐ의 '다섯'은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번째'를 수식하는 수 관형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의 '같이'는 체언 '너'와 결합한 조사이다.

③ ⓑ는 '해결해 보자'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④ ⓑ의 '이'는 체언 '문제'를 수식하는 지시 관형사, ⓒ의 '이'는 조사 '보다'와 결합한 지시 대명사이다.

⑤ ⓒ은 조사 '이'와 결합한 수사이다.

**06** Ⓐ에서 체언 '꽃'을 수식하는 관형절은 '내가 좋아하는'이다.

| 오답 풀이 | ② Ⓐ의 '화단의'는 체언 '화단'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관형어가 되었다.

③ Ⓑ의 관형사인 관형어 '새'는 체언 '사무실'을 수식하고, 관형절인 관형어 '우리가 모르던'은 체언 '얼굴'을 수식한다.

④ Ⓐ에는 관형어 '화단의'와 '내가 좋아하는'이 있고, Ⓑ에는 관형어 '새'와 '우리가 모르던'이 있다.

⑤ Ⓐ의 관형절에 결합한 관형사형 어미 '-는'은 현재 시제를, Ⓑ의 관형절에 결합한 관형사형 어미 '-던'은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07** 한 개의 피수식어 체언을 두 개 이상의 관형어가 수식할 때는 수식 대상을 무엇이냐에 따라 중의성이 발생할 수 있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내가 좋아하는'의 수식 대상과 '학교의'의 수식 대상을 정확히 비교하여 서술한 경우 | 5점 |
| '내가 좋아하는'의 수식 대상과 '학교의'의 수식 대상 중 한 개만을 서술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08** 모든 파생 접사가 결합한 어근의 품사를 바꿔 주는 것은 아니다. '욕심꾸러기'는 파생되기 전의 '욕심'도 명사이며, '욕심꾸러기'도 명사이다.

**09** ㉠과 같은 직접 구성 성분의 구조를 가진 단어는 '갈비

찜'과 '볶음밥'이다. '갈비찜'은 어근 '갈비', '찜'의 결합으로 된 합성어인데 이때 '찜'의 직접 구성 성분을 다시 분석하면 용언 어근 '찌-'와 명사 파생 접사 '-ㅁ'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볶음밥'도 어근 '볶음'과 '밥'으로 구성된 합성어인데, '볶음'의 구조를 다시 분석하면 용언 어근 '볶-'에 명사 파생 접사 '-음'이 결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낚시터'는 어근 '낚시'와 '터'로 구성된 합성어인데, 이때 '낚시'는 어근 '낚-'을 확인할 수 있으나, 현대의 명사 파생 접사 '-시'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놀이터'와 동일한 구성으로 보기 어렵다. '구경꾼'은 어근 '구경'과 접사 '-꾼'으로 분석되는 파생어이다.

**10** 명사절의 서술어 '운동하기'는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부사어 '아침에'의 수식을 받고, 명사 '줄넘기'는 관형사 관형어 '새'의 수식을 받는다.

| 오답 풀이 | ① '-(으)ㅁ'은 명사절 '우리는 그녀가 떠났음'을 만드는 명사형 전성 어미로 품사를 바꿀 수 없다.

② '운동하기'는 여전히 명사절의 서술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동사이다. '줄넘기'는 명사로 파생된 명사이다.

③ '잠'에 결합한 것은 명사 파생 접사 '-(으)ㅁ'으로 다른 형태소이다.

④ 조사는 명사뿐 아니라 명사절, 명사구 등의 명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문법 단위에 모두 결합할 수 있다.

**11** 직접 구성 성분을 1차적으로 분석하였을 때는 '탈'과 '춤'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이때 직접 구성 성분을 다시 분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탈'과 '춤'을 1차적으로 분석한 뒤에, 다시 '춤'의 형태소를 분석한 경우 | 5점 |
| 1차적으로만 분석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12** 첫 번째 '그저께'는 체언 '낮'을 수식하는 관형어이며 명사이지만, 두 번째 '그저께'는 서술어 '피었다'를 수식하는 부사어이자 부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첫 번째 '그저께'는 조사와 결합한 명사이고, 두 번째 '그저께'는 관형절 서술어인 용언 '본'을 수식하는 부사이다.

② '세계적'은 조사와 결합한 명사이며, '그저께'는 부사이다.

③ '그저께'는 부사이자 부사어이고, '세계적'은 관형사이자 관형어이다.

⑤ '세계적인'은 명사 '세계적'에 서술격 조사의 '이다'가 결합하고, 어미 '-ㄴ'이 결합하여 활용되었으나, '세계적으로'는 명사 '세계적'에 조사 '으로'만 결합하였다.

**13** '바퀴'는 ㉠에 해당하고, ⓒ에서는 수 관형사 '일곱'의 수식을 받는 단위성 의존 명사로 사용되었다.

| 오답 풀이 | ① '마당'은 ㉠에 해당하지만 ⓐ에서는 의존 명사로 사용되었다.

② '약간'은 부사나 명사로 쓰이는 품사 통용이기 때문에 ㉠에 해당하지 않고, ⓑ에서는 자립 명사로 사용되었다.

④ '가지고'는 ㉡에 해당하고, ⓓ에서는 본동사 '껴'에 연결된 보조 동사로 사용되었다.

⑤ '버렸다'는 ㉡에 해당하고, ⓔ에서는 본동사 '와'에 연결된 보조 동사로 사용되었다.

**14** 첫 번째 '듣다'는 '내가 종소리를 듣다.'의 주어-목적어-서술어의 구조에서 주어, 목적어의 필수 성분 2개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고, 두 번째 '듣다'는 '내가 충고를 잔소리로 듣다.'의 주어-목적어-부사어-서술어의 구조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의 필수 성분 3개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첫 번째 '불'은 '물질이 산소와 화합하여 높은 온도로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 '불'은 '불이 타는 듯이 열렬하고 거세게 타오르는 정열이나 감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둘은 다의 관계에 있다.

② 첫 번째 '치다'는 '붓이나 연필 따위로 점을 찍거나 선이나 그림을 그리다.'의 뜻으로 쓰였고, 두 번째 '치다'는 '손이나 손에 든 물건으로 물체를 부딪게 하는 놀이나 운동을 하다.'의 뜻으로 쓰여 서로 동음이의 관계에 있다.

④ 첫 번째 '엷다'의 반의어는 '두껍다', 두 번째 '엷다'의 반의어는 '깊다'이다. 둘은 다의 관계에 있다.

⑤ 첫 번째 '오다'는 '봄이 오다.'처럼 주어만을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고, 두 번째 '오다'는 '성공이 노력에서 오다.'처럼 주어와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둘은 다의 관계에 있다.

**15** '조그맣-'은 어간 마지막 음절이 모음 'ㅏ'를 갖기 때문에 어미 '-아'와 결합한 뒤 '조그매'처럼 활용되는 ㉠-1 유형이지만, '이렇-'은 어간 마지막 모음이 'ㅣ'를 갖기 때

문에 어미 '-어'와 결합한 뒤 '이래서'처럼 활용되는 ㉡ 유형이므로 서로 유형이 같지 않다.

| 오답 풀이 | ② '꺼멓-'과 '뿌옇-'은 모두 어간 마지막 모음이 'ㅕ'를 갖기 때문에 어미 '-어'와 결합한 뒤 '꺼메', '뿌옜다'처럼 활용되므로 ㉠-2 유형으로 서로 유형이 같다.

③ '둥그렇-'과 '멀겋-'은 모두 어간 마지막 모음이 'ㅓ'를 갖기 때문에 어미 '-어'와 결합한 뒤 '둥그렜다', '멀게'처럼 활용되므로 ㉠-2 유형에 해당하여 ㉡과 유형이 같지 않다.

④ '낳-'과 '땋-'은 어간 마지막 음절이 모음 'ㅏ'를 갖기 때문에 어미 '-아'와 결합한 뒤 '낳아서', '땋았다'와 같이 활용되고, '*나서', '*땄다'로 줄어들 수 없으므로 ㉢-1과 유형이 같다.

⑤ '넣-'과 '쌓-'은 어간 마지막 음절이 모음 각각 'ㅏ', 'ㅓ'를 갖기 때문에 어미 '-아', '-어'와 결합한 뒤 '넣어', '쌓아'와 같이 활용되고, '*너', '*싸'로 줄어들 수 없으므로 ㉢-1과 유형이 같고 ㉢-2와 유형이 같지 않다.

**16** ㉠에는 필수적 부사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인 '내 친구가 보낸'이 있다. 이 관형절은 '나에게'라는 필수 부사어가 생략되어 있으며 본래 '내 친구가 나에게 (그) 책을 보내다'였을 수 있다. ㉡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인 '테니스 배우기'가 있다. 이 명사절은 '내가' 정도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며 본래 '내가 테니스를 배우다'였을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② ㉠의 명사절은 '내 친구가 보낸 책을 제시간에 받기'이며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하여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의 명사절은 '테니스 배우기'이며 주격 조사 '가'와 결합하여 '재미있다'의 서술어에 호응하는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③ ㉠의 명사절 '내 친구가 보낸 책을 제시간에 받기'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의 관형절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에는 주어 '우리 가족이'가 생략되지 않았다.

④ ㉢에는 서술어 '아니다'가 쓰여 보어가 있으나, 안긴문장인 관형절은 체언 '식당'을 수식하고 있을 뿐 보어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 ㉣에는 부사절 '신이 닳도록'이 부사어 기능을 하고 있다.

⑤ ㉢의 관형절은 부사어 '식당에서' 정도가 생략되었다. 본래 '우리 가족이 점심을 (그) 식당에서 먹었다' 정도의 문장이었을 것이다. ㉣의 관형절 '아름다운'은 주어 '(그) 관광지가'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 본래 '(그) 관광지가 아름답다' 정도의 문장이었을 것이다.

## 2.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말하기

**간단 확인 문제** 본문 84쪽

**01** (1) O (2) X (3) O (4) X
**02** (1) 언어적 (2) 비언어적 (3) 공신력 (4) 감성적
**03** (1) 준언어적 표현 전략 (2) 이성적 설득 전략
**04** (1) ㉠ (2) ㉢ (3) ㉡

**01** (1) 발표는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해 말하는 의사소통 행위이므로 예상 청중을 고려해야 한다.

(2) 발표의 도입부에서는 전체 내용 개관, 발표의 주제·목적·배경 제시, 청중의 흥미 유발 등이 이루어진다. 청중과의 질의응답은 정리부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4) 연설에서는 화자의 공신력을 활용한 설득 전략, 이성적 설득 전략, 감성적 설득 전략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02** (1) 언어적 표현 전략은 상황에 맞는 어휘를 선택하고 문장을 적절하게 구성하는 등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객관적이고 격식 있는 어휘 사용이나 간결한 문장 사용 등이 언어적 표현 전략의 예이다.

(3) 화자의 공신력은 화자가 청자에게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소 성품, 평판, 전문성, 친근감 등이 영향을 미친다.

**03** (1) 준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에 덧붙어 의미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성량, 속도, 억양, 어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이성적 설득 전략은 연설에서 주장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들어 청중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을 말한다.

**04** (1) 이성적 설득 전략은 주장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들어 청중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으로, 연역 논증, 귀납 논증 등의 논증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2) 감성적 설득 전략은 청중의 감성에 호소하여 설득하는 것으로, 감성적인 어휘나 표현 사용, 감정을 자극하는 사례 등을 논거로 활용할 수 있다.

(3) 화자의 공신력은 화자가 청자에게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을 말하며, 화자의 공신력을 활용한 설득 전략은 청중이 화자를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식하여 화자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1) 상황에 맞게 발표하기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85~87쪽

01 ⑤ 02 정리부 03 ② 04 ⑤ 05 비언어적 표현 전략
06 ④ 07 ③ 08 의미 전달 09 ⑤

**01** 청중의 마음을 움직여서 화자의 주장대로 생각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발표가 아니라 연설의 목적에 해당한다.

**02** 발표는 일반적으로 도입부, 전개부, 정리부로 구성되며, 중심 내용 요약 및 강조, 덧붙이는 말, 청중과의 질의응답은 주로 정리부에서 이루어진다.

**03** 〈보기〉의 발표에서는 '메타버스가 상용화된 세상은 실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신기루에 불과할까요?'라고 질문을 던지며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보기〉에서 '신기루'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며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으나, 직유적인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보기〉에서 자료의 출처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보기〉에서 '신기루'라는 단어를 선택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지는 않다.

⑤ 〈보기〉에서 문장을 의도적으로 거꾸로 배열하는 도치 표현을 사용한 구절은 드러나 있지 않다.

**04** 발표는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말하기에 해당하므로 예의를 갖추어 격식 있는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05**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과 준언어적 표현 이외에 의미 전달에 영향을 주는 시선, 표정, 몸동작, 옷차림 등을 말한다.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몸동작과 시선을 사용한 것이므로 비언어적 표현 전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06** 느린 속도 및 진지한 어조로 말하는 것은 말의 빠르기와 말의 분위기를 조절하는 것이므로 이는 준언어적 표현 전략에 해당한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청중이 내용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전달력을 높이고 있다.

**07** 목소리의 크기는 성량, 말의 빠르기는 속도, 말의 높낮이는 억양, 말의 분위기는 어조에 해당한다.

**08**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과 준언어적 표현 이외에 의미 전달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의미한다.

**09**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의 경우 모든 나라가 동일하지 않고 사회·문화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따라서 자세를 포함하여 몸이나 손의 움직임을 사용할 때에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활동 적용 문제** 본문 88~90쪽

01 ③ 02 ③ 03 예 큰 목소리로 천천히 강조하기 04 ③
05 ① 06 ③ 07 ④ 08 예 목소리를 크게 하고 천천히 말한다. 09 ②

**01** 모둠의 조사 내용을 설명하는 발표이므로 재미있는 내용으로만 구성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사례 등을 활용하여 조사 내용이 어렵더라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예상 청중은 학급 친구들이므로 지식수준을 고려하여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좋다.

② 조사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발표이므로 중간에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청중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④ 학급 친구들에게 모둠이 조사한 내용을 설명하는 발표이므로 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에 맞게 발표를 구성해야 한다.

⑤ 발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청중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활용하면 성공적인 발표를 진행할 수 있다.

**02** '양은 우제목 솟과에 속하는 가축화된 포유류'라는 표현이나, '양은 소형 반추 동물이고, 가축화된 이후 야생 근연종과 달리 유형 성숙이 두드러집니다.' 등에서 청중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어휘들을 사용하고 있다.

**03** 학교 교칙을 안내하는 발표이므로 강조할 부분을 큰 소리로 천천히 말하는 등 청중이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적절하다.

**04** 이 발표는 신기술 개발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의 투자를 받기 위해 신기술 개발 대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다양한 관계자들 앞에서 발표한다고 하였으므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기술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예상 청중으로 하고 있다.

**05** ㉠에서 발표와 관련된 '글씨체'를 언급하고 있지만, 앞으로 제시될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② '필적'의 정의와 의미를 설명하며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③ 정확한 어휘를 사용하여 위조의 비율은 8퍼센트에 달하지만, 전문 감정사의 인력은 부족하다는 내용을 명료하게 전달하고 있다.

④ 질문을 하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 청중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⑤ 필적 감정 기술로 뻗어 나갈 무궁무진한 서비스들의 예로, 보안, 의료 진단, 지능형 공장, 자율 주행을 들고 있다.

**06** '99.8퍼센트'와 같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여 인식 정확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밝히고 정보의 신뢰도가 높음을 강조하고 있다.

**07** 인공지능을 활용한 위조의 유형을 판별하는 기술에 대한 소개 내용은 나타나 있으나, 다른 여러 기술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08**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다르다'라는 답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소리를 크게 하고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다.

**09** 숫자를 말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전달을 위해 '8퍼센트'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숫자 '8'을 손가락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는 몸동작에 해당하므로 비언어적 표현 전략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목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것은 준언어적 표현 전략에 해당한다.

③ 말의 속도와 어조를 조절하는 것은 준언어적 표현 전략에 해당한다.

④ 어려운 어휘들에 쉽게 설명하는 내용을 덧붙이는 것은 언어적 표현 전략에 해당한다.

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8퍼센트'라는 숫자를 강조한 것이므로 이 숫자가 나온 과정을 설명할 필요는 없으며, 이는 언어적 표현 전략에 해당한다.

## 소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91~93쪽

**01** ④ **02** ⑤ **03** ④ **04** ㉮ 언어적 표현 전략만 사용하였을 때보다 전달하는 내용을 보완하고 강화하여 화자의 의도를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05** ③ **06** ④ **07** ④ **08** ㉮ 손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청중이 화면의 매체 자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09** ④ **10** ③ **11** ㉮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01**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과 준언어적 표현 이외에 의미 전달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몸동작 등만으로도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02** 〈보기 1〉을 통해 예상 독자는 학급 친구들이며 발표 목적은 모둠이 조사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보기 2〉에서는 '반추 동물', '야생 근연종', '유형 성숙'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발표 상황을 고려할 때 청중의 지식수준에 맞지 않는 어려운 어휘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3** 학교에 처음 들어온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발표이므로 친절함과 호감을 느낄 수 있는 비언어적 표현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예상 청중은 학교 신입생들이므로 문화적 배경은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

② 공식적인 자리이므로 자유로운 옷차림보다 격식 있는 옷차림이 적절하다.

③ 시선을 고정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를 주어야 효과적인 발표가 될 수 있다.

⑤ 신입생들에게 학교 교칙을 설명하는 내용이므로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 전략은 적절하지 않다.

**04** 언어적 표현 전략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청중에게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과 준언어적 표현 이외에 의미 전달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언어적 표현으로 전달되는 내용을 보완하고 강화해 화자의 의도를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두 표현 전략을 동시에 사용하였을 때의 긍정적 효과를 언어적 표현 전략만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5점 |

| | |
|---|---|
| 비언어적 표현 전략의 효과는 서술했으나 언어적 표현 전략만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지 못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05** (가)에서는 '신기루는 영어로 '미라지(mirage)'라고 하는데, 아무런 근거나 토대가 없는 사물이나 생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라고 하며 용어의 개념을 설명한 후, '그렇다면 메타버스는 신기루일까요?'라고 말하며 '메타버스'와 '신기루'를 관련짓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하는 과정이 드러나 있지만, 이는 메타버스가 신기루에 불과한 것인지 그 존재에 관해 질문한 것이다. 신기루가 나타나는 과정은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② (가)의 발표자는 청중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

④ (나)에서는 지역마다 사용하는 방언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을 뿐, 방언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⑤ (나)에 지역 방언의 미래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6** '통념'은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가)에 기존의 통념과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도 찾아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예를 들자면 저 멀리에 배가 있는데, 배가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라고 언급하며 구체적인 예시를 활용하고 있다.

②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에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는 접속 부사인 '그런데'와 같은 담화 표지를 사용하여 '신기루'에 대해 앞선 내용과 다른 관점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⑤ 발표를 시작할 때 '메타버스가 상용화된 세상은 실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신기루에 불과할까요?'라고 질문을 던지며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07** '(느린 속도의 진지한 어조로)'에 해당하는 부분의 내용을 참고할 때, 이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이 아니라 '방언의 가치'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08** ㉠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앞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손을 활용하여 화면을 가리키는 몸동작이 들어가야 한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화면을 가리킨다는 비언어적 표현을 쓰고, 그 효과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5점 |
| 화면을 가리킨다는 비언어적 표현은 썼으나, 그 효과를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 2점 |
| 화면을 가리킨다는 비언어적 표현을 쓰지 못한 경우 | 0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09** 전개부에서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청중에게 익숙한 내용을 빠르게 소개하기 위함이 아니라, 청중이 다소 낯설게 느낄 수 있는 내용을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 오답 풀이 | ① '반갑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세상을 혁신하는 삼산텍 대표 서달미입니다.'라고 하며 인사와 자기소개로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② '일란성 쌍둥이는 글씨체도 똑같을까요?'라고 질문을 던지며 발표와 관련된 소재인 글씨체를 언급하여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③ '필적은 뇌의 지문이라고도 불리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죠.'라고 하며 단어의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⑤ '이 설레는 여정의 시작이 바로 이곳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10** '다르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큰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는 준언어적 표현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11** [A]에서는 '시작은 필적 감정이지만 이 기술로 뻗어 나갈 무궁무진한 서비스들. 보안, 의료 진단, 지능형 공장, 자율 주행.'과 같이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언어적 표현 전략을 서술하고, 사용 의도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5점 |
| 언어적 표현 전략은 서술했으나, 사용 의도를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 (2)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연설하기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95~97쪽

01 ④ 02 공신력, 이성적, 감성 03 ① 04 ⑤ 05 ②
06 ③ 07 ④ 08 ⑤ 09 감성적 설득 전략

**01** 연설에서는 청중의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도 필요하므로, 연설을 하는 사람이 청중의 감정을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2** 연설의 목적은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화자는 공신력을 가져야 하며 이성적으로 청중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청중의 감성에 호소하는 것도 필요하다.

**03** 화자가 스스로 소개를 하고 있으므로 연설의 첫 부분임을 알 수 있으나,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스스로에 대한 평판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② 연설의 주제인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와 관련하여 자신이 사회 문제를 다루는 단편 소설 작가라는 전문성을 드러내어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③ 연설의 다음 내용을 미리 언급함으로써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전달'이라는 연설의 목적과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연설의 주제인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와 연관 지어 사회 문제를 주제로 소설을 쓴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여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⑤ '여러분께서도 …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에서의 종결 표현으로 보아 질문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청중이 스스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설득하고 있다.

**04** 공신력은 화자가 가지고 있는 '청자에게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이지만, 이는 고정된 요소가 아니라 화자의 노력을 통해서도 변화할 수 있는 요소이다.

**05** 전문성 있는 기관인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여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전문성 있는 기관의 보고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계 자료라고는 할 수 없다.

③ ⓐ에서는 가축 사육이 환경 오염을 초래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 이유 또한 제시되지 않았다.

④ ⓐ의 내용 제시 방법에서 연역이나 귀납 등의 여러 논증 방법은 활용되지 않았다.

⑤ ⓐ에 전문가의 의견을 근거로 뒷받침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6** 연역이나 귀납 등의 여러 논증 방법을 활용하여 주장에 대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이성적 설득 전략의 방법이다.

| 오답 풀이 | ① 주제와 관련된 화자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은 화자의 공신력을 높이는 설득 전략이다.

② 청중에게 친근감을 표시하여 화자에 대한 호감과 신뢰를 주는 것은 화자의 공신력을 높이는 설득 전략이다.

④ 주제와 연관 있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설득하는 것은 화자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설득 전략이다.

⑤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는 사례를 활용하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감성적 설득 전략이다.

**07** 청중에게 긍정적인 감정뿐 아니라 슬픔, 분노,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도 설득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08** 준언어적인 표현은 성량, 속도, 억양, 어조 등이다. ㉮에서 화자는 언어적 표현으로 청중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지만, 화자가 감성적인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최고의 하루를 사는 거야'라는 긍정적인 노래 가사를 소개하여 청중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

② 친구 '미겔'을 다시 만날 날을 꿈꾸며, 현재의 답답하고 힘든 상황을 잘 견뎌 내는 희망적인 태도를 보여 준다.

③ 화자가 친구 '미겔'을 생각하며 병을 이겨 내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상황에 청중 또한 공감하고 마음을 움직여 의지를 갖기를 바라고 있다.

④ 청중이 자신을 보며 힘을 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를 가지기를 바라며 호소하고 있다.

**09** 〈보기〉의 연설에서는 화자가 청중에게 차별적인 시선 없이 스스로의 모습과 가치, 신념 등을 생각해 보게 하고 있다. 화자의 공신력이나 이성적 설득 전략보다는 감성적 표현으로 청중이 자신의 고유한 생각과 개성을 찾아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감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활동 적용 문제

본문 98~101쪽

01 ② 02 ① 03 ④ 04 ③ 05 ⑤ 06 물범 탐구 동아리의 활동 내용과 그 성과 07 ⑤ 08 ④ 09 ⑤ 10 ㉠: 점박이물범 ㉡: 경험 11 ④ 12 ④ 13 ③

**01** 화자의 공신력과 관련 있는 요소는 화자의 평소 성품과 주변의 평판, 자신감 있는 태도, 솔직하고 겸손한 태도 등이 있다. 화자의 현재 처지와 감정은 공신력과는 거리가 멀다.

**02** (가)에서 화자는 의사라는 직업을 밝힘으로써 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드러내어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자신의 의학적 경험을 제시하여 공신력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② 화자는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 연설의 주제인 미세 먼지와 마스크의 상관관계에 대해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다.

③ 화자는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의 기아 돕기 활동을 직접 실천해 옴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관적인 행동을 꾸준히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④ 화자가 몇 년간 전 세계의 기아 돕기 활동을 한 사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화자의 주장에 대한 경험으로 제시되고 있다.

⑤ 화자의 자신감 없는 태도는 청중에게 공신력을 드러내기 어렵고, 특히 매사에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자신의 주장과 상반되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03** 화자의 공신력은 청중이 화자를 신뢰하게 만들고, 이는 말하는 내용의 신뢰도를 높여 연설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

| 오답 풀이 | ① 화자가 설득을 위해 청중의 자긍심과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화자의 공신력 자체가 청중에게 자긍심과 자신감을 주지는 못한다.

② 화자의 공신력은 유명 인사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드러낼 수 있다.

③ 화자의 공신력은 연설에서의 태도, 제시하는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설과 관련 없이 유지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화자의 겸손하고 솔직한 태도가 공신력을 높여 줄 수는 있지만, 공신력이 겸손함과 성찰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은 아니다.

**04** 이 연설의 첫 문단만으로는 연설의 주제와 목적에 대해 알 수는 없다.

| 오답 풀이 | ① 이 연설의 주요 소재는 점박이물범이다.

② 연설자가 백령도에 사는 고등학생 김범석이라는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④ 연설의 주요 소재인 점박이물범의 모습을 자료를 통해 직접 보여 줌으로써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⑤ 연설의 주요 소재인 점박이물범에 대해 잘 모르는 청중에게 점박이물범의 외양을 중심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05** 화자의 동아리가 기념행사를 진행하는 8월 25일은 점박이물범의 날로, 다른 학교 학생들을 초대해 함께 물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기념행사를 하는 날은 구조된 점박이물범을 방류한 날로 정해진 것이지만, 행사에서 물범 구조 활동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② 이 기념행사에서 기부를 하는 학교가 있지만, 행사의 목적이 기부금 모금은 아니다.

③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교류 행사로, 해양 환경 공단의 연구원들과 교류하는 것은 아니다.

④ 동아리 활동의 성과를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알리는 행사로, 학교에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

**06** [A]의 내용에는 물범의 인공 쉼터를 만든 것, 점박이물범의 날을 정하고 기념행사를 진행하는 것 등의 동아리 활동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A]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다른 학교, 학생,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성과를 전달하고 있다.

**07** ㉤은 다른 친구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물범 동아리 활동의 성과와 보람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 어려움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은 해양 생태계와 해양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진로 희망을 소개하며 해양 생태계 보호에 대한 주제로 연설을 하게 된 관련성을 알려 주고 있다.

② ㉡은 점박이물범의 수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감소 양상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주고 있다.

③ ㉢은 낯선 용어인 인공 쉼터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청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④ 동아리 활동이 변화를 일으킨 것에 대해 뿌듯함이라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청중도 이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08** 화자는 연설의 마지막 문단에서 장래 희망을 해양환경 공단의 연구원이라고 밝히며, 그간의 경험을 살려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 자신감 있게 밝히고 있다. 이는 연설의 공신력을 높여 줌으로써, 청중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게 한다.

| 오답 풀이 | ① 귀납적인 논증 방식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실이나 현상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 내는 논증 방식으로, 이 부분에서 귀납 논증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② 유명한 명언을 인용한 표현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③ 청유형 문장이 활용된 표현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⑤ 바다 생태계 보존이라는 문제 상황에 대해 심각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9** 화자는 점박이물범의 보호를 위한 활동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인공 쉼터를 만드는 데 영향을 주었다. 화자가 직접 인공 쉼터를 조성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점박이물범의 귀여운 외양이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적 설득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
② 청소년이지만 생태계 보호를 위해 조금의 힘이라도 되고자 최선을 다하는 화자의 모습이 청중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③ 바다 생태계 보존에 앞장서기 위해 장래 희망을 바꾸기까지 한 화자의 모습이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다.
④ 화자의 활동에 진정성을 느끼고 응원하는 다른 학교 학생들의 모습은 청중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10** 이 연설의 화자는 주요 소재인 점박이물범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청중을 설득하고자 하고 있다.

**11** 이 연설의 화자는 평범한 고등학생인 자신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점박이물범과 관련된 자신의 활동 경험을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주장에 대해 다양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이성적 설득 전략이다.
② 고등학생인 화자가 해당 주제에 대해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제시하여 이를 보완하고 있다.
③ 소재인 점박이물범에 대한 청중의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감성적 설득 전략이다.
⑤ 화자는 첫 부분에서 청중이 잘 알지 못하는 점박이물범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므로, 청중의 관심 분야를 고려하여 친숙한 내용을 먼저 제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2** 이 연설에서 이성적 설득 전략으로 귀납적 논증 방법은 활용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점박이물범이 감소하는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이성적 설득 전략의 방법이다.
② 인공 쉼터의 효과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관찰 결과로 입증하였으며, 이는 이성적 설득 전략의 방법이다.
③ 점박이물범이 백령도에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모습을 실제 촬영한 영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이성적 설득 전략의 방법이다.
⑤ 동아리 활동의 효과를 여러 학생들이나 선생님들까지 관심을 가지는 모습과 응원의 말들을 인용함으로써 입증하고 있다. 이는 객관적인 평가와 사실을 통해 효과성을 입증한 것으로, 이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13** 특히 마지막 문단을 통해 화자는 이 연설을 듣는 청중이 점박이물범을 포함한 해양 생태계와 해양 환경을 보존하고 더불어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점박이물범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기는 했지만, 점박이물범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연설의 목적은 아니다.
② 점박이물범의 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는 했지만, 이 기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라는 것이 연설의 주된 메시지라고 볼 수 없다.
④ 백령도에 점박이물범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길 바란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⑤ 화자의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소개하기는 했지만, 연설의 주된 메시지라고 볼 수는 없다.

소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102~104쪽

**01** ③ **02** ⑤ **03** ㉠ (다)에 중점적으로 사용된 설득 전략은 청중의 희망과 의지 등의 감정을 자극하여 설득하고자 하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다. **04** ① **05** ③ **06** ① **07** ④ **08** ㉡ 이 연설의 화자는 동아리에서 물범들을 촬영하며 개체 수를 확인하거나, 점박이물범의 날 등을 통해 다른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01** '왜 우리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등의 말에서 화자는 청중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화자가 청소년 작가로 소설을 쓰고 있지만, 청중에게 소설 쓰기를 권유한 것은 아니다.

② 화자가 자신의 주위에서 일어난 사회 문제를 언급한 것은 자신과 상관없다고 느껴지는 일이라도 언젠가는 삶과 연결된다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화자 주위에서 일어난 사회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일의 중요성이 연설의 주제이다.

④ 화자는 자신의 소설 창작 활동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 연설의 목적은 아니다.

⑤ 화자는 우리 사회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청중이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바라지만, 함께 토의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02**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보다 많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가축의 소화 및 배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과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양을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보고서를 근거 자료로 사용하고 이를 밝힘으로써 근거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②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 육류 소비라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2050년에 지구상에 약 100억 명의 인구가 살게 된다는 구체적인 인구수를 제시하여, 미래에 매우 많은 식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청중이 인식하게 하였다.

④ 육류 소비가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가축 사육 과정과 필요한 사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03** (다)에 중점적으로 사용된 설득 전략은 감성적 설득 전략이다. 감성적 설득 전략은 감성적인 표현과 어휘 등으로 청중의 감정에 호소하여 설득의 효과를 높인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다)에 중점적으로 사용된 설득 전략이 감성적 설득 전략이며, 이때 의도한 청중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 5점 |
| (다)에 중점적으로 사용된 설득 전략이 감성적 설득 전략이라는 것만 서술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04** 화자가 자신의 꿈을 언급하는 것은 주제에 대한 공신력을 높여 줄 수 있지만, 중심 소재에 대한 청중의 호감을 이끌어 내는 전략이라고는 할 수 없다.

**05** 3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통해 점박이물범은 멸종 위기 동물이자 천연기념물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국내의 다른 지역에서도 한두 마리 정도가 관찰되고 있으므로 백령도가 유일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백령도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300여 마리가 관찰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백령도에서 점박이물범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총 세 곳인데, 이 연설에서는 두 군데의 물범 바위만을 언급하고 있어 나머지 한 곳 또한 물범 바위 근처인지는 알 수 없다.

⑤ 우리나라의 경우 1930년대까지 8,000여 마리였던 점박이물범이 현재 1,300마리까지 감소했다는 내용을 통해 우리나라의 점박이물범의 수가 1930년대 이후 절반 이상 감소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절반 정도로 감소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6** ㉠은 점박이물범의 외양을 통해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지만, ㉡은 객관적인 관찰 결과를 통해 인공 쉼터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이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② ㉠과 ㉡은 모두 외적 관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각각 감성적 설득 전략, 이성적 설득 전략으로 다른 효과를 준다.

③ ㉠은 점박이물범의 귀여운 외양을 강조하고 있으며, ㉢은 화자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강조하고 있다.

④ ㉡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인공 쉼터를 조성한 내용으로 이성적 설득 전략이며, ㉢은 화자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다.

⑤ ㉡은 객관적인 관찰 결과를 통해 인공 쉼터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이성적 설득 전략이며, ㉢은 화자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다.

**07** 화자가 해양 환경 보존을 위해 힘쓰고 싶다는 소망은 제시되어 있으나, 해양수산부에서 실행했던 정책들의 효과를 분석해 보고 싶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바다 생태계 보존을 위해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저희 활동이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이 뿌듯했습니다.'라는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점박이물범의 멸종 위기와 해양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알려 주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⑤ '그간의 경험을 살려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해 강연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싶습니다.'라는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다.

**08** 이 연설의 화자는 점박이물범을 보호하기 위해 동아리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화자가 언급한 활동으로는 주기적으로 바다에 나가서 물범의 개체 수를 확인하거나 해양 쓰레기 줍기, 다른 학생들에게 점박이물범 홍보하기, 인공 쉼터 조성을 공론화하고 효과 관찰하기, 점박이물범의 날 기념 행사하기 등이 있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화자가 점박이물범을 보호하기 위해 한 동아리 활동을 두 가지 모두 서술한 경우 | 5점 |
| 화자가 점박이물범을 보호하기 위해 한 동아리 활동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중단원 **실력 점검 문제** 본문 106~110쪽

**01** ④ **02** ④ **03** ④ **04** ㉠: 우리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자. ㉡: 점박이물범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자. **05** 예 (가)와 (나)의 화자가 공통으로 활용한 설득 전략은 이성적 설득 전략이다. (가)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와 전문적인 보고서 내용 등을 활용하여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였고, (나)의 경우 점박이물범이 감소하고 있는 양상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여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06** ④ **07** ⑤ **08** ① **09** ② **10** ④ **11** ① **12** ⑤

**01** '우리 사회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라고 하며 청중이 직접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으로 끝맺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통념은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으로 이를 지적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청중에게 행동이나 생각의 변화를 권유하고는 있지만 현재의 모습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인과 관계는 원인(이유)과 결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이 연설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⑤ 제시된 연설의 화자는 매체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02** 화자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점박이물범과 더불어 살아갈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 인간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통해 청중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화자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들을 제시함으로써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② 연설의 시작 부분에서 중심 소재인 점박이물범을 소개하여 청중이 내용을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중심 소재인 점박이물범의 외양을 사진으로 제시함으로써 중심 소재에 대한 청중의 호감도를 높이고 있다.
⑤ 화자는 체육 교사에서 해양환경공단의 연구원으로의 장래 희망 변화를 언급함으로써 청중이 화자의 해양 환경 보호 활동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있다.

**03** (가)는 사회 문제를 다루는 단편 소설을 쓰는 화자의 경험을, (나)는 점박이물범을 보호하기 위한 화자의 활동을 근거로 하여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04** 각 연설의 마지막 부분을 중심으로 보면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가)의 주제는 우리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자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나)의 주제는 점박이물범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자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가)와 (나)의 주제를 모두 정확히 서술한 경우 | 5점 |
| (가)와 (나)의 주제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05** (가)와 (나)에서 공통으로 사용한 설득 전략은 이성적 설득 전략이다. (가)는 육류 소비가 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있고, (나)는 첫 번째 문단에서 점박이물범이 멸종 위기에 놓여 개체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여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가)와 (나)에서 이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한 부분을 모두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 5점 |
| (가) 혹은 (나)에서 이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한 부분을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06** 〈보기〉의 내용은 청중에게 지구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전하며, 지금의 선택이 환경과 건강,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책임감에 호소하고 있다. 이는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다.

| 오답 풀이 | ① 청중의 감정에 호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② 〈보기〉의 내용으로는 화자의 평소 성품을 알 수 없다.

③ 〈보기〉에는 연역의 논증 방법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보기〉에서 발표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은 언급되지 않았다.

**07** (가)의 화자는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많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지구의 환경을 위해 지나친 육류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08** 화자는 여러 가지 점박이물범 보호 활동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일반적 원리를 도출하는 귀납적 논증 방법을 활용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② 화자가 제시한 점박이물범의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점박이물범의 감소 양상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밝히며, 점박이물범의 보호가 시급함을 알리고 있다. 이는 이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다른 학교 학생들의 점박이물범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전달함으로써 청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감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④ 이 연설을 통해 화자의 의도에 따라 점박이물범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고, 멸종 위기의 해양 동물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다.

⑤ 이 연설을 통해 고등학생인 화자가 여러 활동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습이 청중에게 자신감과 긍정적인 동기를 줄 수 있다.

**09** 발표자는 식물이 살아가는 독특한 방식에 대해 발표하면서 발표 중간에 '번식을 위해 곤충을 속이는 식물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라고 질문하여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거의 모르시는군요.'라고 하며 설명을 이어 가고 있다. 따라서 발표자의 질문은 발표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청중의 배경지식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발표자는 '고개를 저으며'와 같이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이어서 소개할 식물은 앞서 소개한 라플레시아와 달리 다른 식물에서 양분을 흡수하는 식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청중의 행동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③ 낯선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식물이 살아가는 몇 가지 독특한 방식', '식물이 살아가는 모습' 등과 같은 말로 발표 전체의 내용을 집약하였으나, 발표 중간중간에 앞서 언급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있지는 않다.

⑤ 발표의 마지막에서 '제 발표가 여러분의 상식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며 발표 내용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화제를 전환하고 있지는 않다.

**10** 발표자는 ㉣을 네 번째 자료로 제시하여 개다래의 잎 색깔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 주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개다래가 잎을 꽃처럼 보이게 해서 곤충을 유인하고 번식에 이용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개다래의 꽃이 작고 잎에 가려져 있는 이유는 발표에 제시되지 않았으며, 제시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도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은 발표자의 첫 번째 자료로 제시되어 라플레시아가 숙주인 덩굴식물에 기생하여 양분을 흡수한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② ㉡은 발표자의 두 번째 자료로 제시되어 수염틸란드시아의 공기뿌리를 보여 주고 그 역할을 설명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③ ㉢은 발표자의 세 번째 자료로, 수염틸란드시아의 잎에 있는 털의 기능을 설명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⑤ ㉤은 발표자의 다섯 번째 자료로, 하나의 꽃처럼 보이는 해바라기의 꽃송이가 실은 수많은 낱낱의 꽃들이 한데 모여 이루어진 것임을 설명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11** '영상을 잠시 떠올려 봅시다.',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데 동참합시다.' 등에서 청유의 문장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주장이 야기한 논란을 해소하는 내용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② 2019년 우리나라의 이산화 탄소 배출량, 2018년 우리 연안 생태계 중 갯벌의 면적 등 객관적인 통계 자료

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다.
③ '물론 연안 생태계가 이산화 탄소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를 통해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하고 있으며, 다음 내용으로 산림보다 이산화 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나다는 연안 생태계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④ 화자와 청중이 환경의 날 행사 때 교내 방송으로 영상을 시청했던 경험을 들어, 북극곰의 비극적인 모습을 떠올리게 하여 지구 온난화라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⑤ 연안 생태계를 '지구의 보물'에 비유하여 청중에게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고 가치를 알리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2** '일회용품 줄이기, 나무 한 그루 심기와 함께 …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데 동참합시다.'를 통해 화자가 대기 중 이산화 탄소의 감축을 위해 기존의 방법과 연안 생태계 보호를 함께 실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방법을 연안 생태계 보호가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대단원 1등급 완성 문제

본문 111~115쪽

**01** ③ **02** ③ **03** ③ **04** ② **05** ⑤ **06** ③ **07** ④
**08** ⑤ **09** ② **10** ⑤ **11** ⑤

서술형 문제

**12~16** 해설 참조

**01** (다)에 따르면 '어간'은 용언의 활용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 '높푸르다'를 예시로 생각하였을 때 '높푸르-'가 어간이지만 형태소는 '높-'과 '푸르-'이므로 하나가 아니다. 따라서 어간은 하나의 형태소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치솟다'의 직접 구성 성분은 '치-'와 '솟다'가 맞지만, '치솟다'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들어가다'는 합성어, '치솟다'는 파생어, '그리다'는 단일어이다.
② '들어가다'는 동사에 해당하고, '들어-'와 '가다'로 직접 구성 성분을 나눌 수 있다.
④ '그리다'는 '그림을 그리다', '너를 그리다'와 같은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그리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다.
⑤ '들어가다'의 어간은 '들어가-'이고 '치솟다'의 어간은 '치솟-'이며 '그리다'의 어간은 '그리-'이다.

**03** '앉다'의 반의어로는 '일어서 있는 것'이 들어가야 하므로 '공연을 서서 보다.'가 예문의 문장으로 적절하다. '불량으로 기계가 서다.'에서 '서다'는 '물품을 생산하는 기계 따위가 작동이 멈추다.'의 의미이므로 이에 대한 반의어는 '작동하다'가 적절하다.

**04** 특별한 표지가 없는 안긴문장은 서술절과 관련된 설명으로, 〈보기〉의 문장에는 서술절로 안긴문장이 없다.
| 오답 풀이 | ① 안은문장의 주어는 '나는'이고, 안긴문장의 주어는 '너가'이므로 동일하지 않다.
③ '빠르게'는 형용사 '빠르다'라는 어간 '빠르-'에 부사형 전성 어미 '-게'가 붙은 것으로 '뛰는'을 꾸미는 부사절이다.
④ '뛰는'은 동사 '뛰다'의 어간 '뛰-'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는'이 결합한 관형절의 서술어로 볼 수 있다. '너가 빠르게 뛰는'은 관형절에 해당한다.
⑤ 안은문장은 '나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었다.'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05**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과 적절하게 결합하면 설명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표현 전략은 적절하지 않다.

**06** 발표 주제에 대해 최대한의 정보를 주어서는 안 되고, 예상 청중과 목적을 고려하여 적절한 분량을 준비해야 한다.

**07** (다)에서 '필적'이라는 다소 낯설게 느낄 수 있는 단어를 '뇌의 지문'이라고도 불린다고 하여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단어가 가진 다른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마지막 문단에서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필적 감정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의 예시이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시가 아니다.
③ '일란성 쌍둥이는 글씨체도 똑같을까요?'라는 질문을 던

지는 언어적 표현 전략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스스로가 아닌 청중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⑤ 발표와 관련된 소재인 '글씨체'를 언급하고 있지만 해당 부분에서 앞의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08** (다)에서 청중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예측하는 부분은 '만일 이 부족한 인력을 인공지능이 대신하면 …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이다. 하지만 해당 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① '99.8퍼센트'와 같은 통계 자료의 수치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다.

② '일란성 쌍둥이는 글씨체도 똑같을까요?'라는 질문을 통해 발표 주제와 관련 있는 글씨체와 관련한 내용을 환기하고 있다.

③ '필적'의 특성을 언급하며 발표자가 문제시하고 있는 '위조'와 관련된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

④ '보안, 의료 진단, 지능형 공장, 자율 주행'과 같은 예시를 제시하여 활용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09** 겹문장을 홑문장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속도감이 빨라지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청중에게 뚜렷하게 전달할 수 있지만, 정교한 묘사나 한 문장에 많은 정보를 담아 전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10** (나)의 '고구마'와 '감저'의 의미 관계는 유의 관계이지만 (라)의 '점박이물범'과 '해양 포유류'의 의미 관계는 상하 관계에 해당하므로 의미 관계가 서로 동일하지 않다.

**11** 겹문장을 홑문장으로 수정하는 것과 연설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연관성은 서로 관련이 없다.

**12** **서술형 예시 답** ㉠에서 어근은 '까맣–'이고 ㉡에서 어근은 '돌'과 '길'이다. 따라서 ㉠은 파생어이고 ㉡은 합성어이다. ㉢에서 '가–'는 실질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이고 '–았–'과 '–다'는 형식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이다.

어근은 단어를 분석할 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에서 '새–'는 '매우 짙고 선명하게'를 뜻하는 접두사이고 '까맣–'은 어근, '–은'은 어미에 해당한다. ㉡의 '돌'과 '길'은 모두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므로 둘 다 어근이다. 따라서 ㉠은 접두사가 어근에 결합한 파생어이고, ㉡은 어근끼리 결합한 합성어이다. ㉢의 형태소는 '가–', '–았–', '–다'로 분석할 수 있으며 '가–'는 어근이자 어간, '–았–'은 선어말 어미, '–다'는 어말 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는 실질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이고 '–았–'과 '–다'는 형식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이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조건〉 1과 2에 따라 ㉠, ㉡, ㉢을 모두 적절하게 분석한 경우 | 6점 |
| ㉠, ㉡, ㉢을 적절하게 분석하지 못한 경우 | 각 –2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13** **서술형 예시 답** 한 단어가 관련성이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다의어로 사전에 실린 표제어가 동일한 반면,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인 동음이의어는 사전에 실린 표제어가 동일하지 않다.

다의어에서 한 단어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를 '중심적 의미', 중심적 의미가 확장된 그 나머지 의미를 '주변적 의미'라고 하며 이들은 하나의 표제어 안에 실려 있다. 반면 동음이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의미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표제어가 동일하지 않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조건〉 1과 2에 따라 차이점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6점 |
| 차이점은 서술했으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14** **서술형 예시 답** 〈보기〉에는 안긴문장 '마당이 거실 앞에 있다'와 '마당이 넓다'가 있으며, '마당이 거실 앞에 있다'는 관형절로 쓰였으며 '마당이 넓다'는 서술절로 쓰였다. 관형절의 서술어는 '있다'로 형용사이며, 서술절의 서술어인 '넓다'는 형용사이다.

'(마당이) 거실 앞에 있는'은 뒤에 있는 체언인 '마당'을 꾸미고 있으므로 관형절로 볼 수 있으며, '마당이 넓다'는 '우리 집은'의 서술어로 기능하는 서술절로 볼 수 있다. '있다'와 '넓다'는 모두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보여 주는 형용사이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안긴문장 두 개를 제대로 찾고, 종류를 서술한 경우 | 4점 |
| 안긴문장의 서술어에 쓰인 단어의 품사를 서술한 경우 | 2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15** 서술형 예시 답 내용을 간결하게 제시하고 의미를 추상화해 집약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으며, 명사형 문장으로 표현하면 핵심 내용을 전달하기 용이해진다.

'남자가 여자보다 많아지거나, 여자가 남자보다 많아진다면'과 같은 표현을 '성별 균형의 변화'로 의미를 추상화하여 간결하게 제시하였고, '~음.'으로 끝나는 명사형 문장을 사용하여 핵심 내용을 전달하였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내용을 간결하게 하여 집약적으로 전달한다는 효과를 서술한 경우 | 5점 |
| 명사형 문장으로 표현하여 핵심 내용을 전달하기 용이하다는 것을 서술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16** 서술형 예시 답 화자의 평소 성품이나 평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 자신감 있는 태도 등은 화자의 공신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가)에서는 화자가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서 공신력을 갖고 있기에 공신력이 높음을 보여 주며, (나)에서는 화자가 평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행동을 꾸준히 보여 주었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음을 보여 준다. (다)에서는 화자가 소심하고 자신감 없는 태도로 말하여 청중들에게 공신력을 보여 주지 못함을 알 수 있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공신력을 높이는 방안을 3가지 모두 작성한 경우 | 5점 |
| 공신력을 높이는 방안을 1~2가지만 작성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 Ⅲ 담화와 협력적 문제 해결

## 1. 담화의 표현과 구성

**간단 확인 문제** 본문 118쪽

**01** (1) X (2) O (3) X
**02** (1) 의문문 (2) 발화시 (3) 사동 (4) 단순
**03** (1) 객체 높임 (2) 상대 높임 (3) 응결성 (4) 응집성

**01** (1) 문장의 유형이 실제 담화에서의 기능과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2) 피동 표현에서는 행위를 당한 대상이 주어로서 강조된다.

(3)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원래의 형식과 내용 그대로 유지한 채 인용하는 것은 직접 인용이다. 간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의 형식은 유지하지 않고 그 내용만 이해하여 자신의 말로 바꾸어 인용하는 것이다.

**02** (1) 문장 종결 표현으로서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을 의미한다.

(2) 국어의 시간 표현에는 시제와 동작상이 있는데, 그 중 시제는 발화시와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뉜다.

(3) 사동 표현에서는 행위를 시키는 주체가 드러나며, 행위의 결과가 외적 원인에 의한 것임을 나타낼 수 있다.

(4) '안'이나 '−지 않다(아니하다)'를 사용하면 단순한 부정이나 주체가 그 행위를 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다.

**03** (1) 객체는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의미한다.

(2) 상대 높임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3) 응결성은 형식적 측면에서 발화들이 표면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묶인 하나의 담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요건이다.

(4) 응집성은 내용적 측면에서 담화를 이루는 발화들이 하나의 주제와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 (1) 어휘와 문법 요소의 기능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119~124쪽

**01** A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B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2** ② **03** 관련 의미를 부각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04** ② **05** ② **06** ④ **07** (1) 께서, -시- (2) 께, 드리다 **08** ④ **09** 발화시, 사건시, 발화시, 발화시, 사건시 **10** ③ **11** ③ **12** ② **13** ④ **14** ① **15** 행위의 주체보다 행위의 대상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16** ① **17** ② **18** '못'은 능력 부정이나 상황 부정을 나타내고 '안'은 의지 부정을 나타낸다. **19** ⑤ **20** 영희는 자기가 당번이라고 말하였다.

**01** A는 '과감한', '개혁'과 같은 어휘를 선택하여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드러내며, B는 '사유화', '무서운', '탐욕'과 같은 어휘를 선택하여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2** '를'은 목적격 조사, '나'는 보조사에 해당하고, '확실히'와 '제발'은 부사에 해당한다.

**03** 담화를 구성할 때 화자는 어휘 선택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를 드러낼 수 있는데, 의미가 유사한 어휘를 반복적으로 배치한다면 이는 관련 의미를 부각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04** "수업 내용 정리한 공책 좀 빌려줘."는 명령문에 해당한다.

**05** (창문을 닫아 달라고 요청하는 의미로) "바람이 많이 부네."는 발화 맥락을 고려할 때 문장의 유형은 평서문이지만 청자에 대한 요청(명령)의 기능을 갖는다.

**06** '어서 바다에 가.'는 명령문에 해당한다. 청유문은 '어서 바다에 가자.'와 같다.

**07** (1) 높임의 주격 조사 '께서'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주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2) 높임의 부사격 조사 '께'와 객체 높임 특수 어휘 '드리다'가 객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08** 일반적으로 관형사형 어미 '-는'은 형용사 어간에 연결되지는 않는다. 형용사 어간에 연결되는 관형사형 어미로는 '-(으)ㄴ'이 있다.

**09** 현재 시제에서는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고, 과거 시제에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선행하며, 미래 시제에서는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선행한다.

**10** '나는 내일 산에 간다.'에 사용된 선어말 어미 '-ㄴ-'은 이미 계획되고 정해진 사실임을 강조하는 기능을 갖는다.

**11** 진행상은 어떤 사건이 특정한 시간의 구간 내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표현하며, '-고 있다', '-아/-어 가다' 등의 표현을 통해 실현된다. 따라서 '-고 있다'를 사용한 '차고 있다'는 진행상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어 놓다'가 사용되었으므로 완료상에 해당한다.
②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이 사용되었다.
④ '-어 있다'가 사용되었으므로 완료상에 해당한다.
⑤ '-어 버리다'가 사용되었으므로 완료상에 해당한다.

**12** '고양이가 개구리를 잡았다.'를 피동문으로 고치면 '개구리가 고양이에게 잡혔다.'가 된다. 이로 보아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됨을 알 수 있다.

**13** 접미사 '-되다'는 '-이-, -히-, -리-, -기-'나 '-아지다/-어지다'와 마찬가지로 피동 표현에 쓰일 수 있다.

**14** '내가 동생에게 가방을 들렸다.'에서 '-리-'는 사동 접사에 해당하며, 해당 문장은 사동문이다.

**15** 피동문에서는 '컵이'가 주어가 되므로 내가 깬 대상인 '컵'이 강조된다.

**16** ①에서 '멈추다'는 자동사이다. '멈추었다'의 '-추-'가 사동 접사인 것은 아니며, '멈추었다'는 동사의 어간 '멈추-'에 선어말 어미 '-었-'과 어말 어미 '-다'가 결합한 형태이다.

**17** 직접 인용 표현은 작은따옴표가 아니라 주로 큰따옴표를 사용한다.

**18** 대화에서 '안' 부정은 그 행위를 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고, '못' 부정은 능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상황이 여

의치 못해 그 행위를 실현할 수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19** '우리는 우리를 현혹하는 말에 속지 맙시다.'는 명령문이 아니라 청유문에 해당하므로, ㅁ에서는 청유문에 '말다'를 사용하여 부정의 의미를 실현한 것이다.

**20**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에는 큰따옴표가 없어지고 지시 표현, 시간 부사, 인칭 등이 맥락에 맞게 적절히 변형될 수 있다.

## 활동 적용 문제

본문 125~128쪽

**01** ⑤ **02** ③ **03** 초임 교사로 알려진 체육 교사는 "대학과 군대에서 여러 차례 심폐 소생술 교육을 받았고, 임용된 이후에도 연수를 받은 게 도움이 됐습니다."라며 **04** ⑤ **05** ① **06** ⓐ는 비격식체로서 해요체에 해당하고, ⓑ는 격식체로서 하십시오체에 해당한다. **07** ③ **08** ② **09**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0** ③ **11** ① **12** ④

**01** 피동문이 쓰인 ㉮와 달리 〈보기〉에서는 능동문이 쓰였는데, '학생의 학부모가'가 주어이므로 '학생의 학부모'가 부각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 오답 풀이 | ① ㉮와 〈보기〉의 '쓰러진'의 기본형은 '쓰러지다'로 사동 표현이 아니다. '살린'의 기본형은 '살리다'로 동사 '살다'의 사동사이다.

② 〈보기〉의 '알렸습니다'의 가본형 '알리다'는 동사 '알다'의 사동사이다. ㉮의 '알려졌습니다'는 사동사 '알리다'에 '-어지다'가 붙은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③ ㉮는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도중 심정지로 쓰러진 학생을 심폐 소생술로 살린 사연'을 부각하고자 하였다.

④ 〈보기〉는 ㉮에 비해 사연을 알린 주체인 '학생의 학부모'가 부각된다.

**02** '살아갈 수 없겠지요'에는 비격식체인 해요체가 사용되었다.

**03** 간접 인용 표현을 직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에는 큰따옴표가 사용되고 지시 표현, 시간 부사, 인칭 등을 맥락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04** '살리다'는 '살다'의 사동사이고 '덧붙이다'는 '덧붙다'의 사동사에 해당한다. 각각 사동 접미사 '-리-', '-이-'가 사용되었다.

**05** '보이다'의 '-이-'는 피동 접미사이다. 그런데 '끓이다'의 '-이-'는 사동 접미사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②, ③, ④, ⑤ '-이-'가 피동 접미사에 해당한다.

**06** '있을까요'는 해요체로서 비격식체에 해당하고, '고맙습니다'는 하십시오체로서 격식체에 해당한다.

**07** '안'과 '-지 않다(아니하다)'를 사용하면 단순한 부정이나 주체가 그 행위를 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고, '못'과 '-지 못하다'를 사용하면 주체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못해 그 행위를 실현할 수 없음을 드러낼 수 있다. ㉮에서 '안'은 의지 부정을 나타내므로 눈길을 주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낸다.

| 오답 풀이 | ①, ② 주체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못해 그 행위를 실현할 수 없음을 드러낼 때에는 '못' 부정문을 사용한다.

④, ⑤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는 '말다'를 사용하여 부정의 의미를 실현하는데, ㉯는 명령문의 부정 표현에 해당한다.

**08** ㉰가 포함된 '나는 보도국장님을 뵈러 가야겠지.'는 객체 높임 표현으로, 목적어 자리에 놓인 보도국장님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로 특수 어휘 '뵈다'를 사용하고 있다. '드리다' 역시 '주다'에 대한 객체 높임 특수 어휘에 해당한다.

**09** '실수 안 할게요.'에서 '안'은 의지가 담긴 부정 표현에 해당한다.

**10** ㉠의 '-겠-'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③에서도 '-겠-'이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 오답 풀이 | ①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낸다.

②, ④, ⑤ 의지를 나타낸다.

**11** 종결 어미 '-지'는 해체 어미에 해당하고, 조사 '요'는 해요체를 형성한다.

**12** ⓓ에는 특수 어휘 '뵈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보도국장님'을 높이는 객체 높임 표현이 사용되었다.

| 오답 풀이 | ① ⓐ는 명령문인 부정 표현에 해당한다.

②, ⑤ ⓑ와 ⓓ에서는 선어말 어미 '-겠-'에 의해 추측을 나타내고 있다.
③ ⓒ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ㄹ'에 의해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 소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129~131쪽

**01** ④ **02** ④ **03** ⑤ **04** ③ **05** '모시러'를 통해 객체 높임을 표현하고 있고, '했습니다'를 통해 상대 높임을 표현하고 있다. **06** ① **07** ⑤ **08** ④ **09** ② **10** ㉮의 '-히-'는 피동 접사이므로 ㉮는 피동의 의미를 갖는 반면, ㉯의 '-히-'는 사동 접사이므로 ㉯는 사동의 의미를 갖는다.

**01** ④는 질문의 의미로 의문문을 사용한 경우이므로 문장의 유형이 실제 담화에서의 기능과 일치한다.

| 오답 풀이 | ① 문장의 유형은 감탄문이지만 요청(명령)의 기능을 갖는다.
② 문장의 유형은 의문문이지만 요청(명령)의 기능을 갖는다.
③ 문장의 유형은 평서문이지만 요청(명령)의 기능을 갖는다.
⑤ 문장의 유형은 의문문이지만 평서의 기능을 갖는다.

**02** ④에서는 '께서', '-시-'를 통해 주체 높임을, '께', '드리다'를 통해 객체 높임을, '드리셨다'를 통해 해라체의 상대 높임을 표현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주체 높임, 상대 높임을 표현하고 있다.
②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을 표현하고 있다.
③, ⑤ 상대 높임을 표현하고 있다.

**03** 감탄문은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하는 상태에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이다.

**04** ㉮에서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어머니'를 높이고 있고, ㉯에서는 특수 어휘 '계시다'를 사용하여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계시다'는 '있다'의 높임말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는 '어머니', ㉯는 '선생님'을 높이는 주체 높임 표현이 사용되었다.
② 간접 높임은 높임 대상의 신체, 소유물, 가족, 생각 등과 관련된 서술어에 '-(으)시-'를 사용하여 높임 대상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식을 말한다. ㉮는 '어머니'의 '허리'가 '아프시다'고 표현하여 간접 높임을 사용하고 있다.
④ ㉯의 '선생님'은 명사 '선생'에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님'을 결합한 것이다.
⑤ ㉮의 '께서'와 ㉯의 '께서'는 모두 주격 조사에 해당하며 대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05** '모시다'는 객체 높임 특수 어휘에 해당하며, '했습니다'는 상대 높임 어휘(하십시오체 종결 어미)에 해당한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객체 높임 실현 요소와 상대 높임 실현 요소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5점 |
| 객체 높임 실현 요소와 상대 높임 실현 요소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06** 선어말 어미 '-더-'는 과거를 회상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과거 사건에 현장감을 강조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선어말 어미 '-는-/-ㄴ-'이다.

**07** '새기다'에서는 접사 '-기-'가 사용되지 않았다. '기'는 '새기-'라는 어간의 일부이다.

**08** [A]에서 '-리-'는 피동 접사이지만 [C]에서 '리'는 '버리-'라는 어간의 일부이다.

| 오답 풀이 | ① [A]를 능동문으로 고치면 '어젯밤 모기가 아이를 물었다.'가 된다.
② [A]의 주어는 '아이가'이다.
③ [B]에서는 '인상되었다'가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⑤ [B]와 [C]를 능동문으로 고칠 때 주어가 구체적으로 상정되지 않는다.

**09** '바구니에 과일이 가득 담겨 있다.'에서 '-기-'는 피동 접사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③, ④, ⑤에 사용된 '-기-'는 모두 사동 접사에 해당한다.

**10** '읽히다'는 맥락에 따라 피동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사동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 ㉮는 읽는 행위를 당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는 읽게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와 ㉯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5점 |
| ㉮와 ㉯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 (2) 짜임새 있는 담화의 구성

###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133~136쪽

01 ③ 02 그러나 03 (1) 응집성 (2) 응결성 04 ③ 05 ③
06 ② 07 ④ 08 ⑤ 09 ③ 10 ② 11 ⑤ 12 ④
13 그러므로(따라서)

**01** (나)에서는 발화들이 '고등어'라는 하나의 화제와 관련되어 있다.

**02**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사이에는 역접 관계의 접속 표현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03** (1) 담화를 이루는 발화들은 내용적으로 하나의 주제와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응집성이라고 한다. 즉 응집성은 내용상의 일관성과 관련된다.
(2) 발화들이 표면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묶인 하나의 담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형식적 요건을 응결성이라고 한다. 즉 응결성은 형식상의 긴밀성과 관련된다.

**04** 인용 표현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해서 담화의 응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05** 지시 관형사에는 '이', '그', '저'가 있는데, [A]에서는 이러한 지시 관형사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06** 지시 표현은 가리키는 구체적인 의미가 화자와 청자가 담화를 구성하는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

**07** '저것'은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을 가리키고, '이것'은 화자에게 가까운 대상을 가리킨다.

**08** 대용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서 화자 중심의 표현이 청자 중심의 표현으로 전환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09** ㉠, ㉡, ㉤은 동생에게 가까운 대상을 가리키고 ㉢, ㉣은 언니에게 가까운 대상을 가리킨다.

**10** 대용 표현은 담화에서 앞에 나온 어휘나 발화 전체를 다시 가리키는 표현을 의미한다. ⓐ는 '노래에 맞춰서 다 같이 춤을 추는 것'을 가리키는 대용 표현이고, ⓒ는 '제주도'를 가리키는 대용 표현이다.

| 오답 풀이 | ⓑ와 ⓓ는 화자에게 가까운 곳을 가리키는 지시 표현이다.

**11** 글의 맥락으로 보아 ㉤은 앞 문장에서 언급한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와 사랑'을 가리킨다.

**12** 문맥상 ㉮에는 인과 관계의 접속 표현이, ㉯에는 역접 관계의 접속 표현이, ㉰에는 '비록 사실은 그러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를 의미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적합하다.

**13** 빈칸에는 인과 관계의 접속 표현이 적합하다. 지나간 시대의 필자는 그 일을 할 수 없으므로 독자는 지식과 상상을 더해 지난 시대의 맥락을 복원하거나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 활동 적용 문제

본문 137~138쪽

01 '태풍'이라는 어휘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다. 02 ③ 03 ①
04 ④ 05 ⑤ 06 ①

**01** 동일 어휘의 반복을 통해 담화의 응결성을 높일 수 있다. 이 방송에서는 '태풍'이라는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02** ㉮는 눈을 화제로 다루고 있어서 글의 통일성을 저해한다. 글의 내용상 통일성은 응집성과 관련된다.

**03** ㉠의 앞 문장은 태풍이 꼭 해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04** '된장찌개를 만드는 방법'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설명해야 하는 화제이다.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시간적 순서를 나타내는 말들이다.

**05** ㉤는 앞에 나온 '최선의 계획'를 의미하는 대용 표현이다. 지시 표현은 담화 상황 속에서 화자와 청자로부터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고, 대용 표현은 앞에 나온 어휘나 발화 전체를 다시 가리키는 표현이다.

**06** '반면'은 뒤에 오는 말이 앞의 내용과 상반됨을 나타내는 말로, 이어지는 발화의 내용이 앞선 발화와 대조되는 내용임을 드러낸다.

## 소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139~140쪽

**01** 동일한 표현의 반복을 줄인다는 점에서 담화의 응결성을 높인다. **02** ② **03** ④ **04** ② **05** ㉠은 '결론이 시작이 되고, 서로의 신상 소개는 맨 끝으로 돌리는 요즈음의 인간관계의 새로운'을 가리키는 대용 표현에 해당한다. **06** ③

**01** 지시 표현을 사용하면 동일한 표현의 반복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담화의 응결성 제고에 기여한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동일한 표현의 반복'과 '줄임'에 대해 적절히 서술한 경우 | 5점 |
| '동일한 표현의 반복'과 '줄임' 중 한 가지에 대해서만 적절히 서술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02** 지시 표현을 사용하면 동일한 표현의 반복을 줄일 수 있다.

**03** '그런데'는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는 접속 표현이다. 예시 관계의 접속 표현은 '예컨대(예를 들면, 예를 들어)'이다.

**04** '첫째', '둘째'는 논리적 순서를 나타내는 접속 표현이다.

**05** ㉠은 대용 표현으로서 앞 발화의 '결론이 시작이 되고 서로의 신상 소개는 맨 끝으로 돌리는 요즈음의 인간관계의 새로운'을 가리킨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이 대용 표현이라는 점과 ㉠이 가리키는 내용을 적절히 서술한 경우 | 5점 |
| ㉠이 대용 표현이라는 점과 ㉠이 가리키는 내용 중 한 가지에 대해서만 적절히 서술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06** ㉮에는 인과 관계의 접속 표현이, ㉯에는 역접 관계의 접속 표현이 적합하다.

## 중단원 실력 점검 문제

본문 142~145쪽

**01** ③ **02** ㉮와 ㉯는 파생적 사동문이고 ㉰는 통사적 사동문이다. **03** ㉠과 ㉡은 지수가 손에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키는 지시 표현이고, ㉢은 언니가 생일 때마다 사 주는 책을 가리키는 대용 표현이다. **04** ⑤ **05** ② **06** ③ **07** ⑤ **08** ② **09** ⑤ **10** ④ **11** ③

**01** ⓑ에서는 부사어 '아이에게'에 조사 '에게'가 사용되고 ⓓ에서는 부사어 '바람에'에 조사 '에'가 사용되었는데 조사의 이러한 차이는 그 앞에 오는 단어가 유정물인지 아니면 무정물인지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④ 능동문에서는 행위의 주체가 강조되고, 피동문에서는 행위를 당하는 대상이 강조된다.

② 피동사 '밀리다'의 어간 '멀리−'는 능동사 '밀다'의 어근 '밀−'에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한 것이다.

⑤ ⓔ에는 부사어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능동문으로 바꾸었을 때 주어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이로 보아 이는 행위의 주체를 밝히지 않은 피동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02** ㉮에서의 '신기다', ㉯에서의 '채우다'는 사동사에 해당하고, ㉰에서는 '−게 하다'라는 통사적 구성이 사용되었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 ㉯, ㉰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5점 |
| ㉮, ㉯, ㉰ 중 일부만 서술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03** ㉠과 ㉡은 지수에게는 가깝고 태현에게는 먼 것으로서 지수가 손에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키는 지시 표현이고, ㉢은 앞 발화의 '언니가 생일 때마다 사 주는 책'을 가리키는 대용 표현이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 각각이 어느 표현에 해당하는지,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5점 |
| ㉠~㉢ 중 일부만 서술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04** [마]에서 B의 '그건'은 앞 발화의 내용('동아리 활동 사진전을 열어 보는 것')을 가리키는 대용 표현이다.

**05** ⓐ, ⓑ, ⓒ는 아이에게 가깝고 아빠에게는 먼 대상을 가

리키고, ⓓ, ⓔ, ⓘ는 아이에게 멀고 아빠에게는 가까운 대상을 가리킨다. 그리고 ⓕ, ⓖ, ⓗ는 아이와 아빠 모두에게 먼 대상을 가리킨다.

**06** ㉢과 ㉤은 영화 시작 시각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 오답 풀이 | ① ㉠과 ㉥은 영화가 시작하는 시각인 6시를 가리킨다.

② ㉡은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를 가리키지만, ㉤은 그렇지 않다.

④ ㉣의 출발점은 저녁 식사 장소이고, ㉦의 출발점은 상담을 마친 장소이다.

⑤ ㉧은 영화관을 등지고 볼 때를 기준으로 하고, ㉨은 영화관을 마주 볼 때를 기준으로 하는데 결국 서로 같은 곳이다.

**07** ⑤에서 안긴문장인 '동생이 찾아뵈려던'에서 객체 높임('찾아뵈려던')의 대상은 '선생님'인데, 이는 전체 문장에서 목적어('선생님을')로 나타난다.

| 오답 풀이 | ① 안긴문장인 '편찮으시던'에서 객체 높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안긴문장인 '고향에 계신'에서 객체 높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안긴문장인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신'에서 객체 높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안긴문장인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릴'에서 객체 높임('드릴')의 대상인 '할머니'가 전체 문장에서 부사어('할머니께')로 나타난다.

**08** ⓒ에서 '동생에게'를 '할머니께'로 바꾸더라도 주어는 '나는'이므로 '읽혔다'에 '-시-'를 넣을 수 없다.

**09** '고요하다'는 형용사이고 '고요하지 않다'는 단순 부정을 나타낸다. '비가 안 온다'에서 '비'는 무정물이고 '안 온다'는 단순 부정을 나타낸다.

| 오답 풀이 | ① ㉠에서 '발달하다'는 동사이고 ㉠은 단순 부정을 나타낸다. ㉡은 주어가 무정물이고 단순 부정을 나타낸다.

② ㉠에서 '어렵다'는 형용사이고 ㉠은 단순 부정을 나타낸다. ㉡에서 주어는 유정물이고 ㉡은 의지 부정을 나타낸다.

③ ㉠에서 '궁금하다'는 형용사이고 ㉠은 단순 부정을 나타낸다. ㉡에서 주어는 유정물이고 ㉡은 의지 부정을 나타낸다.

④ ㉠에서 '놀라다'는 동사이고 ㉠은 단순 부정을 나타낸다. ㉡에서 주어는 무정물이고 ㉡은 단순 부정을 나타낸다.

**10** ㉧은 화자인 민수가 있던 장소로의 이동을 나타내지만 ㉩은 화자인 희철이 있던 장소로의 이동이 아니라 청자인 민수가 있던 장소로의 이동을 나타낸다.

| 오답 풀이 | ① ㉠과 ㉤ 모두 발화 시점과 관련하여 언제인지가 정해진다.

② ㉡은 ㉢과 달리 이전 발화를 직접 가리킨다.

③ ㉦은 ㉣과 달리 담화 참여자에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진다.

⑤ ㉥은 민수와 희철을 가리키고, ㉧은 민수, 희철, 기영을 가리킨다.

**11** '밝혀지다'는 동사 어간 '밝히-'에 '-어지-'를 결합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 오답 풀이 | ① '입히다'는 동사 어근에 사동 접사 '-히-'를 결합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② '건네받다'는 동사 어근 '건네-'에 접사 '-받-'을 결합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④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의 능동문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한다.'이다.

⑤ '이루어지다'는 타동사 어근인 '이루-'에 접사 '-어지-'를 결합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 2. 협력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간단 확인 문제** 본문 146쪽

01 (1) X (2) X (3) O (4) O
02 (1) 의사 결정 (2) 사회자 (3) 신뢰성 (4) 조정
03 (1) 협상 (2) 반대 신문

**01** (1) 토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 의사소통이다.
(2) 토의의 사회자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보다 토의의 순서에 맞게 진행하고, 참여자들에게 공평한 발언 기회를 주며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02** (1) 토의는 공통된 하나의 문제를 중심으로 공동의 의사 결정 단계를 거친다.
(2) 토의의 사회자는 토의를 진행하고, 토의 내용을 요약 및 종합한다.
(3) 토론에서 상대측이 제시한 근거 자료의 출처를 검토하는 것은 '신뢰성'과 관련 있다.
(4) 협상은 일반적으로 '시작 단계 – 조정 단계 – 해결 단계'로 진행된다.

**03** (1)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서로 다른 이익으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서로의 생각을 조정함으로써 해결 방안을 찾는 상호 교섭적 행위이다.
(2) 토론에서 반대 신문은 상대측 주장과 논거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상대측 주장의 논리적 오류를 드러내기 위해 질문을 하는 것이다.

### (1) 토의로 문제 해결하기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147~153쪽

01 ② 02 ⑤ 03 ㉠: 심포지엄 ㉡: 포럼 04 ⑤ 05 ④
06 ③ 07 토의의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08 ③ 09 ④
10 ① 11 질문, 대안 12 ⑤ 13 ⑤ 14 ② 15 ① 16 ⑤
17 1년 동안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는가? 18 ②
19 ③ 20 ④ 21 개인 컵에 이름표를 붙이고 컵 보관함에 컵 정리하기

**01** 토의의 주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으며,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시의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관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던 문제보다는 지금 현재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문제가 토의의 주제로 더 적합하다.

**02** 토의에서 대안을 도출할 때에는 추상적인 대안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03** '심포지엄'은 두 사람 이상의 전문가가 학술 대회 등에서 학문적 주제에 대해 강연식으로 발표하고, 청중은 질의응답의 방식으로 참가하는 토의의 유형이다. '포럼'은 발표자와 청중이 처음부터 의견을 제시하고 종합하는 공개적 성격의 토의 유형이다.

**04** 토의 참가자 중 참여자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은 사회자가 해야 하는 역할이다. 토의 참여자는 토의의 절차와 규칙을 준수하며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05** 〈보기〉의 토의 주제에 따르면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급 내 탄소 중립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심각성 인식이 실천 방안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토의 전 다양한 자료를 탐색함으로써 공동체가 처한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 오답 풀이 | ①, ② 토의의 주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정해야 하며, 〈보기〉의 문제 상황에 따르면 기후 위기로 인해 우리에게 닥친 위험의 수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문제로 적절하다.
③ 토의의 주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정해야 하며, 학급 내 탄소 중립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토의의 주제는 시의적절한 문제로 정해야 하며, 〈보기〉의 문제 상황에 따르면 현재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므로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시의적절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06** 제시된 문제 상황은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 탄소 중립과 관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된 책, 신문 기사, 방송 프로그램, 인터넷 검색 자료 등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다. '계절에 따른 강수량 비교 그래프'는 현재의 기

후 위기와 탄소 중립과는 관련이 없는 자료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국제 사회 기후 변화 회의 및 협약 자료'는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입장을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자료이다.

② '환경 단체 및 전문가의 연구 결과'는 여러 단체와 전문가들이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견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자료이다.

④ '청소년 기후 행동 캠페인 사례'는 청소년이 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실천 방안의 사례를 여러 측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자료이다.

⑤ '국내 탄소 배출 현황'은 우리나라의 현재 탄소 배출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증가 양상이 어떠한지 확인해 볼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자료이다.

**07** [A]에서 사회자는 토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토의의 주제를 제시하고,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언급하며 토의의 핵심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은 앞으로의 토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원활한 토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이다.

**08** [B]에서 '학생 1'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구 온도 상승으로 북극 한파를 가두고 있던 제트 기류가 약화됨으로써 …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전문가의 말을 토대로 이상 기후 현상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B]는 토의 참여자 중 첫 발언이다. 따라서 다른 학생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내용을 재진술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없다.

② [B]는 토의 참여자 중 첫 발언이다. 따라서 자신이 앞서 했던 발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B]에는 기관의 통계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B]에는 그래프로 시각화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의 심각성은 언급되지 않았다.

**09** 탄소 발자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중 인간의 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여기에는 인간의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도 포함되므로 이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지구 온도 상승으로 … 북극의 찬 공기가 내려와 한파, 가뭄, 홍수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온실가스의 농도는 … 그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이산화 탄소입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학생 2'가 제시한 그래프에서 이산화 탄소의 배출량이 1950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학생 3'이 제시한 그래프를 보면 탄소 발자국 비중에서 전기 생산은 27%, 제조는 31%로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것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0** ⓐ는 사회자가 앞서 한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 분석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 도출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발언이다. 이러한 발언은 토의의 중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목적의식과 참여의 적극성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11** ⓑ에서 '학생 1'은 탄소 중립을 위해 등하교 시 짧은 거리를 자전거나 도보로 이동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 어떨까요?'와 같이 질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12** 토의에서 대안을 도출할 때에는 최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생각에 제한을 두기보다는 자유롭고 폭넓은 의견을 제시하여 대안을 확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오답 풀이 | ①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대안 도출 단계가 아닌 문제 제시 및 분석 단계에서 필요한 태도이다.

② 주제에 대한 토의의 필요성은 토의의 첫 단계인 문제 제시 단계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③ 제시한 대안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선별하는 것은 대안을 도출하고 난 다음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④ 선택된 대안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것은 토의의 마지막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13** '학생 2'는 '그러네요. 그렇다면 유예 기간을 두어 … 어떨까요?'라는 발언을 통해 미리 구매한 종이컵에 대한 '학생 1'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신이 제시한 대안을 수정하여 보완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학생 4'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시한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에 따르면 …'이라는 발언을 통해 정부에서 제시한 지침을 근거로 냉난방 온도 조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② '학생 3'은 '우리도 … 소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소등의 필요성에 대해 '… 해야 한다'라고 당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학생 2'는 '학생 3'의 발언에 대해 '5분간의 소등 행사로 전력이 그만큼이나 절감되었다니 놀랍습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새롭게 알게 된 점을 밝히고 있다.
④ '학생 1'은 '학생 2'의 일회용 종이컵을 없애자는 의견에 대해 '미리 구매한 종이컵은 또 다른 쓰레기가 되지 않을까요?'라고 언급하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14** [가]에서 사회자는 직전에 한 토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15** [나]에서 사회자는 '먼저 … 판단 준거를 마련해 볼까요?', '마련된 준거에 따라 대안을 선택해 보도록 합시다.'라는 발언을 통해 앞으로 진행될 토의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16** 토의에서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개개인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대안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토의의 대안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사적인 이익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대안을 판단해야 한다.
② 판단 기준에 따라 선택한 대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하므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③, ④ 판단 준거는 가장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토의 주제에 적합하면서도 합당해야 한다.

**17** '학생 1'은 우리 학급은 1년 내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실천 가능한 대안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1년 동안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실천이 가능한가?'를 판단 준거로 제시할 수 있다.

**18** [A]에서 '학생 3'은 등하교 시 자전거나 도보 이동이라는 대안에 대해 '학급 내' 실천 방안이 될 수가 없고, 변수가 많아 꾸준하게 실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B]에서 '학생 2'는 냉난방기 적정 온도 설정이라는 대안에 대해 학생 차원에서 실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둘 모두 판단 준거에 따라 대안을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19** [가]에서 '학생 2'가 언급한 자율적 소등 점검, 컵 보관함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해 '학생 1'은 동의하는 발언을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컵 보관함에 대한 '학생 3'의 방법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정돈 안내문 작성과 이름표 부착을 제안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학생 2'는 컵 보관함을 제안하는 '학생 3'의 의견에 대해 컵들이 헷갈리거나 정돈이 되지 않을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② '학생 4'는 소등 점검에서 마지막 학생이 뚜렷하지 않다는 어려움을 제시하는 '학생 3'의 발언을 고려하여, 일주일마다 돌아가며 담당 학생을 정하자는 구체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④ '학생 3'은 마지막에 이동하는 학생이 소등하자는 '학생 1'의 의견에 대해 각자 이동하는 교실과 시간이 달라 마지막인지 알 수 없다는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⑤ '학생 3'은 '각자 이동하는 교실과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개인 다회용 컵의 경우, 이동하면서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등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교실을 이동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20** ㉠은 '컵 보관함이 생긴다면'이라는 가정을 제시하였지만, ㉡에는 가정의 방식이 드러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에서는 '컵을 매번 챙기지 않아도 되어 실천하기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학생들이 대안을 실천함에 있어 편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② ㉡에서는 '우리 사회의 탄소 중립 실천'이라는 주제와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의의를 바탕으로 토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③ ㉠은 컵 보관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은 토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⑤ ㉠은 컵 보관함을 제안한 다른 참여자의 의견에 동의를 드러내고 있으나, ㉡은 전체 토의 과정에 대한 마무리 발언이다.

**21** 토의의 결과를 정리할 때, 개인 다회용 컵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개인 컵에 이름표를 붙이고 컵 보관함으로 컵 정리하기'가 들어갈 수 있다.

## 활동 적용 문제

본문 154~155쪽

**01** ③ **02** ⑤ **03** ④ **04** ② **05** ⑤ **06** ㉠: 기준 ㉡: 실현 가능성

**01** 이 토의에서 공동체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자료(ㄱ)를 바탕으로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전문가의 의견(ㄴ)을 통해 이상 기후 현상의 원인을, 그래프로 탄소 발자국의 비중(ㅁ)을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ㄷ. 국제 사회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만, 국제 기구의 협의문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ㄹ. 학생들도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제시되어 있지만, 학생들의 설문 결과 통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02** 국제 사회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로 뜻을 모은 것은 기후 위기라는 문제 상황의 원인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토의에서 문제의 원인으로 분석한 것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농도 급증', '온실가스(이산화 탄소)로 인한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평균 기온 상승으로 제트 기류의 약화와 이상 기후 현상'이다.

**03** 5분간의 소등 행사는 적절한 소등으로 많은 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는 효과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며, 토의 주제에 대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04** 판단 준거 중 '학급 내 범위에서의 활동이 가능한가?'에 따라 이동 수업 및 하교 시에 소등을 점검하자는 대안은 학급 내에서 실천이 가능하므로 실천하기 어렵다는 평가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5** 토의는 협력적 사고를 통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의사소통 행위이다. 따라서 다른 참여자의 의견을 반박하거나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데 유리하게 하는 것은 토의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다. 이는 경쟁적 말하기인 토론에서 필요한 태도이다.

**06** 판단 준거의 의미는 판단을 위한 '기준'이다. 토의에서 판단 준거를 설정할 때에는 대안의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대안을 평가해야 한다.

## 소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156~158쪽

**01** ④ **02** ⑤ **03** 학생 3 **04** ㉮ 첫째, 인간의 활동으로 온실가스의 농도가 급증하고 이산화 탄소 배출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둘째, 지구 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05** ③ **06** ① **07** ㉮ 토의의 순서를 안내하고 토의를 절차에 맞게 진행한다. **08** ㉮ 등하교 시 자전거 및 도보 이용은 학급 내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대안이다. 또한 변수가 많아 1년 동안 꾸준히 실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09** ②

**01** 〈보기〉의 '구성원들이 문제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협력적 사고를 통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의사소통 행위이다.'라는 부분을 통해 토의에서는 대안을 결정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 역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02** '우리 학생들도 지구의 구성원으로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데 힘을 모으고자'라는 발언에서 토의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지금부터 '학급 내 탄소 중립 실천 방안'에 대해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 실천하고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한 토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③ '먼저 기후 위기 문제와 그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토의의 다음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④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는 등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토의할 문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03** '학생 3'은 자신이 탐색한 '탄소 발자국'의 시각 자료인 그래프를 제시하며 이상 기후 문제를 발생시키는 탄소 배출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실천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를 충족하는 참여자는 '학생 3'이라고 할 수 있다.

**04** 토의의 참여자들이 문제의 원인으로 분석한 것은 '인간

의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농도 급증', '온실가스(이산화 탄소)로 인한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평균 기온 상승으로 제트 기류의 약화와 이상 기후 현상' 등이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주어진 토의 문제의 원인 두 가지를 명확하게 서술한 경우 | 5점 |
| 주어진 토의 문제의 원인 중 한 가지만 명확하게 서술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05** 토의의 유형인 '심포지엄, 패널 토의, 포럼, 원탁 토의' 중 이 토의는 형식상 '원탁 토의'라고 볼 수 있다. 원탁 토의는 별도의 순서와 청중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화 형식으로 진행하는 토의이다.

| 오답 풀이 | ① 토의 참여자들이 청중과 직접 의견을 교환하는 토의의 유형은 '포럼'이다.

② 토의 참여자들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발언하는 토의의 유형은 '심포지엄'이나 '포럼'이다.

④ 두 사람 이상의 전문가가 학문적 주제에 대해 강연식으로 발표하는 토의의 유형은 '심포지엄'이다.

⑤ 특정 문제에 관심이 있는 패널들이 청중 앞에서 자유롭게 토의하는 유형은 '패널 토의'이다.

**06** 대부분은 대안의 도출 과정에서 '좋은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등과 같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학생 1'의 발언 중 '그런데 바로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면 미리 구매한 종이컵은 또 다른 쓰레기가 되지 않을까요?'라는 부분은 다른 학생의 의견에 대해 부작용을 지적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② '학생 1'은 교통과 운송 부문의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등하교 시 자전거나 도보 이용을 제안하고 있다.

③ '학생 3'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등을 철저히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④ '학생 4'는 냉난방으로 인한 에너지 감축으로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⑤ '학생 2'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 종이컵을 없애고 개인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07** 사회자의 발언인 ㉠에서는 '탄소 중립 실천 방안들을 마련해 봅시다.', ㉡에서는 '이제 …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볼까요?'라는 발언을 통해 토의의 진행 순서를 안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과 ㉡을 바탕으로 사회자의 역할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4점 |
| 사회자의 역할은 서술했으나 ㉠이나 ㉡과 관련이 없는 경우 | 1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08** [A]에 제시된 대안은 '등하교 시 자전거와 도보 이용'이다. 이 대안을 주어진 판단 준거를 바탕으로 하면 학급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며, 늦잠이나 건강 등의 이유로 일관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A]에서 제시된 대안을 주어진 판단 준거 두 가지를 적용하여 모두 서술한 경우 | 5점 |
| [A]에서 제시된 대안을 주어진 판단 준거 중 한 가지만 적용하여 서술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09** 〈보기〉와 같이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급 안내문을 작성하였을 때, 이동 수업 및 하교 시 소등은 마지막에 교실을 나가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로 소등 담당 학생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2) 반대 신문하며 토론하기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160~161쪽

01 ③ 02 필수 쟁점 03 ③ 04 ② 05 신뢰성 06 ② 07 상대측이 시간을 끌거나 자신의 입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01** 토론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생각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 유형이다.

**02** 필수 쟁점은 토론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견해가 나뉘는 쟁점 중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으로, 정책 토론에서는 문제의 심각성, 제시된 방안의 실효성, 방안의 실행에 따른 이익과 비용 등이 있다.

**03** 반대 신문은 상대측의 입론 내용 범위 안에서 질문이 이루어져야 한다. 반대 신문은 상대측의 입론에 드러난 논리적 오류를 부각하는 과정이므로, 토론자는 반대 신문을 통해 새로운 주장을 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04** '동물이 아니더라도 실험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유)', '인공 배양 피부, 인공 각막 배양 세포 등이 개발되었다.(근거)'를 바탕으로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한다.'가 논증의 결론이자 주장에 해당함을 추론할 수 있다.

**05** 근거 자료가 최신의 것인지, 믿을 만한 것인지, 출처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06**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와 같이 주장에 대한 이유만을 물으면 상대측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오류를 검증하기 어렵다.

**07** 개방형으로 질문할 경우 상대측이 시간을 끌거나 자신의 입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이나 논리적 허점에 대해 검증하는 질문을 폐쇄형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활동 적용 문제** 본문 162~165쪽

01 ② 02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03 ③ 04 ② 05 ① 06 신뢰성 07 ① 08 이유 09 ② 10 ⑤ 11 ② 12 반론

**01** 토론의 사회자는 토론에 관한 이해와 경험이 있어야 하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또한 돌발 상황에 관한 대처 능력과 이를 조정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02** 토론 참여자들은 반대 신문을 함에 있어서, 상대측 발언의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논리적으로 부족한 점을 짚으면서 상대측 발언의 허점이 드러나도록 한다.

**03** 찬성 측 제1토론자의 입론에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는 논제와 관련하여 주장, 이유, 근거를 바탕으로 논증을 구성하고 있다. 입론에서는 반대 신문을 펴지 않는다.

**04** 찬성 측 제1토론자는 인공지능 창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05** [A]에서 '반대 2'는 인공지능 '오비어스'가 기존의 그림들을 모방한 후 기존 화풍을 변주해 창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찬성 측 주장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06** 근거 자료의 출처를 묻는 것은 상대측 주장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질문이다.

**07** 반대 측 제1토론자는 인공지능 창작물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기에 창작성이 없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08** ㉠은 '인공지능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라는 주장의 이유에 해당한다.

**09**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근거 자료는 최신의 것인

지, 근거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게 제시되었는지, 인용된 정보의 내용은 정확하며 믿을 만한 것인지를 질문할 수 있다.

**10** 찬성 측 제2토론자의 입론에서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아 무단으로 사용되는 일이 많다고 하였다. 이 주장의 공정성을 비판하기 위해 반대로 인공지능이 다른 작가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활용한 경우는 없는지를 질문할 수 있다.

**11** '찬성 1'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수동적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예술적 가치가 있는 대상을 생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 반론은 찬성 측 혹은 반대 측의 입론에 관해 상대측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말하기이다.

소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166~168쪽

**01** ② **02** ③ **03** 질문 **04** ④ **05** 예 인공지능 창작물은 기존 작품과 구별 가능한 창작성을 갖기 때문에 저작자의 특성을 지닌다. **06** ⑤ **07** 공정성 **08** ④ **09** ② **10** ④

**01** 찬성 측과 반대 측은 모두 토론의 절차에 따라 입론과 반대 신문, 반론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 오답 풀이 | ① 토론에서는 대립적 입장을 지닌 토론자들이 절차에 따라 논쟁을 하게 되며, 마지막에는 승패 판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③ 반대 신문이란, 토론에서 상대측의 주장과 논거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상대측 주장의 논리적 오류를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다.

④ 반대 신문은 토론을 역동적이고 흥미롭게 만들고, 논제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⑤ 반대 신문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측의 입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02** 반대 신문식 토론의 절차에 따르면, 찬성 측 또는 반대 측의 입론 이후에 상대측의 반대 신문이 이어진다.

| 오답 풀이 | ① 반대 신문식 토론은 찬성 측 제1토론자의 입론으로 시작한다.

② 대부분의 경우 상대측의 입론 직후에 반대 신문이 이어진다.

④ 반대 신문식 토론은 찬성 측의 입론으로 시작하여 찬성 측의 반론으로 마무리된다.

⑤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두 사람이 각각 입론을 한 번씩 진행한다.

**03** 반대 신문 단계에서는 지정된 시간 안에 질문의 형식으로 상대측에게 직접 질의한다.

**04** ㉠은 찬성 측의 입론에 대한 반대 측의 반대 신문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이 기존의 그림들을 모방한 후 기존 화풍을 변주해 창조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작자의 특성을 지닌다는 찬성 측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인공지능 창작물의 윤리성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② 인공지능 창작물이 저작자의 특성을 지닌다는 찬성 측 주장의 타당성을 비판하는 것이며, 공정성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③ 찬성 측 주장의 출처를 묻고 있지 않다.

⑤ 찬성 측 주장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05** 찬성 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 사례집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오비어스'가 변주를 통해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었다면 창작성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창작성'을 언급하고, 기존 작품과 구별 가능한 창작성을 지녔다고 서술한 경우 | 5점 |
| '창작성'을 언급하였지만, 기존 작품과 구별 가능한 창작성을 지녔다는 내용을 서술하지 못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06**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동물이 아니더라도 실험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인공 배양 피부, 인공 각막 배양 세포 등이 개발'되었다는 근거와 연결된다.

**07** 공정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질문으로는, '내용이나 주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고 정의로운가?', '특정 대상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게 중립적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등이 있다.

**08** 반대 신문은 상대측의 입론 내용 범위 안에서 질문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대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9** ㄱ. 반대 신문은 상대측의 입론 내용 범위 안에서 질문이 이루어져야 하나, '찬성 1'은 상대측 입론에서 벗어난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ㄷ. '사상과 감정 없이 기능적으로 창작한 것은 왜 예술에 포함되지 않나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본질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와 같이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질문을 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는 개방형 질문에 해당한다.
ㄹ. 최신의 자료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다.

**10** "그 방안을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는 상대측의 구체적 답변을 요구하는 폐쇄형의 질문이다. 이를 통해 상대측의 논리적 허점에 대해 검증할 수 있다.

### (3) 서로 만족하는 협상하기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170~174쪽

**01** ④ **02** 대안 **03** ① **04** 시작 단계 **05** ② **06** 근원적 **07** ③ **08** 전략 **09** ⑤ **10** 시작 단계 **11** ⑤ **12** 문제 해결 가능성 **13** ② **14** ② **15** ② **16** ③ **17** ② **18** 자습실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

**01**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서로 다른 이익과 주장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의 생각을 조정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의사소통 행위를 말한다. 개인 간의 갈등과 집단 간의 갈등 모두에서 사용될 수 있다.

**02** 협상은 대상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대안을 조정하는 의사 결정 과정이다.

**03**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는 양측이 서로의 입장과 요구를 확인하며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 가능성을 확인한다.
| 오답 풀이 | ② 양측이 서로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는 단계는 '조정 단계'이다.
③, ④ 양측에 이익이 되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조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안을 이끌어 내는 단계는 '해결 단계'이다.
⑤ 제안을 상호 검토하며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단계는 '조정 단계'이다.

**04** 양측이 서로의 입장과 요구를 확인하며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05** 성공적인 협상은 설득과 양보, 타협을 통해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해결안을 찾는 것이다. 상대측의 이익이 자신의 근원적 이해와 크게 충돌하지 않는 경우 상대측의 의견이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06**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양측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각자의 요구와 우선순위 확인을 통해 상대측이 진정으로 얻고 싶어 하는 '근원적 이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07** 자신에게는 우선적인 요구 사항이지만 상대측에게는 차

선인 요구 사항이 있는지, 혹은 그 반대인 요구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협상의 전략이다. 이를 통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검토하며 절충점을 찾거나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08** 성공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 협상 참여자들은 다양한 협상의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서로 간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09** 학교 측에서는 이번 공사를 통해 도서관의 공간을 새롭게 배치하면 약간의 추가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곳에 학교 역사관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공사를 통해 도서관의 공간을 새롭게 배치하려면 추가 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다.

**10** 제시된 협상 장면은 양측의 이해 문제에서 일어난 갈등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분석하는 시작 단계이다.

**11** 학생 측에서는 학생들이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즉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자습실 공간을 확대하고 미디어 창작실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학생회에서 학생들의 자습실 공간을 확충하고 미디어 창작실을 소규모로 신설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였을 뿐, 도서관 구조 변경 여부에 대해 학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언급은 하고 있지 않다.

② 학교의 주인공은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의 요구를 중요하게 반영해 달라는 것이지 도서관 구조를 변경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③ 학생 측에서는 자습실 공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을 뿐, 도서관 구조 변경 공사의 일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언급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학생회의 대표 공약은 자습실 공간 확대 및 미디어 창작실 신설로, 자습실 공간을 학교의 여러 군데에 신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

**12**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 양측의 입장과 협상 범위를 제시하여 문제 해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13** 학생 측은 학교 측의 의견을 수용하여 미디어 창작실을 학교의 다른 공간을 활용하여 만들 것을 건의하고 있다.

**14** 협상의 조정 단계에서는 양측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안과 대안을 제시하며, 양보와 타협을 통해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게 된다.

**15** 학생 측은 학교 측의 양보에 대해 학생들끼리 청소 당번을 정해 자습실과 역사관을 정리하고 시설들을 청결하게 관리하겠다는 보상을 제시하고 있다.

**16** 학교 측에서는 도서관 안에 10제곱미터 정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상패와 졸업 사진첩, 문집 등을 전시하는 작은 역사관을 만들고, 학교 상징물 등은 학교 건물 입구에 따로 전시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17** 학생 측은 자신에게 우선적인 요구 사항인 자습실 공간 확대를 요구하며, 차선인 미디어 창작실 논의는 보류하고 있다.

**18** 이 협상을 통해 학생 측은 미디어 창작실 신설을 보류하는 대신 자습실 공간 확대라는 대안을 얻어 냈다.

## 활동 적용 문제

본문 175~176쪽

**01** ④ **02** ⑤ **03** 협력적 **04** ① **05** ④ **06** 역사관 공간을 줄이고, 학교 상징물 등은 학교 입구에 따로 전시하도록 함.

**01** 이 협상에서 학교 측은 추가 공간에 학교 역사관을 설립하고자 하고, 학생 측은 자습실 공간 확대 및 미디어 창작실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02** 학생 측에서는 영상 촬영이나 편집에 대한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창작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을 뿐, 영상 촬영이나 편집을 위해 자습실을 이용하는 학생이 많다고 하지는 않았다.

**03** 학교 측과 학생 측은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의사소통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04** 학생 측은 도서관의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미닫이식 이중 책장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공동의 이익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하여 서로의 근

원적 이해를 충족시키는 '상호 만족하는 대안 탐색하기' 전략에 해당한다.

**05** 학생 측은 자습실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했으나, 미디어 창작실 설립은 적당한 장소가 생길 때까지 보류하기로 하였다.

**06** 학교 측은 원래 계획했던 역사관의 공간을 줄여 도서관 안에는 상패와 졸업 사진첩, 문집 등만 전시하는 작은 역사관을 만들고, 학교 상징물 등은 따로 건물 입구에 전시할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자습실 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양보하였다.

## 소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177~179쪽

**01** ⑤ **02** ⑤ **03** 시작 단계 **04** ② **05** ㉠ 학교 측은 도서관 추가 공간에 학교 역사관을 마련하고자 한다. 학생 측은 도서관 추가 공간을 자습실 및 미디어 창작실로 활용하고자 한다. **06** ③ **07** ③ **08** 조정 **09** ㉡ 양측이 서로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있다. **10** ③

**01** 상대측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은 토론에서 필요한 일이다. 협상에서는 설득과 양보, 타협을 통해 서로 의논하고 절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02** 협상의 해결 단계에서는 양측에 이익이 되는 최선의 해결책 제시, 조정을 통해 문제 해결의 위한 합의안 이끌어 내기 등이 이루어진다.

| 오답 풀이 | ①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협상의 시작 단계이다.

②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협상의 시작 단계이다.

③ 서로의 제안을 검토하여 입장의 차이를 좁혀 가는 것은 협상의 조정 단계이다.

④ 양측이 서로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협상의 조정 단계이다.

**03** (다)는 양측의 이해 문제에서 일어난 갈등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분석하는 협상의 시작 단계이다.

**04** 학교 측에서는 인근 학교들도 모두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도서관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학교 측과 학생 측이 협상을 하고 있다.

③ 학생 측의 두 번째 발언에서 '학교 역사관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역사관을 만드는 의의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④ 학생 측에 따르면 학생들의 요구는 자습실 공간 확대 및 미디어 창작실 신설이다.

⑤ 학교 측은 학교 역사관 설립을 통해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05** 학교 측과 학생 측은 도서관의 구조 변경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입장 차이가 발생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 측은 도서관 추가 공간에 학교 역사관을, 학생 측은 자습실 및 미디어 창작실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학교 측과 학생 측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도록 각각 서술한 경우 | 5점 |
|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학교 측과 학생 측의 입장을 서술하였지만 입장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06** 학생 측은 학교 측이 자습실 확대를 수용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학생들끼리 청소 당번을 정해 자습실과 역사관을 정리하고 시설들을 청결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학교 측의 우선적인 요구 사항은 도서관의 추가 공간에 역사관을 만드는 것으로, 학교 측이 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② 학교 측에서 기존의 자습실을 확대해야 한다는 학생 측의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이것이 학생 측의 양보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은 아니다.

④ 학교 측의 제안을 학생 측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하지 않은 영역의 제안이라고 할 수 없다.

⑤ 학생 측은 학교 측의 양보에 대한 보상으로 새로운 제안을 한 것이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결론을 내기 위해 대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07** 학생 측은 정보실 옆에 있는 창고를 개조하여 미디어 창작실을 신설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08** 우선과 차선을 고려하여 양보하기, 상대측의 양보에 대해 보상하기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의견이나 제안을 전략적으로 조정하기'라는 협상의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09** 〈보기〉에서 학생 측과 학교 측은 미디어 창작실 설립에 대해 서로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며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양측이 서로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 5점 |
| 양측이 서로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내용을 모호하게 서술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10** (나)와 (다)에서는 학교 측과 학생 측 모두 협상 주제와 관련하여 근거 있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중단원 **실력 점검 문제** 본문 181~187쪽

**01** ③ **02** ① **03** ④ **04** ㉡ **05** ② **06** ⑤ **07** ㉥ 상대측의 입론에서 벗어난 내용을 질문하였다. **08** 조정 단계 **09** ② **10** ④ **11** (1)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해 미닫이식 이중 책장을 설치하여 자습실을 확대하기로 함. (2) 미디어 창작실은 다른 공간을 활용하여 만들기로 함. **12** ⑤ **13** ① **14** ④ **15** ③ **16** ⑤ **17** ⑤

**01** 이 글은 토의로,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 상대측의 주장이 부당함을 명백히 밝히는 것은 토론의 특징이다.

**02** 사회자는 도출한 대안들의 판단 준거를 마련한 후, 마련된 준거에 따라 대안을 선택하자는 토의의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학생 1'은 '학생 3'의 의견에 대해 타당한 지적이라고 말하였다.

③ '학생 2'는 '학생 1'이 제시한 꾸준하게 실천 가능한지 여부라는 판단 준거를 보완하여 학교 차원이 아닌 학생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학생 1'의 제안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보완하여 또 다른 판단 준거를 제시한 것이다.

④ '학생 3'은 '등하교 시 짧은 거리는 자전거나 도보로 이동하기'가 판단 준거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⑤ '학생 4'는 '학생 2'의 의견에 동의하며 기준에 적합한 대안들을 정리하여 말하고 있다.

**03** 이 글에서는 토의 참여자들이 판단 준거로서 학생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모든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준거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04** 이 글에서 토의 참여자들은 판단 준거를 마련하고 마련된 준거에 따라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고 있다.

**05** '특정 대상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게 중립적으로 판단하고 있는가?'는 상대측 발언의 공정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질문이다.

**06** 반대 신문에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논리적 허점에 대해 검증하는 등 구체적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해야 하며, 한 번에 두 개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는 게 좋다.

| 오답 풀이 | ① 반대 신문을 통해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측의 입론에 드러난 논리적 오류를 부각해야 한다.

② 상대측 주장에 대해 이유만을 물으면 상대측의 입장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오류를 검증하기 어렵다.

③ 반대 신문에서는 상대측이 제시한 근거보다 더 정확하거나 최신인 자료 혹은 결정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질문하여 상대측의 주장을 약화할 수 있다.

④ 개방형 질문이 아닌 구체적 답변을 요구하는 폐쇄형 질문을 해야 한다.

**07**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묻는 것은 상대측 입론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이다. 그 외에도 개방형 질문의 사용,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질문을 한 것 등이 반대 신문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이유이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세 가지 이유 중 한 가지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 5점 |
| 세 가지 이유 중 한 가지를 서술하였으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08** 이 글은 제안을 상호 검토하며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협상의 조정 단계이다.

**09** 이 글은 협상으로, 마지막에 승패 판정의 과정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소통 행위는 토론이다.

**10** 학교 측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도서관 추가 공간에 학교 역사관 설립과 함께 자습실 공간 확대를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순위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학생 측은 미디어 창작실 설립을 요구하고 있으나 학교 측에서는 공간이 한정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② 학생 측은 학교 옆 △△도서관에서 미닫이식 이중 책장을 사용한 사례를 반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③ 학생 측은 학교 측의 의견을 수용하여 도서관 내에 미디어 창작실을 만들자는 의견을 철회하였다.

⑤ 학교 측은 학생 측의 모든 제안을 수용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디어 창작실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11** 학생 측은 미닫이식 이중 책장을 설치하여 얻게 되는 추가 공간을 통해 자습실 확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미디어 창작실의 경우 도서관 공간이 아닌 학교의 다른 공간을 활용하여 만들자고 양보하였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학생 측이 얻은 것과 양보한 것을 각각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 5점 |
| 학생 측이 얻은 것과 양보한 것 중 일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12** '학생 1'의 발언은 '학생 2'의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대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학생 3'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일 뿐, '학생 1'의 의견에 대해 적절성을 판단하여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학생 2'는 △△거리, □□길을 언급하며 맛나거리가 특색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② '학생 3'은 맛나거리가 특색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학생 2'의 의견을 고려하여 반딧불이 축제라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③ '학생 2'는 사랑미술관의 유화 그리기 수업이 우리 도시에서만 하는 특색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모둠 과제 안내장에 제시된 조건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학생 1'이 유화 그리기 수업이 어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은, 독자가 학생들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13** ㉠에서 '수집한 내용들을 나열해서 쓰기만 하면 평범한 글이 될 것 같'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어떻게 하면 인상적인 글을 쓸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에서 상대가 제시한 의견에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다.

③ ㉠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일 뿐 자신의 의견에 대한 상대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다. ㉡은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에 대한 상대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④ ㉡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질문으로 상대의 질문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⑤ ㉠과 ㉡ 모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조언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

**14** '찬성 1'은 얼마 전 초보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며 초보 운전 표지 의무화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찬성 1'은 '초보 운전자'를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 기준 1년 미만자'라고 정의하였지만, 이에 대해 반대 측의 동의를 구하고 있지는 않다.

② '찬성 1'은 일본의 초보 운전 표지 의무 부착 제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사례를 종류별로 분류하여 논의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아니다.

③ '찬성 1'은 '초보인데 보태 준 거 있어?'라는 표지를 목격한 경험을 활용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기존 정책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찬성 1'은 정책이 변화한 과정을 중심으로 논의의 배경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15** ㉢은 일부 경력 운전자들의 태도가 찬성 측의 가정과 다를 수 있음을 언급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것이지, 상대 주장이 공정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은 초보 운전자의 사고율이 전체 운전자의 평균에 비해 18%p 높다는 통계에 대해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는 질문이다.

② ㉡은 표지 부착 의무화가 운전 미숙을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표지 부착 의무화로 사고가 감소한다는 찬성 측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질문이다.

④ ㉣은 비용의 측면에서 찬성 측의 주장이 실질적 이익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다.
⑤ ㉤은 찬성 측이 제안한 제도를 운영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질문이다.

**16** ㉡에서 Z동 대표는 Y동이 얻을 수 있는 수익과 Z동 주민들이 체육 시설 이용에 있어 느낄 부담을 언급하며 요금에 대한 부담을 낮춰 달라는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17** 〈보기〉에는 필자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지난달 30일 오후 2시에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를 통해 협상이 개최된 장소와 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
② 〈보기〉의 2문단을 통해 합의가 도출되기까지 협상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③ 'Y동과 Z동의 주민 대표는 신설될 주민 복지 센터에 도서관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라는 문장으로 기사를 시작하며, 협상의 결과를 도입부에서 제시하고 있다.
④ 2문단에서 인용된 내용을 바탕으로 두 동 대표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다.

## 대단원 1등급 완성 문제

본문 188~193쪽

**01** ④ **02** ④ **03** ③ **04** ⑤ **05** ① **06** ⑤ **07** ④
**08** ③ **09** ⑤ **10** ⑤ **11** ③

서술형 문제
**12~19** 해설 참조

**01** ㉡에서는 행위를 시키는 주체가 '엄마'로 드러나고, ㉣에서는 행위를 시키는 주체가 '바람'으로 드러난다. ㉡과 ㉣ 모두 행위를 시키는 주체를 드러낸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의 '풀리다'와 ㉢의 '흔들리다'의 '-리-'는 동작(행위)을 당함의 의미를 나타낸다.
② ㉡의 '먹이다'의 '-이-'와 ㉣의 '살리다'의 '-리-'는 동작(행위)을 시킴의 의미를 나타낸다.
③ ㉠은 능동문의 주체를 상정하기 어렵다.
⑤ ㉣에서 불씨를 살리는 주체는 '바람'이다.

**02** ㉥를 능동문으로 바꾸면 '눈이 온 세상을 덮었다.'가 되고, 이때 서술어의 동작 대상은 '온 세상'이다.
| 오답 풀이 | ① '-어지다'도 피동 접사와 마찬가지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②, ③ ㉤를 능동문으로 바꾸면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가 된다.
⑤ '덮여지다'에서는 피동 접사 '-이-'와 '-어지다'가 쓰였다.

**03** ㉰의 서술어 '밝혀졌다'의 원형인 '밝혀지다'는 형용사 어근 '밝-'에 사동 접사 '-히-'와 피동 접사 '-어지다'가 결합한 형태이다.
| 오답 풀이 | ① ㉮는 사동 접미사 '-시키다'를 활용한 사동문이다.
② ㉯의 서술어에는 형용사 어근 '높-'과 사동 접미사 '-이-'가 포함되어 있다.
④ ㉱의 서술어 '먹이다'는 문맥상 '가축을 기르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⑤ ㉲의 서술어의 원형인 '마시게 하다'는 동사 어간 '마시-'에 '-게 하다'가 결합한 형태이다.

**04** '만나다'는 그에 대응하는 피동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물다'의 피동사는 '물리다'이다.
② '긁다'의 피동사는 '긁히다'이다.
③ '잡다'의 피동사는 '잡히다'이다.
④ '담다'의 피동사는 '담기다'이다.

**05** (가)는 토의이고 (나)는 협상이다. 협상은 대상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대안을 조정하는 의사 결정 과정이지만 토의는 공동체에서 발생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 오답 풀이 | ② 토의와 협상은 모두 참여자들이 협력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④, ⑤ 토의와 마찬가지로 협상 역시 참여자들이 공통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의사 결정 과정이다.

**06** '학생 3'은 온실가스 배출량 중 인간의 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탄소 발자국' 자료를 제시하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노력이 필요한 분야를 항목화하여 자료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이 토의의 참여자들은 '학급 내 탄소 중립 실천 방안'이라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③ '학생 1'은 '전문가들에 의하면'과 같은 발언을 통해 이상 기후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④ '학생 2'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자료를 언급하며 문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07** (나)는 협상의 시작 단계로, 양측이 갈등 상황을 인지하고 협상 범위를 제시하여 문제 해결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의 일이 이루어진다.

| 오답 풀이 | ① 협상의 해결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② 협상의 조정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③ 협상의 조정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⑤ 협상의 해결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08** ㉢에 사용된 선어말 어미 '-겠-'은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09** 담화에서 앞에 나온 어휘나 발화 전체를 다시 가리키는 표현을 대용 표현이라고 한다. 대용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게 된다.

**10** ㉣은 대용 표현으로서, 동생이 앞에 말한 '그것을 먹었어.'를 받아 '그것을 먹었다니 다행이네.'라는 의미를 전달하며 불필요한 반복을 줄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은 지시 표현으로서 청자 모두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을 가리키지만 시선 밖에 있는 대상은 아니다.
② ㉠과 ㉡은 모두 필통을 지시한다.
③ ㉢은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빵'을 의미하며 화자와 청자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④ ㉢은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빵'을 의미하며 화자에게는 멀고 청자에게는 가까운 대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11** ⓐ는 바로 앞에서 언급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가리키는 표현이며, ⓑ는 앞에 나온 '중국의 한 언론사에서 인공지능 '드림라이터'가 작성한 기사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일'을 가리키는 대용 표현이다. ⓒ는 앞에 나온 '인공지능 창작물'을 다시 가리키는 대용 표현으로,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게 된다. ⓓ는 바로 앞에서 언급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창작하려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을 가리킨다.

**12** 서술형 예시 답 ㉠에는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여 미래의 일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미래 시제가 사용되었으며, 상대가 생방송에서 실수를 할 것이라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에는 상대 높임이 사용되었으며, 목적어 자리에 놓인 보도국장님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에서는 미래의 일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겠-'이 사용되었으며, ㉡에는 객체 높임 표현이 사용되었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과 ㉡에 나타난 문법 요소를 〈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6점 |
| ㉠과 ㉡에 나타난 문법 요소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13** 서술형 예시 답 영호는 내게 자기가 내일 선생님께 수학 문제를 여쭤보겠다고 말했다.

'너'가 '선생님'으로 바뀌면 '에게'는 '께'로 바뀌고 '물어보다'는 '여쭤보다'로 바뀌며, 직접 인용이 간접 인용으로 바뀌면 '내'는 '자기'로 바뀐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바뀐 문장에서 높임 표현과 간접 인용 표현 모두 적절하게 사용된 경우 | 5점 |
| 바뀐 문장에서 높임 표현과 간접 인용 표현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사용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14** 서술형 예시 답 ㄱ이 능동문이고 ㄴ이 피동문이며, ㄱ에서는 '쫓는' 행위의 주체가 강조되고 ㄴ에서는 '쫓는' 행위의 대상이 강조된다.

'쫓기다'의 '-기-'는 문맥상 피동 접사로 사용되었으므로 ㄱ은 능동문이고 ㄴ은 그에 대응되는 피동문이다. 능동문에서는 행위의 주체가 강조되고 피동문에서는 행위의 대상이 강조된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ㄱ과 ㄴ에 대해 〈조건〉에 따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5점 |
| ㄱ과 ㄴ에 대해 서술했으나 〈조건〉에 따라 서술하지 못하였거나 일부만 서술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15** 서술형 예시 답 접속 표현으로 '물론', '왜냐하면', '또'가 사용되었으며, 대용 표현으로 '이처럼'이 사용되었다. 접속 표현을 사용하여 발화 간의 관계를 명확할 수 있고, 대용 표현을 사용하여 반복적인 표현을 피할 수 있으므로 담화를 응결성 있게 구성할 수 있다.

〈보기〉는 '물론', '왜냐하면', '또'와 같은 접속 표현과 '이처럼'과 같은 대용 표현을 사용하여 담화의 응결성을 높이고 있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내용을 간결하게 하여 집약적으로 전달한다는 효과를 서술한 경우 | 5점 |
| 명사형 문장으로 표현하여 핵심 내용을 전달하기 용이하다는 것을 서술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16** 서술형 예시 답 〈보기〉에 제시된 토의 주제는 민지의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토의 주제로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없다.

토의의 주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으며,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시의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없다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 5점 |
| 개인적인 문제라는 점을 언급했지만 공통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없다는 내용을 제대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17** 서술형 예시 답 '찬성 1'의 반대 신문은 반대 신문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였으며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 신문 시 유의할 점을 바탕으로 〈보기〉를 평가하여 반대 신문으로서의 적절성을 판단해 본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반대 신문으로서의 적절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고 그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5점 |
| 반대 신문으로서의 적절성 여부는 제대로 판단했으나 그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18** 서술형 예시 답 Ⓐ: 수업 시간을 45분으로 줄여야 한다. Ⓑ: 45분 수업을 할 때 학습 효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 설문 조사를 통해 45분 수업을 할 때 효율이 높아졌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주장'은 논증의 결론, '근거'는 주장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나 정보에 해당하고, '이유'는 주장과 근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 준다. 이에 따라 적절한 사례를 찾아 논증을 구성해 본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주장, 이유, 근거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5점 |
| 주장, 이유, 근거 중 두 가지 이상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19** 서술형 예시 답 협상과 토론은 모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반면 협상은 조정과 타협을 통해 해결안을 찾아가는 것이고, 토론은 절차에 따라 논쟁한 후 마지막에 승패 판정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토론은 논제에 대하여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내세우고, 상대측의 주장이나 근거가 부당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는 의사소통의 한 형태이다. 협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의 생각을 조정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 가는 의사소통 행위를 말한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협상과 토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각 명확하게 서술한 경우 | 4점 |
| 협상과 토론의 공통점과 차이점 중 한 가지만 명확하게 서술한 경우 | 2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 Ⅳ 언어와 우리의 삶

## 1. 언어와 삶의 흔적

**간단 확인 문제** 본문 196쪽

01 (1) X (2) X (3) O (4) O (5) O
02 (1) 사회성 (2) 차자 표기 (3) 어두 자음군
(4)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ㆁ
03 (1) 역사성 (2) 방점 (3) 거듭 적기

**01** (1)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나누어진 것으로 표현하는 언어의 특성은 '분절성'이라고 한다.
(2) 언어와 인간의 사고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02** (4) 받침으로 중세 국어 시기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ㆁ'의 여덟 개를, 근대 국어 시기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ㆁ'의 일곱 개를 적었다.

**03** (2) 중세 국어 시기에는 소리의 높낮이를 표기하기 위해 방점이 사용되었다.
(3) 중세 국어 시기와 달리 근대 국어 시기에는 '끊어 적기'가 확대되었는데, 그 과도기적 표기로 '거듭 적기'가 나타났다.

### (1) 언어와 삶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197~199쪽

01 언어 02 ② 03 ④ 04 ⑤ 05 사고 06 ③ 07 ② 08 ⑤ 09 ①

**01**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우리의 삶의 모습과 생각들이 담겨 있으므로 언어를 탐구함으로써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우리 삶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언어에 담긴 생각들을 이해할 수 있다.

**02** 언어는 내용과 형식이 자의적이지만, 책상을 책상이라고 부르고 사진을 사진이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부르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A]에서의 의문에 대한 답은 '언어의 사회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03** 언어의 체계성은 음운, 단어, 문장, 담화 등 단위마다 일정한 체계를 이루어 배열된다는 특성이다. 제시된 '갈 것이다 학교에 나는.'이라는 문장은 체계성이 아닌, 언어의 일정한 구조를 지키지 않아 규칙성과 관련 있는 사례이다.

**04** 제시된 질문에서 '여기저기'가 '저기여기'에 비해 부자연스러운 이유는 절대적인 공간의 위치보다 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상대적인 위치와 관련이 있다. 즉 말하는 사람은 자신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공간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05**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과정에서 간단한 표현을 하다가 언어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점차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 사고력이 발달함에 따라 수준 높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언어와 사고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 준다.

**06** 지역이나 직업 등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은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보여 준다.
| 오답 풀이 | ① 높임말이라는 언어 표현으로 공손한 마음이라는 사고를 갖게 되었으므로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준 예이다.
② 사고가 발달하지 않아, 언어 또한 간단한 표현을 사용하므로 언어와 사고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예이다.
④ 집단적인 사고방식이 '우리'라는 언어 표현에 드러나므로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준 예이다.
⑤ '환경미화원'이라는 언어 표현으로 대상에 대한 느낌이 바뀌었으므로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준 예이다.

**07** 언어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수단이 되지만, 언어를 통해 문화를 이루고 축적하기도 하며 언어 그 자체로 문화로서의 가치를 갖기도 한다. 따라서 언어가 문화 발전의 수단으로서만 이용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8** 우리말에서 친족어의 발달은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대가족 문화와 관련이 있으며, 농사 기구와 관련된 어휘가 많은 것은 농경 문화가 발달한 것과 관련이 있다. 따

라서 ㉠의 이유는 혈연을 토대로 한 농경 문화의 발달로 설명할 수 있다.

**09** 바사인들의 언어에서 무지개의 색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 것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 활동 적용 문제

본문 200~202쪽

**01** ① **02**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준다 **03** ③ **04** ④ **05** ⑤
**06** 사회 **07** ③ **08** ④ **09** 문화권

**01** (가)는 동일한 소리를 다양한 언어에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예로, 언어의 내용과 형식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자의성을 설명할 수 있다. (나)는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 과거에서 현재로 오면서 달라졌음을 보여 주는 예로, 언어의 내용과 형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역사성을 설명할 수 있다.

**02** '반려동물'이라는 언어를 통해 가족과 같다는 인식과 책임감이 더 강해졌다는 것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03** '부추'를 지역에 따라 '정구지'나 '솔' 등으로 부르는 것은 지역에 따라 언어의 변이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04** ㉠에는 원자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알 수 있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50여 공산품값 인상', '석유류 및 주요 원자재 가격의 인상' 등의 표현을 통해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조미료, 고무신, … 현실화 대상 품목'이라는 표현을 통해 당시 고무신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기사의 표제가 '공산품값 인상'인 것으로 보아, 당시의 주요 물품이 '공산품'임을 알 수 있다.
⑤ '공산품', '중화학 제품' 등의 가격 인상에 대해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통해 해당 물품들이 중심이 되는 산업 사회임을 알 수 있다.

**05** '뜨거워지고'는 금융 거래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려는 금융 회사들의 경쟁 양상에 대한 서술이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발전 양상이 과열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6** 특정 시기의 기사에 나타난 핵심어 목록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언어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07** ㉠은 '음식이 차고 산뜻하거나, 뜨거우면서 속을 후련하게 하는 점이 있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의 '시원하다' 역시 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 오답 풀이 | ①, ② ㉠은 '음식이 차고 산뜻하거나, 뜨거우면서 속을 후련하게 하는 점이 있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①에서는 '말이나 행동이 활발하고 서글서글하다.'의 의미로, ②에서는 '가렵거나 속이 더부룩하던 것이 말끔히 사라져 기분이 좋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⑤ ㉡은 '가렵거나 속이 더부룩하던 것이 말끔히 사라져 기분이 좋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④에서는 '음식이 차고 산뜻하거나, 뜨거우면서 속을 후련하게 하는 점이 있다.'의 의미로, ⑤에서는 '답답한 마음이 풀리어 흐뭇하고 가뿐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08** '밤공기가 시원하게 느껴졌다.'에서 '시원하다'는 [1]-「1」의 '덥거나 춥지 아니하고 알맞게 서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나머지는 모두 [1]-「3」의 '막힌 데가 없이 활짝 트이어 마음이 후련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09** '시원하다'의 경우와 같이 다른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정한 언어 표현이 낯설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 소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203~204쪽

**01** ③ **02** ③ **03** 언어의 역사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생성, 성장, 소멸하며 변화한다. **04** ㉮ '색의 이름'이라는 언어가 '색의 분별'이라는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5** ① **06** ㉮ 해조류를 음식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우리나라는 그 종류를 지칭하는 언어가 세분화되어 있다. 하지만 해조류를 식품으로 여기지 않는 영어권에서는 종류에 상관없이 'seaweed'라는 하나의 단어로 통칭하고 있다. **07** ④ **08** ⑤

**01** 사고력이 발달할수록 더 수준 높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만, 아이들의 사고력이 발달해야만 말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알 수 없다.

**02** 〈보기〉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언어의 내용과 형식이 사회적으로 약속된 것이라는 언어의 사회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03** 시간의 흐름에 따라 'ㅿ'이라는 음운이 사라지고, '블'이라는 단어가 '불'로 형태가 바뀌거나, '어엿브다'의 의미가 바뀐 것 등은 언어의 역사성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관련된 언어의 특성을 쓰고 그 의미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5점 |
| 관련된 언어의 특성은 적었으나 그 의미를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04** 〈보기〉의 사례는 '이름을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색깔'을 쉽게 골라내며,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색깔'을 가장 어렵게 골라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는 '이름'이라는 언어가 '분별'이라는 사고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증명하는 사례이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보기〉의 사례를 통해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 5점 |
| 〈보기〉의 사례 없이 언어와 사고의 관계만을 서술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05** 〈보기〉는 지역에 따라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이는 언어가 지역에 따라 변이형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06** (나)에 따르면 언어는 사회·문화와 결코 분리할 수 없으며, 언어는 그 사회의 관습과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보기〉에서 해조류를 가리키는 말의 종류 차이는 우리나라와 영어권 나라들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우리나라와 영어권에서 해조류를 가리키는 언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대조하여 서술한 경우 | 5점 |
| 단순하게 언어에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만을 서술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07** '언어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수단이 된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문화를 이루어 내고 축적해 왔으며'를 통해 언어는 문화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며 문화를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08** 〈보기〉는 한국어의 '밥'과, 영어의 '빵(bread)'이 특정 음식을 가리킬 뿐 아니라 다른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어의 '밥'은 쌀 중심의 농경 문화가, 영어의 '빵'은 빵을 주식으로 하는 서구권 문화가 반영된 언어이므로 각 문화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한국어에서 '밥'은 끼니, 식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너는 밥 먹었어? 나는 빵을 먹었어.'라는 문장과 같이 '밥'에 '빵'의 의미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② 서구권 문화에서 빵은 주요한 식량 자원이므로, 빵 그 자체보다는 생계 전반을 의미하기도 한다.

③ 우리말 '밥'에는 전통적으로 쌀 중심의 농경 문화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영어에서 '빵'이 생계를 의미하게 된 배경에는 빵을 주식으로 하는 서구권 문화가 존재한다.

## (2) 시대에 따른 국어의 변화

###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206~209쪽

01 ② 02 ④ 03 ㉠: 뜻 ㉡: 음 04 ⑤ 05 ③ 06 ⑤
07 ⑤ 08 ① 09 ① 10 ③ 11 ④ 12 ④

**01** 고대 국어는 대체로 통일 신라 시기까지의 국어의 역사를 말한다.

**02** 고대 국어 시기에는 한자의 뜻과 음을 빌린 차자 표기가 사용되었다. 차자 표기의 종류에는 이두, 구결, 향찰 등이 있다.

**03** 고대 국어 시기의 '永同郡(영동군)'과 '吉同郡(길동군)'은 같은 지역을 이르는 말이다. '永同郡'은 한자 '永(길 영)'의 뜻을 빌려 표기하였고 '永同郡'은 한자 '吉(길할 길)'의 음을 빌려 표기한 것이다.

**04** '곶'은 중세 국어 8종성법의 예외에 해당한다. 중세 국어에는 기본적으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ㆁ'의 8자를 종성에 사용하였다.

**05** 〈보기〉에서 'ㅱ', 'ㅸ', 'ㆄ' 등과 같은 어두 자음군의 쓰임은 확인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싀**·미(샘이)' 등에서 방점이 쓰였다.
② '**:싀**·미(샘이)' 등에서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기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현대 국어에서 쓰이는 'ㅅ, ㅁ, ㄱ, ㅍ' 등의 자음자가 중세 국어에도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⑤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모음 'ㆍ'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06** 중세 국어에서는 받침자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ㆁ' 8자의 자음자가 쓰였다.

**07** 음운 조건에 따라 결합하는 관형격 조사의 형태 변화는 '**ᄋᆡ**/의' 등으로 현대 국어와는 다르다.

| 오답 풀이 | ① 음운 조건에 따라 조사의 형태가 '이/ㅣ/ø(영 형태)'로 달라지기도 하였다.
② 선어말 어미 '**-ᄋᆡ**/**-잇**-'에 의해 실현되는 상대 높임법이 존재하였다.
③ 판정 의문문에서는 '가' 등이, 설명 의문문에서는 '고' 등이 사용되었다.
④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인 '-(ᄋᆞ/으)시-/-(ᄋᆞ/으)샤-' 등이 있었다.

**08** '네'에서는 대명사 '너'에 주격 조사 'ㅣ'가 결합하였고, '사ᄅᆞᄆᆡ'에서는 관형격 조사 '**ᄋᆡ**'가 결합하였다.

**09** '니ᄅᆞ샤도'에서 '-샤-'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에 해당한다.

**10** 근대 국어 시기에는 '밤의'와 같이 모음 조화가 파괴된 모습을 보였다.

**11** '사ᄅᆞᄆᆡ'는 체언 '사람'에 조사 '**ᄋᆡ**'를 이어 적기 한 것이고, '님금미'는 체언 '님금'의 종성 'ㅁ'을 조사 '이'에 다시 적은 거듭 적기, '붉으니'는 어간 '붉-'에 어미 '-(으)니'를 끊어 적기 한 것이다.

**12** '믈 티**ᄂᆞᆫ**'도 '물 치는'에서처럼 'ㅌ'이 모음 'ㅣ' 앞에서 'ㅊ'으로 구개음화된 사례라고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믈이'는 체언 '믈'에 조사 '이'를 끊어 적기 한 것이다.
② '구**ᄇᆡ**뎌'는 '굽이져'처럼 'ㄷ'이 아직 구개음화되지 않은 표기이다.
③ '밤의'는 본래 '밤'이 양성 모음을 가진 체언이기 때문에 모음 조화를 지킨다면 양성 모음 'ㆍ'를 가진 부사격 조사 '**ᄋᆡ**'가 결합되어야 한다.
⑤ '옥갇티'는 '갇-' 뒤에서 '-이'가 결합하면서 'ㅌ'을 거듭 적기 한 것이다.

### 활동 적용 문제

본문 210~214쪽

01 ⑤ 02 (1) 실질 형태소 (2) 실질 형태소 (3) 형식 형태소
03 ④ 04 ④ 05 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06 ①
07 ㅣ 08 ③ 09 이어 적기 위주의 표기였으나 끊어 적기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10 ② 11 첫음절에서는 'ㅏ', 뒤 음절에서는 'ㅡ'로 변화하였다. 12 ① 13 ④ 14 이어 적기가 지켜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15 ③ 16 ⑤

**01** 용언의 어간은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며, 실질 형태소를 표기할 때에는 대체로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한다.

**02** '夜'는 뜻을 빌려 '밤'이라는 실질 형태소를 표기하였다. '入'은 뜻을 빌려 '들-'이라는 실질 형태소를 표기하였다. '伊'는 음 '이'를 빌려서 문법 형태소를 표기한 것이다.

**03** ⓑ에서는 한자 '可(옳을 가)'의 음을 이용하였다. ⓒ에서는 한자 '主(임금 주)'의 음을 이용하였다. ⓔ에서는 한자 '隱(숨을 은)'의 음을 이용하였다.

**04** '뒷더시니'는 현대 국어 '두고 있으시더니'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중세 국어의 '뒷더시니(두-+잇-+-더-+-시-+-니)'에서 과거의 선어말 어미 '-더-'와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는 현대 국어에서의 '두고 있으시더니'와 그 순서가 다르다.

**05** '됴흔', '프디'에서는 'ㄷ'이 'ㅈ'으로 변하기 이전의 형태가 나타나므로 구개음화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06** ㉠에서는 '善쎤慧뼹'을 높이는 주체 높임법을 사용하고 있고, ㉡에서는 '부텨'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을 사용하고 있다.

**07** 체언 '孔공子ᄌᆞ'는 모음 'ㅣ'나 반모음 'ㅣ̆[j]' 이외의 모음인 'ㆍ'로 끝나기 때문에 조사 'ㅣ'가 결합하게 된다.

**08** '술혼'은 'ㅎ'으로 끝나는 체언 '술ㅎ'에 보조사 '운'이 결합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曾증子·ᄌᆞ' + 'ᄃᆞ·려'의 구성이다.

② '얼굴' + '이며'의 구성이다.

④ '일홈' + '을'의 구성이다.

⑤ '효도' + 'ᄋᆡ'의 구성이다.

**09** '비르소미오'에는 이어 적기 표기가 나타나지만 'ᄆᆞᆾ춤이니라'에는 끊어 적기 표기가 나타나므로, 이어 적기 위주의 표기였으나 끊어 적기가 나타나기도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0** '몸'에는 양성 모음 'ㅗ'가 사용되었으나, 조사 '을'에는 음성 모음이 사용되어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았다.

**11** 'ᄆᆞᅀᆞᆷ' → '마음'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첫음절의 'ㆍ'는 'ㅏ'로, 둘째 이하 음절에서 'ㆍ'는 'ㅡ'로 바뀌었다.

**12** 현대 국어의 '서울'은 중세 국어 시기에는 '셔ᄫᅳᆯ'이었다가, 근대 국어 시기에 와서 'ㅸ'이 음성 모음 앞에서는 'ㅜ[w]'로 변화하여 '셔울'이 되었다.

**13** 19세기 말은 근대 국어 시기로, 모음 조화가 점차 파괴되던 시기이다.

**14** '거슨'은 이어 적기가 나타난 경우이고 '흙이라'는 끊어 적기가 나타난 경우, 즉 이어 적기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이다. 이를 통해 이어 적기가 지켜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5** '보기'는 '보-'에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된 것이고, '비호기'는 '비호-'에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된 것이다.

**16** '구비하야 헐허게파오'는 단어 단위로 어절을 나눈다면 '구비하야 헐허게 파오'이다.

## 소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215~217쪽

**01** ③ **02** ⑤ **03** ④ **04** (1) 예 말을 표기할 문자가 없는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2) 예 여전히 한자의 음과 뜻을 모르는 백성들은 사용할 수 없었고, 훈차와 음차의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해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05** ⑤ **06** ⑤ **07** 둘 다 유정 명사에 결합하였다. '사람'에 높임의 의미가 없어 모음 조화에 맞춰 'ᄋᆡ'가 쓰였고, '부텨'에 높임의 의미가 있어 'ㅅ'이 결합하였다. **08** ② **09** 먼저 중세 이후 'ㅿ'가 소멸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ㆍ'는 둘째 이하 음절에서 'ㅡ'로, 첫음절에서 'ㅏ'로 음가가 바뀌어 소멸하였다. **10** ② **11** ⑤

**01** 국어의 역사는 대체로 고려 건국부터 16세기 말까지를 중세 국어,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를 근대 국어로 구분한다.

**02** 한자는 고대 국어 시기에 도입되어 점차 그 쓰임이 확대되었다.

**03** ㉮는 훈차이고, ㉯는 음차이다. 제시된 표에서 음차를 한 것은 '伊'와 '可'이다. 훈차를 한 것은 '夜', '入', '遊', '行' 등이다.

**04** 향찰은 문자가 없는 당시에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중요한 표기 방식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한자의 음과 뜻을 모르는 일반 백성들은 사용할 수 없었고, 또 훈차와 음차의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해독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향찰 표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4점 |
| 향찰 표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일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2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05** 중세 국어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채 대부분 형태소의 원형을 밝히지 않고 이어 적기 하였다.

**06** '**ᄃᆞ리**'는 모음 'ㅣ'로 끝나는 체언으로 'ø(영형태)'로 주격 조사가 실현되었다. '孔공子**ᄌᆞ**'는 모음 'ㅣ'나 반모음 'ㅣ[j]'가 아닌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으로 주격 조사 'ㅣ'가 결합하였고, '말**ᄊᆞᆷ**'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으로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하였다.

**07** 중세 국어 관형격 조사는 '사람'과 같은 유정물에는 모음 조화를 지켜 '**ᄋᆡ**'와 같이 결합하였고, 유정물 중에서도 '부텨'와 같은 높임의 대상에는 'ㅅ'의 형태로 결합하였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유정물과 무정물에 다른 관형격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는 점과 유정물 중 높임의 대상에는 'ㅅ'이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을 모두 서술한 경우 | 5점 |
| 둘 중 하나만을 서술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08** 문학 작품 창작에 한글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고 하였으나, 한글로 기록된 문헌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인 중세 국어 시기부터 나타났다.

**09** 중세 이후 '**ᄆᆞᅀᆞᆷ**>**ᄆᆞᄋᆞᆷ**'의 변화처럼 'ㅿ'가 15세기 무렵 가장 먼저 소멸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ᄆᆞᅀᆞᆷ**>**ᄆᆞ음**'에서처럼 16세기 무렵 둘째 이하의 음절에서 'ㆍ'가 'ㅡ'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18세기 이후 첫째 음절의 'ㆍ'가 'ㅏ'로 바뀌어 현대 국어의 '마음'과 같은 표기가 확정되었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ㅿ', 첫음절의 'ㆍ', 둘째 이하 음절의 'ㆍ'의 변화를 시기순으로 잘 정리한 경우 | 5점 |
| 'ㅿ', 첫음절의 'ㆍ', 둘째 이하 음절의 'ㆍ'의 변화를 파악하였으나, 시기순으로 정렬하지 못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10** '사**ᄅᆞᆷ**'은 양성 모음 'ㆍ'로 끝나는 단어이고 '의'는 음성 모음이므로 모음 조화가 파괴된 예이다.

**11** 중세 국어의 '더**ᄫᅥ**'가 현대 국어의 '더워'로 바뀐 것을 통해 'ㅸ'이 소멸하면서 그 음가가 반모음 [w]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현대 국어의 '덥다'는 '더워/더우니' 등 'ㅂ' 불규칙 활용을 보이고, '좁다'는 '좁아/좁으니' 등 규칙 활용을 보인다.

② '덥다'의 중세 국어 기본형은 '**덥**–'으로 어간의 형태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덥–',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덥**–'으로 고정되지 않았다.

③ 현대 국어의 '덥다'는 'ㅂ' 불규칙 활용에서 어간의 형태가 바뀐다.

④ '잡다'는 활용할 때 어간, 어미가 모두 바뀌지 않는 규칙 활용을 보인다.

중단원 **실력점검 문제** 본문 219~223쪽

**01** ③ **02** ④ **03** 예 ㉠에서는 강아지 짖는 소리가 언어에 따라 다르므로 언어의 자의성이 나타난다. ㉡에서는 '산'과 '강'이 과거에는 '뫼'와 'ᄀᆞᄅᆞᆷ'이었다는 내용이므로 언어의 역사성을 알 수 있다. **04** ⑤ **05** ⑤ **06** ③ **07** ④ **08** 예 '톻-'은 구개음화를 통해 현대 국어의 '좋-'이 되었다. 근대 국어의 구개음화는 한 형태소 안에서도 일어났지만, 현대 국어의 구개음화는 형태소끼리 결합될 때 발생한다. **09** ⑤ **10** ④ **11** ① **12** ③ **13** ①

**01** 언어는 내용과 형식의 결합이 사회적 약속으로 정해져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생성, 성장, 소멸하며 변화한다고 하였다.

**02** 1974년 기사의 '공산품, 중화학', 2010년 기사의 '출시, 혁신' 등의 단어들은 당시 사회의 특징을 드러내므로,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알 수 있다.

**03** ㉠에서는 강아지 짖는 소리가 '멍! 멍!', 'bow wow', 'ouah'와 같이 언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언어는 그 내용과 형식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언어의 자의성을 알 수 있다. ㉡에서는 '산'과 '강'이 과거에는 '뫼'와 'ᄀᆞᄅᆞᆷ'이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생성, 성장, 소멸하며 변화한다는 언어의 역사성을 알 수 있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과 ㉡에 나타난 언어의 특성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4점 |
| ㉠과 ㉡ 둘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 2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04** ㉠은 '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고, ㉣은 '법을 듣지 않는' 데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다. 다만 둘 모두 의문문의 주어가 2인칭이기 때문에 의문형 종결 어미 '-ㄴ다'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은 주어가 2인칭 '너'이기 때문에 의문형 종결 어미 '-ㄴ다'가 쓰여 서술어가 '온다'가 되었다.

② ㉡에서 요구하는 답은 '얻논 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설명 의문문이기 때문에 '고'가 쓰였다.

③ ㉢은 '가'가 쓰인 판정 의문문으로, 긍정과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다.

④ ㉣은 문장의 주어가 2인칭 '너'임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때 '너'는 청자일 것이다.

**05** ㉮에서는 '등조왕'이 '보광불'을 청하는 상황에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ᄉᆞᆸ-'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등조왕'보다 '보광불'이 더 높여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에서는 주어 '孔공子ᄌᆞ'를 높이기 위해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ᄋᆞ샤-'가 활용된 'ᄀᆞᆯᄋᆞ샤ᄃᆡ'가 쓰였다.

② ⓐ에서는 주어 '孔공子ᄌᆞ'에 주격 조사 'ㅣ'가 쓰였으나, 주체 높임을 위한 주격 조사의 쓰임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는 선어말 어미 '-이-'의 쓰임을 통해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 표현이 실현되었다.

④ ⓒ의 '부텻'에 결합된 관형격 조사 'ㅅ'은 본래 무정물에 결합되지만, 이 경우 유정물 중에서 높임의 대상인 '부텨'에 결합되었다.

**06** '올타'는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기 한 것으로 거센소리화된 것을 그대로 표기하였다.

**07** 끊어 적기를 한 예시는 '븕은(븕-+-은)', '사ᄅᆞᆷ의(사ᄅᆞᆷ+의)', '믈이(믈+이)'를 들 수 있고, 거듭 적기를 한 예시는 '옥갇티'를 들 수 있다.

**08** 구개음화가 처음 일어난 17세기 무렵에는 한 형태소 안에서도 'ㄷ'이나 'ㅌ'이 'ㅣ'나 반모음 'ㅣ'와 결합하는 경우 'ㅈ'이나 'ㅊ'으로 구개음화되었다. 이후 현대 국어에서도 두 형태소가 만날 때 동일한 음운 환경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만, '잔디'와 같은 한 형태소 안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근대 국어의 구개음화는 한 형태소 안에서 일어나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서술한 경우 | 5점 |
| 두 시기의 차이를 형태소 내부의 구개음화와 외부의 구개음화를 통해 설명하지 못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09** 마지막 문단에서 『용비어천가』에서는 '혼자'를 'ᄒᆞᆫᄇᆞᆫ사'의 형태로만 썼다고 하였고,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에서는 'ᄒᆞᆫ오사'로만 썼다고 하였다. 따라서 '혼자'의 중세 국어 표기는 세 문헌을 통틀어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1문단에서 팔종성가족용은 'ㄱ, ㆁ, ㄷ, ㄴ,

ㅂ, ㅁ, ㅅ, ㄹ'로 모든 끝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는 원리라고 하였다. 따라서 '높고', '빛'은 팔종성가족용의 원리에 어긋나는 예이다.
② 3문단에서 『용비어천가』에서는 사잇소리 표기로 'ㅿ'을, 『월인천강지곡』은 사잇소리 표기를 'ㅅ'으로 통일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ㅅ'은 현대 국어에서 합성어의 사잇소리 표기에 남아 있다고 하였으므로 '바닷물'의 사잇소리 'ㅅ' 표기는 중세 국어의 사잇소리 표기에서 유래한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석보상절』은 한자를 적고 이어서 그 한자의 음을 제시하였다고 하였으므로, '天텬'으로 적었을 것이다. 『월인천강지곡』은 한자의 음을 적고 이어서 그 한자를 제시하였다고 하였으므로 '텬天'으로 적었을 것이다.

**10** [A]에서 『월인천강지곡』에서는 체언의 끝소리가 울림소리가 아닌 경우에는 이어 적기를 하였다고 하였으므로, '붚 + 을'은 '부플'로 적었을 것이다.

**11** ㉠ '**ᄃ**외시고'에 쓰인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는 주체인 '妙光(묘광)'을 높이기 위해 쓰였다.
㉡ '니**ᅀᅳ**시며'에 쓰인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 역시 주체인 '妙光(묘광)'을 높이기 위해 쓰였다.
㉢ '**ᄒᆞᄉᆞ보ᄃᆡ**'에 쓰인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ᄉᆞᆸ**-'은 '말씀을 드리되'의 대상이 되는 '부텨'를 높이기 위해 쓰였다.

**12** '웃음이 많다'의 '다'를 '多'로 표기하고 '다'로 읽는다면, 한자를 본뜻과 상관없이 음으로 읽는 것이므로 ㉢의 방식을 이용한 것이다.

**13** ⓐ 체언 '바**ᄅᆞᆯ**'에 부사격 조사 '애'가 결합한 '바**ᄅᆞ**래'가 부속 성분인 부사어로 쓰였다.
ⓑ 체언 '나라ㅎ'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나랏'이 부속 성분인 관형어로 쓰였고, 체언 '中國'에 부사격 조사 '에'가 결합한 '中國에'가 부속 성분인 부사어로 쓰였다.
ⓒ 체언 '生人'에 관형격 조사 '**ᄋᆡ**'가 결합한 '生人**ᄋᆡ**'가 부속 성분인 관형어로 쓰였다.
| 오답 풀이 | ⓓ 체언과 조사가 결합한 '子息이'와 '**양ᄌᆡ**'가 둘 다 주성분인 주어로 쓰였다.
ⓔ 체언과 조사가 결합한 '내'와 '네'인데 둘 다 주성분인 주어로 쓰였다.

# 2. 언어의 다양한 모습

## 언어의 다양성과 공공성

**간단 확인 문제** 본문 224쪽

**01** (1) ○ (2) × (3) ○ (4) ×
**02** (1) 세대 (2) 공공 (3) 정확성 (4) 속어나 비어

**01** (2) 하나의 언어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요인에 따라 언어 사용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4) 공공언어의 좁은 의미는 '공공 기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언어'이다.

**02** (4) 공공언어는 어문 규정을 지키고 정확한 어휘와 문장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품격을 지켜 속어나 비어 등을 삼가고 적절한 양을 효과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고압적·권위적·차별적 표현을 쓰지 않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224~226쪽

**01** ④ **02** 언어 공동체 **03** ④ **04** ⑤ **05** ⑤ **06** 공공 기관 **07** ⑤ **08** ㉮ 거리 간판, 광고문, 공연물의 대사, 1인 미디어 방송의 언어 등

**01**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개인이 만든 담화가 불특정 다수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언어의 다양성과 공공성이 더욱 중요해졌다.

**02** 언어 공동체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으로, 하나의 언어 공동체 내에서도 언어 사용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03** 담화 관습은 서로 다른 언어권뿐만 아니라 동일한 언어권 내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른 집단의 을 나와 다르다고 차별해서는 안 되며, 고유한 담화 관습을 존중해야 한다.

**04** ㉠~㉢은 각각 지역, 세대, 분야별로 언어 공동체의 언어 사용의 다양성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이와 같은 언어를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되고 다양성을 이해하며 서로의 담화 관습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05** 공공언어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어문 규정을 지켜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06** 좁은 의미의 공공언어는 공공 기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언어이고, 넓은 의미의 공공언어는 개인 혹은 단체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모든 언어를 의미한다.

**07** 공공언어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질문으로는 '고압적·권위적·차별적 표현을 삼갔는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는가?' 등이 있다.

**08** 넓은 의미의 공공언어의 사례로는 거리 간판, 광고문, 공연물의 대사, 1인 미디어 방송의 언어 등이 있다.

## 활동 적용 문제

본문 227~230쪽

**01** ⑤ **02** ③ **03** ② **04** ③ **05** ① **06** (1) 서울로 올라오는 (2) 서울 위주의 표현이기 때문에 서울 이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 **07** ③ **08** ⑤ **09** 전화 연락 **10** ⑤ **11**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고 외래어를 남용하였다. **12** ②

**01** '민아'는 독서 모임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는……'이라고 말하는 것이 독후 활동의 개인적 경험을 강조하기 위한 동아리의 전통임을 알게 되었다. 즉 동아리의 담화 관습은 개인적 경험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아'가 개인적 경험보다 동아리의 전통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02** 지수와 할아버지의 대화에서 세대에 따라 자주 사용하는 언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3** '섣달그믐날'은 지수와 같이 어린 세대는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어휘이고, '팩폭'은 할아버지와 같이 나이가 많은 세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어휘이다.

**04** 표준어를 사용할 경우 대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역의 방언은 그 지역만의 향토성을 드러내어 개성 있는 표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05** 차별 표현에는 '차별받는 대상'이 존재하며, 이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단어, 구, 문장'과 같은 '언어적 장치'로 드러난다. 이러한 차별적 표현은 듣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06** '서울로 올라오는'이라는 표현은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인식될 수 있다.

**07** 서로 편하게 대화하는 친구라 할지라도 예의를 지킴으로써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잊지 않아야 한다.

**08** (라)의 경우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였고, 고압적이고 복잡한 표현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판결문에 어울리지 않는 속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9** '폰질'은 '전화 연락'을 속되게 표현한 말이기에 공공언어에서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10** [A]에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드러낸다는 이유로 방송 언어의 품격을 지키지 않았고 공격적 언사가 나타났으며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 [B]는 전시회에 대한 홍보 자료로서,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였고 외래어를 남용하였기에 바람직한 공공언어라고 볼 수 없다.

**12** 언어 환경이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언어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고려하는 태도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는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존중하고 공적 책임을 인식하여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이지, 환경에 따라 다양한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소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231~232쪽

**01** ④ **02** ㉠ '거리 간판'과 같이, 개인 혹은 단체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모든 언어를 말한다. **03** ① **04** ① **05** ② **06** ㉠ 주린이(주식 초보자):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 슈스(슈퍼스타): 큰 인기를 얻는 사람, 당모치(당연히 모든 치킨은 옳다) : 모든 치킨은 맛있다 등

**01**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개인 인터넷 방송이 활발해지는 등의 변화가 생겼고,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누구나 공적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공인들의 공적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02** 넓은 의미의 공공언어는 개인 혹은 단체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모든 언어를 말하며, 여기에는 거리 간판, 광고문, 공연물의 대사, 1인 미디어 방송의 언어 등이 포함된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넓은 의미의 공공언어에 해당하는 사례를 사용자와 사용 대상이 드러나도록 한 문장으로 서술한 경우 | 5점 |
| 넓은 의미의 공공언어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하였지만, 이를 사용자와 사용 대상이 드러나도록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 3점 |
| 넓은 의미의 공공언어에 해당하는 사례를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한 경우 | −1점 |

**03** 담화 관습은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함께 변하는 특징이 있다.

**04** (가)의 '민아'는 독서 모임의 담화 관습을 이해함으로써 독서 모임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나)에서 할아버지와 지수는 세대 간 언어 사용의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가)와 (나)를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나와 다른 담화 관습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5** '민아'는 처음에 독서 모임 사람들의 담화 관습을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차차 그들의 담화 관습을 이해하게 되면서 독서 모임에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

**06** 특정 세대나 지역, 분야에서만 사용하는 말을 찾아보고, 사전 등을 참고하여 이를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본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언어 사용의 차이를 보여 주는 사례 세 가지를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 5점 |
| 언어 사용의 차이를 보여 주는 사례를 한 가지 이상 제시한 경우 | 3점 |
| 언어 사용의 차이를 보여 주는 사례를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한 경우 | −1점 |

## 중단원 실력 점검 문제

본문 234~235쪽

**01** ③ **02** ⑤ **03** ㉠ 인터넷이 발달해서 누구나 개인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야. **04** ④ **05** ㉠ 정확하고 적절한 표현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이 필요하다. **06** ④

**01** (가)에서 특히 최근에 우리 사회에 다문화 가정이나 북한 이탈 주민 가정 등 다양한 유형의 가정이 늘고 있어서 언어 공동체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였다(ㄹ). 그리고 (나)에서 최근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공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ㄱ).

**02** 담화 관습은 언어 공동체에서 오랜 기간 형성해 온 소통 방식을 의미하므로 사라진 유행어는 담화 관습에 해당하지 않는다.

**03** (나)에서 최근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 글을 올릴 수 있게 되었으며, 개인 인터넷 방송도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공적 책임을 가진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조건〉에 따라 공적 책임에 대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서술한 경우 | 5점 |
| 공적 책임에 대한 내용은 서술했으나 〈조건〉에 따르지 않은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04** ㉢에는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폰질'과 같이 속된 어휘가 나타난다.

**05** 공공언어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어문 규정을 지켜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며 공정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공공언어의 목적과 관련하여 수정이 필요한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5점 |
| 수정이 필요한 이유를 서술하였지만 공공언어의 목적과 연결 짓지 못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06** (나)의 인물들은 충청도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다. 특정한 지역의 담화 관습인 방언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토속적 정감을 드러내는 효과를 지닌다.

## 대단원 1등급 완성 문제

본문 236~240쪽

01 ② 02 ① 03 ⑤ 04 ② 05 ② 06 ③ 07 ⑤
08 ③ 09 ⑤ 10 ② 11 ③ 12 ② 13 ① 14 ④

서술형 문제

15~18 해설 참조

**01** 이 글에서는 언어의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분절성, 추상성 등과 같은 언어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02** 언어가 일종의 사회적 약속임을 염두에 두면 소설 속 인물의 의문이 해소될 수 있다.

**03** ⑤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언어를 통해 마디마디 나누어진 것으로 표현한다는 특성인 분절성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다.

**04** 이 글을 통해 언어는 사회성과 역사성을 지닌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보기〉를 통해 언어는 사회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05** ㄱ과 같이 명사형 어미로 끝내거나 ㄷ과 같이 '−ㄹ 것'으로 끝내는 것은 고압적 표현에 해당한다. 해당 표현은 '−기 바랍니다.'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이 좋다.

**06** 공공언어를 사용할 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해야 하므로 한자어 위주의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07** '사업장 소재지를'이라는 어구 다음에 오는 서술어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적고'를 추가하여 수정하였다.

**08** 〈보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을 사용한 『독립신문』의 창간 취지를 밝힌 글이다.

**09** 우리말에 친족어가 발달한 것으로 보아, 우리의 문화가 혈연 중심 문화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농경 문화 중심의 생활을 해 왔다는 것은, 예를 들어 농기구 관련 어휘가 발달한 데서 알 수 있다.

**10** 명칭을 바꾸었더니 대상에 대한 느낌이 달라진 것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 사례에 해당한다.

**11** [A]는 지역 방언에 해당하고, [B]는 젊은 세대에서 쓰는 말이며, [C]는 특정 분야에서 사용되는 말이다.

**12** 〈보기〉에서는 '부추'의 다양한 지역 방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3** 독일 유학생 'B'는 독일 사람들의 담화 관습이 나름대로 장점이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소통도 원활해지고 유학 생활하기가 더 쉬워졌다. 이로 보아 각 언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담화 관습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②, ④ 주어나 목적어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라든가 직설적 표현은 단지 다양한 담화 관습 중 하나일 뿐, 이를 바람직한 담화 관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③ 'B'는 본래 한국인이므로 독일인과는 다른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언어 공동체에 속한다.

⑤ 한국인 중 물음에 대한 우회적인 답변을 선호하는 사람

은 직설적 표현을 선호하는 독일 사람들의 담화 관습에 당혹감을 느꼈을 것이다.

**14** ㉡에서는 훈민정음의 창제로 한자로 옮겨 적던 언어생활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였으며, ㉢에서는 언어가 세대, 지역,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15** 서술형 예시 답 ㉠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며, ㉡은 언어가 그 사회의 문화를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에서는 언어와 사고 간의 관계를, ㉡에서는 언어와 문화 사이의 관계를 추리할 수 있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과 ㉡ 모두에 대해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5점 |
| ㉠과 ㉡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16** 서술형 예시 답 ㉠과 ㉡에서는 둘 다 주격 조사 'ㅣ'가 사용되었고, ㉢에서는 관형격 조사 '의'가 사용되었다.
㉠은 '부텨+ㅣ', ㉡은 '너+ㅣ'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은 '사ᄅᆞᆷ+의'로 분석할 수 있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 모두에 대해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5점 |
| ㉠~㉢ 중 일부분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17** 서술형 예시 답 ㉠은 모음 조화를 지킨 표현이고 ㉡은 모음 조화를 지키지 않은 표현인 것으로 보아,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은 체언과 조사 사이에서 양성 모음과 양성 모음이 어울린 경우이므로 모음 조화를 지킨 것이고, ㉡은 체언과 조사 사이에서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어울린 경우이므로 모음 조화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과 ㉡ 모두에 대해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6점 |
| ㉠과 ㉡ 중 한 가지에 대해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

**18** 서술형 예시 답 〈보기〉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는 민원인이 총 96명으로 가장 많다는 것이다.'로 수정해야 한다.
〈보기〉에서 '문제는'과 '많다' 사이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많다'를 '많다는 것이다'로 수정해야 한다.

| 평가 기준 | 점수 |
|---|---|
|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하고 바르게 수정한 경우 | 5점 |
|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하였거나 바르게 수정하지 못한 경우 | 3점 |
|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1점 |